

1문단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 ▶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이 뭘 말이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해명한다는 건가?
- ▶ 그럼 왜 전통 윤리학에서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했을까? '윤리학'이잖아. 당연히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했겠지.

㉠ **특해 Point**

▪ '객관'과 '주관'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다. 가령, '객관적 근거'라는 말은,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관적이다'라는 말은, '특정 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다. 가령, '주관적 시점'이라는 말은, '특정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점'인 거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 ▶ 왜 만족스러운 답을 못했을까?
- ▶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지. 특정 사람들에게 '옳다'고 판단되는 것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 ▶ 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 도덕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었다는 걸까?
- ▶ 아무튼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애초에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있는데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찾는 거라 주장한 걸 거야. 기층에서 많이 보여줬던 소재이지.

읽어 읽기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다. (16.09)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 ▶ 그럼 '진리 적합성'이란 결국,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이자 '옳고 그름 판정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되겠네.

㉠ **특해 Point**

▪ 패러프레이징(재진술)

표현이 달라도 가리키는 의미가 같다면, 이를 치환해줄 수 있어야 한다.

2문단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디딤문제

위를 토대로 '도덕 문장은 ~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에 들어갈 말은?

- ▶ 뭘 소리지?
- ▶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 또는 '종합적 문장'이래.
- ▶ 명칭을 최대한 억지로라도 납득해보자. '분석적 문장'은 단어의 정의를 토대로 '분석'되는 문장이고, '종합적 문장'은 경험과 관찰을 '종합'해야 하는 문장이라는 거네.
- ▶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하니, '분석 문장'도 아니고 '종합 문장'도 아니겠네.

읽어 읽기 종합적 vs 분석적 (17.1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의 수용했다.

- ▶ 왜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고 했을까?
- ▶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은 단어의 정의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 ▶ 왜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A)가 주어(선)에 내포되어야 할까?
- ▶ 잘 모르겠어. 어쨌든 '술어가 주어에 내포되어야 한다'가 '분석적 문장'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네. 납득은 잘 안 되니까, 표시나 메모해두자.

㉠ **특해 Point**

▪ 이해·납득X ⇒ 표시·메모

실전에서 이해/납득이 안 가는 정보는 어쩔 수 없다.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여 표시/메모를 남겨놓고 선지 판단 단계에서 참고하도록 하자.

디딤문제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디딤문제 2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직전 문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라.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뭘 소리지?
- ▶ '선'과 같은 도덕적 단어는 그 자체가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도덕 문장 역시 분석적이지 않다는 뜻해.
- ▶ 조금 더 깊게 이해해보자. '선'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는 뜻은 결국 '선'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이므로, 무언가를 '내포'할 수 없다는 걸 거야. 직전 문장에서 '술어(A)가 주어(선)에 내포되어야 분석적이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주어(선) 자체가 분석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즉 무언가를 내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덕 문장은 분석적일 수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해, 선은 더 이상 하위 범주가 없는 최소 단위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당연한 내용이네. '선'은 감각과 관련이 없는, 관념적(=추상적) 개념이니까.
- ▶ 결국, <도덕 문장 ⇨ 진리적합성(종합or분석)>이라는 거구나.

◎ 독해 Point

▪ **감각적(경험적)**

감각적(경험적)이라는 말은 오감(촉각, 후각, 청각, 미각, 시각)과 관련된다든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관념적(추상적)이라는 말과 반대된다.

디딤문제 2



3문단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①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 ▶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 ▶ 도덕 문장은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든, 감정/태도에 관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겠지. 가령, '그녀는 착하다'가 도덕 문장이라면, 이는 그녀에 대한 감정/태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거야.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 ▶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뭘까? 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걸까?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 ▶ 표현적 용법은 '감정 표현'이고, 기술적 용법은 '사실 기술'이라는 거네.
- ▶ 아까 도덕 문장은 감정/태도를 표현하는 거라 했으니, 도덕 문장은 표현적 용법과 관련된 건가? 일단 좀 더 읽어보자.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디딤문제 3

'용법'과 '도덕 용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문장의 의미를 재구성하면?

- ▶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도덕적인 옳고 그름과 관련된 게 아니래. 왜일까?
- ▶ 그럴겠지. 아까 에이어는 도덕 문장(도덕적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은 감정과 태도에 대한 표현으로,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면 그건 정서적인 게 아니지.
- ▶ 근데 아까 '사실 기술'이 뭐라고 하지 않았나? 아, 직전에 '기술적 용법'이라 했지. 즉, 이 말의 의미는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을 통해 쓰였을 경우 해당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는 거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디딤문제 4

에이어에 의하면 '도둑질은 나쁘다'의 '나쁘다'가 표현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았을 경우, 이 문장은 진리 적합성은 있지만 분석 문장이 아니다. (O X)

- ▶ 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할까? 그야 감정/태도가 아닌 사실을 기술했으니까

디딤문제 3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을 쓰인 문장(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은 도덕 문장(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디딤문제 4

O

그렇겠지. 즉,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도덕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네.

- ▶ 경험적 검증? 아까 어디서 봤던 건데? 그렇지! '종합 문장'이었어. 그럼 결국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을 통해 쓰였을 경우 '종합 문장'이 된다는 거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 ▶ 왜 감정을 표현한 거면 사실 기술이 아니지?
- ▶ 아까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으로 구분된다 했잖아.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겠지.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ㅋㅋ)는 감정의 표현이지. 이런 감정/태도 표현만이 도덕 문장이라 하는 거구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 ▶ 왜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되는 걸 기술할 수 없을까?
- ▶ 당연해. 감정/태도는 결국 그 주체의 것일 테니까, 주체와 따로 독립할 수도 없을 거야.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 ▶ 그렇지. 결국 도덕 문장이 감정/태도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주장했으니 '새로운' 사고라 볼 수 있을 거야.

디딤돌 5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은 무엇이었을까?

디딤돌 6

(가)는 특정 윤리학적 견해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O X)

1단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 ▶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소개한 다음, 이것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려나?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 ▶ 왜 이름이 '전건 긍정식'일까?
- ▶ '전반부의 조건'을 긍정해서 '후반부의 결론'을 긍정했으니 '전건 긍정식'이겠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 ▶ 뭘 소리지?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
- ▶ '비가 오면 안 나간다.' '비가 온다'가 참이면, '안 나간다'가 반드시 참이라는 거구나.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

◎ 독해 Point

- 구체적 수치·사례 대입

처음 읽었을 때 그 뜻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 정보는 간단한 수치나 사례를 대입하여 이해해보자.

읽어 읽기 논증의 타당성 (16.09)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뭘 소리지?
- ▶ '단독 문장'일 때는 감정/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조건문의 부분 문장'일 때는 감정/태도를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왜 그런 거지? 잘 모르겠어. 일단 표시해두자.

◎ 독해 Point

- 이해·납득X ⇒ 표시·메모

실전에서 이해/납득이 안 가는 정보는 어쩔 수 없다.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여 표시/메모를 남겨놓고 선지 판단 단계에서 참고하도록 하자.

디딤돌 5

도덕 문장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

디딤돌 6

0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 ▶ ‘굴은 맛있다’는 당연히 선호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일 거야.
- ▶ 직전 문장에서 말한대로, 감정/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단독 문장’이겠지.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 ▶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는 선호의 표현이 아니지. 조금 바꿔 말해서 ‘맛있는 굴은 비싸다’는 ‘주관적 선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실을 기술하는 것에 가까우니까.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 ▶ 아, 그러니까 ‘조건문의 부분 문장’이 되면 선호 표현이 아니라는 거구나. 그럼 아까 말했던 ‘단독 진술’일 때는 감정/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부분 진술’일 때는 감정/태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

◎ 독해 Point

■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모든 정보는 갑작스레 튀어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맥락과 연결된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를 질문해야 그 맥락과의 연결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디딤돌 7

윗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이해해보자.

디딤돌 8

㉠의 내용은 [P가 감정/태도 표현하는 문장일 때는 전건 긍정식이 ~하지 않다고 정리 가능하다. ‘~’에 들어갈 내용은?

- ▶ 원 개소리지?
- ▶ 차분히 의미를 파악해보자.
 - P가 감정/태도 표현하는 문장이면, 다음 둘의 내용 차이가 발생
 - ‘P이면 Q이다’의 P (=조건문의 부분 P)
 - ‘P이다’의 P (=단독 P)
 - 이때, ‘P이면 Q이다’, ‘P이다’가 둘 다 참이어도
 - ‘Q이다’가 반드시 참인 건 아님
- ▶ 여전히 잘 와닿지 않아. 예시를 넣어서 이해해보자.
 - 다음 둘의 내용 차이가 발생
 -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의 ‘굴은 맛있다’
 - ‘굴은 맛있다’의 ‘굴은 맛있다’
 - 이때,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와 ‘굴은 맛있다’가 둘 다 참이어도,
 - ‘굴은 비싸다’가 반드시 참인 건 아님
- ▶ 아 그럼 이런 느낌이네.

디딤돌 7

해설 참고

디딤돌 8

타당 (위에서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는 것인 이유가, 두 전제-단독 문장과 부분 문장-의 참이 결론의 참임을 보장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감정/태도에 관한 문장을 다룰 때에는 두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다.)

- 다음 둘의 내용 차이가 발생
 - 비를 좋아하면 눈도 좋아한다.
 - 비를 좋아한다.
- 근데 눈을 안 좋아한다.
- 왜? 앞문장의 ‘비’는 가수 ‘비’고, 뒷문장의 ‘비’는 날씨 ‘비’거든 ㅎㅎ

(미안하다 떠오르는 예시가 이거밖에 없었다.)

- ▶ 그럼에도 잘 이해가 안 가면, 일단 밑줄 쳐두고 의미가 복잡하니 메모해두자.
 - P가 감정/태도 표현하는 문장일 때
 - ‘단독 문장’과 ‘부분 문장’의 내용이 달라짐
 - 전건 긍정식 결론의 참 보장X

◎ 독해 Point

■ 구체적 사례/수치 들기

어떤 추상적 정보를 이해할 때, 스스로 수치나 사례를 들어 이해해보자. 훨씬 더 와닿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 ▶ 왜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 ▶ 아, 당연하구나.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가 참일 때 ‘표절은 나쁘다’도 참이라면 당연히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도 참이라고 보이잖아.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 ▶ 왜 그럴까?
- ▶ 구체적인 이유가 납득은 안 갔지만, 감정/태도의 표현을 다룰 때에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디딤돌 9

[1등급+ 1문단에서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근데 위에 제시된 2가지 방식으로 에이어는 논리학에서 제기한 문제를 아주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즉, 위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답하면 에이어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1문단에서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고 했을까? 이는 에이어가 위의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답하더라도, 에이어가 ‘어떠한 결정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면할 비판의 내용이 무엇일까? (글에 제시된 예시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에 근거하라.)

- ▶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왜 이 2가지 방법을 택해야 할까?

디딤돌 9

만약 전건 긍정식에서 도덕 문장을 다룰 수 없다 또는 ‘도덕 문장을 다루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를 받아들이면, 모든 도덕적 추론이 불가능해진다.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하지 않듯이 말이다. 즉, ‘표절을 돕는 것이 왜 나쁘?’의 이유를 물을 때, 그 답으로 ‘표절은 나쁘니까’를 제시할 수 없다. ‘그냥 내 감정/태도야’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다. 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윤리학의 학문적 존재 의의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다.

- ▶ 일단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진리 적합성을 따질 수 없다 했어. 그래서 도덕 문장(=감정/태도 표현 문장)이 전건 긍정식에 포함될 경우, 전건 긍정식이 도덕 문장을 담을 수 없다고 하거나, 도덕 문장을 담은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하지.
- ▶ 종합하면, (에이어 말대로라면, 타당한 전건 긍정식에는 도덕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음)이 결론으로 도출되는 거네.
- ▶ 근데 왜 이게 비판이 되는 걸까? 잘 모르겠어. 일단 어쨌든 에이어의 견해를 수용하려면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에 있을 수 없다 하거나, 도덕 문장이 있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잘 납득은 안 됐으니, 표시해두자.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 ▶ 행크스는 이 쟁점(타당한 전건 긍정식에서 도덕 문장을 다룰 수 없음)에 대하여 뭐라 했을까?

2문단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 ▶ 그렇지.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 ▶ 뭘 소리지?
- ▶ 아무튼 ‘단독 문장’이든 ‘조건문의 부분 문장’이든, 무조건 판단적이라는 거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 ▶ 왜 (판단한다 = 속성 부여)지?
- ▶ ‘a는 b라고 판단한다’는 건, ‘a에게 b라는 속성을 부여한다’랑 비슷한 말이겠구나.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 오 에이어의 견해(참/거짓 X)랑 대립되네. 근데 왜 판단적이면 참/거짓일 수 있는 걸까?
- ▶ 왜인지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밀줄 쳐두자.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 ▶ 오 아까 논리학자의 견해(둘의 내용 차이 있음)랑 대립되네. ‘단독 진술(=단독 문장)’이든 ‘조건문의 부분 진술(=부분 문장)’이든 내용 차이가 없다는 거네.
- ▶ 역시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니 밀줄 쳐두자.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 ▶ 그렇지. 예를 들어, 행크스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
 -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의 ‘굴은 맛있다’와, ‘굴은 맛있다’의 ‘굴은 맛있다’ 서로 같은 내용임
 -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와 ‘굴은 맛있다’가 둘 다 참이면,
 - ‘굴은 비싸다’가 반드시 참임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조건문의 부분 문장’과 ‘단독 문장’이 뭐가 다르냐는 거네?
- ▶ 위에서 똑같이 판단적이라 했는데 갑자기 이걸 왜 묻지? 두 문장이 또 다른 차이가 있나?

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 ▶ 네? 갑자기요? 아까는 조건문의 부분 문장도 판단적(속성 부여)이라고 하셨잖아요?!
- ▶ 아, 판단적이기는 한데, 그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는 못한다는 건가?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 ▶ 아, 그러니까 ‘조건문의 부분 문장’은 판단적 본질은 있으나, 그걸 ‘발현’하지는 못한다는 거구나.
- ▶ 마치 ‘잘생기긴 했는데~ 아직 꾸미지 않아서 남들은 몰라~ 안 굼은 복권이야~’ 이런 느낌이구나. 잘생김의 본질은 있는데, 겉으로 ‘발현’은 안 된 거지.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 ▶ 그래 ‘조건문의 부분 문장’은 판단적이기는 한데, 발현은 못한다는 거네.

01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도덕 용어는 기술적 용법이나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다 했어.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도덕 용어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한 문장이야.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다를 게 없다 했지.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야.
▶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내포 관계)로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야.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도덕 용어의 용법은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이 있다 했어. 각각은 '도덕 감정/태도를 표현하는 문장',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에 해당하지.
▶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덕 감정/태도를 표현하는지' 또는 '사실을 기술하는지'야.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는 상관이 없지. 어떤 종류의 사실이든, 사실을 기술하는 순간 '기술적 용법'에 해당하니까.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 에이어는 사람들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를 하는 이유가, 표현적 용법을 쓴 문장(=도덕 감정/태도를 표현한 문장=도덕 문장=진리 적합성이 없음)을 기술적 용법(=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문장=진리적합성이 있음)을 쓴 문장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라 봤지.

02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A]는 행크스의 입장이야. 행크스의 입장은 '모든 문장은 판단적 본질을 갖지만(=판단적이지만), 조건문의 부분에서는 그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였어.
- ①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모든 문장은 판단적이라고 본 게 행크스의 입장이지.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행크스는 모든 문장이 판단적이고,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보았어. 단독 진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 ③ '굴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모든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여도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존재해. 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는 뜻이라 했지.
 - ④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③과 같은 논리야. 모든 문장은 판단적 본질을 가지고, 모든 문장은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문장은 존재할 수 없어.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 행크스의 입장 그 자체.

03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다답문제 10

이 선지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 앞뒤 어절을 써라.

▶ 전통적인 윤리학자는 도덕 용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 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로 볼 수 있지.

• 에이어 :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 에이어의 입장에서 도덕 문장은 도덕 감정/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이는 주체와 독립적일 수 없어서 도덕 문장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따라서 에이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거야.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 ③

▶ 에이어에게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은, 즉 사실을 기술하지 않는 문장이야. 이는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말이지.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 ④

▶ 이 지문에서 에이어가 직접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 따라서 [진술 3]에 대해 동의할지 안 할지 확실할 수 없어. 고로 알 수 없지.

▶ 앞부분의 판단이 애매하긴 해도, 확실한 건 에이어가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이에 대한 예외 또한 언급하지 않았지.

• 행크스 :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⑤

▶ 행크스는 모든 문장은 판단적인 본질은 같고, 이에 따라 조건문에 쓰이든 단독으로 쓰이든 그 내용의 차이가 없다고 했어. 다만 판단적 본질의 발현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지.

다답문제 10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04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 P가 감정/태도를 표현할 때는, 단독 문장의 P와 조건문의 P가 서로 내용이 같지 않다는 거야.

▶ 즉, '에이어가 말하는 도덕 문장(감정/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은 타당한 전건 긍정식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지.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은 에이어에 대한 지적/비판이 될 거야. (나)의 첫문장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어.

▶ 하지만 그 비판의 내용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전건 긍정식이 도덕 문장을 포함할 경우 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였지.

◎ 판단 Point

□ 4vs1

하나의 선지가 명백히 정답임(or4개의 명백한 오답)이 확인되면 그 즉시 다른 선지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이 문제의 정답인 ①은 판단이 어렵지 않다. ㉠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도, 서치 수준에서 '에이어가 옳다면, 타당해 보이는 전건 긍정식을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①을 제외한 오답 선지는 판단이 꽤나 까다롭다. 실전에서는 지문 이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선지의 판단이 힘들었더라도, '그래도 ①은 확실히 틀렸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다.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은 '에이어가 말하는 도덕 문장(감정/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은 타당한 전건 긍정식에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였어.

▶ 만약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그 도덕 문장은 감정/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겠지.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은 두 전제('단독 문장' + '조건문의 부분 문장')의 내용이 같아야, 전건 긍정식이 타당할 수 있다고 했어.

▶ 그런데 에이어의 견해를 수용하면 두 전제('단독 문장' + '조건문의 부분 문장')의 내용이 같지 않게 된다 했지.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굴은 맛있다'는 도덕과 관련된 감정/태도가 아닌,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이지. 지문에서는 이러한 문장으로도 예시를 들면서 문제를 제기했어.

▶ 즉, 꼭 도덕과 관련되지 않아도, 감정/태도에 관한 모든 문장은 ㉠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 그렇지. 행크스에 따르면 단독 문장의 P와 조건문의 P는 서로 내용이 같아. 따라서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0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 <보기>는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며, 이러한 태도들에 참/거짓이 없다고 해. 이는 에이어의 견해와 부합하면서, 행크스의 견해와는 상충하는 부분이네.
- ▶ <보기>는 도덕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주장하며,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이 ‘일관성’이 있다면, 타당하다고 주장해. 이는 ‘몇몇 논리학자’의 의견과 상충하네.
- ▶ 그럼 <보기>는 지문에서 말한 ‘몇몇 논리학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에이어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반박이 될 거야.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다답문제 11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동일하군 (O X)

- ▶ <보기>에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건,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에 기초해.
 - ▶ 즉, <보기>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더 나아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거지.
 - ▶ 이 두 가지의 주장은 상충하는 부분이 없어.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 <보기>는 태도의 참/거짓은 없고, 태도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면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 해. 이는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과 상충하지.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 <보기>에서는 도덕 문장에 참/거짓이 없다고 해. 이는 윤리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세우자는 주장과 상충하지.
- ④ ‘굶은 맛있다.’가 굶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 ‘굶은 맛있다’가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과, ‘자선은 옳다’가 찬성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상충되는 지점이 없지. 양립할 수 있는 주장이야.

다답문제 11

X 동일한 건 아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을 기초로 조금 더 주장을 ‘추가한 것이다.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 정서를 표출하는 문장이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과,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어.

역어 읽기 도덕 실재론 vs 정서주의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둑질은 옳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SET 2

아버지의 땅 (25.06)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부정적 기억(응고) → 기억의 재편·회복(재응고화)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③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타이리**라. **①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다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어머니

아버지의 죄 시인

나

아버지의 죄로 인한 충격과 우울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죄악감과 불길함 →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녹녹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죄악감과 불길함 →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부대원/나/노인

훈련 중 발견한 유해 수습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어질 듯 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노인

유해 수습 작업

나

소름 끼침, 무서움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②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얼드러 있었다. 사위는 온통 **젓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노인

유해 수습 작업

나

어머니의 환영을 봄, 현기증을 느낌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어머니의 환영을 봄

그때였다. 꿈속에서 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④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어머니의 뒤를 따라오는 아버지의 환영까지 봄
아버지	'나'를 잉태한 어머니를 두고 떠남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짙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어머니의 뒤를 따라오는 아버지의 환영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환영만 남음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쓴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흠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암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부대원, 노인	유해 수습 후 추모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총을 맞고 쓰러지는 아버지의 환영을 봄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쭈부쟁이와 영경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디딤문제¹²

읽대목에서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의 어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나'의 심리는 무엇일까? 또, 이를 <보기>와 연관지어 보라.

디딤문제¹³

'나'가 '아버지'에 대해 위와 같이 느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문 내의 논리로 생각해 보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아버지에 대한 연민

주제 (전반적 상황·심리)

나	죄를 지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 → 아버지에 대한 연민
노인 / 부대원	전쟁의 희생자들을 향한 위로와 연민

디딤문제¹²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이는 <보기>에서 말한 '기억 재응고화'에 가깝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재구성되어가는 과정(공포, 증오 → 연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디딤문제¹³

유해를 수습하며, 아버지 역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을 떠올렸기 때문.

01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 '나'가 지각하는 내용('나'가 느낀 느낌)을 '나'가 서술하고 있어.

②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 '나'가 지각하는 내용(야산의 풍경, 현기증)을 '나'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야.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같지.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달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 ㉢의 주어는 '그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버지의 환영'이지. ㉢은 '나'가 지각하는 대상인, '아버지의 환영'이 부각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지.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 인용 부호가 없지만, 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어머니의 발화에 해당할 거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캥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총성이 들린 후 고꾸라지고 있는 그 사내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내의 환영을 보는 '나'의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 판단 Point

□ 추론·의심

일단 선지가 훑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보자. 의심되는 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이다. 즉, 서술하는 주체(=나)가 지각하는 식이니, '기본적으로'는 서술의 주체가 곧 지각의 주체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빠르게 ㉡와 ㉤만을 남기고 이 둘을 경쟁시켜야 한다.

02 밑글에서 ㉡와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는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큰 충격을 준 어머니의 말이야.

▶ ㉤는 유해를 수습하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는 추모의 말들이야.

① ㉡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 ㉡로 인해 '나'는 아버지의 환영을 보게 돼. 즉, ㉡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게 되는 계기이지. 초반부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재응고화'라는 이 글의 주제는 심화될 거야.

▶ 따라서 ㉡는 이 글의 주제를 심화시키는 장치이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한 장치가 아니야. 즉, 서사적으로 ㉡는 '발단/전개'에 가깝지.

▶ ㉤는 죽음에 대한 추모야. 이 글의 주제는 '나'에게 '처주'와 '공포'로 여겨지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연민과 추모로 전환한다는 거야. ㉤는 이러한 추모의 감정과 맞닿아 있으므로 주제를 가늠하게 해준다 할 수 있지.

②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 ㉡에 의해 나의 충격이 나타나고, 이에 의해 여러 환영을 보게 돼. 환영들은 서사적 긴장감을 불연함으로, 이야기의 절정을 치닫도록 도움을 주는, 추진시키는 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 ㉤ 때문에 이야기에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야. 즉, '원동력(근본이 되는 힘)'이라고 볼 수 없지. ㉤는 그보다 간접적으로 '추모'라는 감정을 나에게 복돋고, 주제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장치에 해당해.

③ ㉡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에 의해 '나'는 충격을 받아. 이는 '나'의 긴장감(→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라 볼 수 있지. ('긴장감'은 '편안함'의 반대라 생각하면 돼. 편안하지 않다면, 긴장된 거라고 볼 수 있지.)

▶ ㉤는 '나'가 아버지(유령)의 환영을 보다가 제시되는, 현실 세계의 유쾌한 말들이야. 아버지의 환영이 보이는 일은 '나'의 긴장감, 나아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니, 이를 깨고 나온 '현실 세계의 유쾌한 말들'은 긴장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편안함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④ ㉡가 이야기의 **위키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키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 ㉡는 이야기의 시작점인데 위키감이 벌써 해소되면 이상하지.

▶ ㉤는 추모의 말들이야. 환영으로 생긴 위키감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지.

⑤ ㉡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 이 대목에서는 ㉡에 의한 충격이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

▶ ㉤는 이야기의 전모(전체적인 모습)를 드러내지도 않고, 귀결점도 아니야. 그저 전쟁 유해를 수습한 뒤 하는 추모의 말들이지.

◎ 판단 Point

□ 상대적 적절성

모든 선지가 애매할 때는, '이 중에서 그나마' (부)적절한 것을 골라야 한다.

⇒ 실전에서 ㉢의 판단이 잘 나왔다면, 나머지 오답 선지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도 됐을 것이다.

03 ㉓와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㉓는 어머니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야.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건 맥락상 '나'의 '아버지'겠지.
- ▶ ㉔는 아버지가 '죽었다면 피워 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야. 아버지에 대한 나의 연민과 맞닿아있는 소재지.
- ① ㉓는 ㉔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 ㉓는 알아서 돌아오는 것, ㉔는 피워지는 것들이므로 ㉓는 ㉔에 비해 능동적이라 볼 수 있지.
- ▶ 그러나 이러한 능동성이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㉓와 ㉔는 모두 특정 상황을 연상/투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대상일 뿐이니까.
- ② ㉓는 ㉔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 ▶ ㉓는 실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비유를 위해 떠올린 소재야.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될 리가 없지.
- ③ ㉔는 ㉓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 ▶ ㉓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과 맞닿아있어. 따라서 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집약한, 희망적 성격의 소재라 볼 수 있지.
- ▶ ㉔는 아버지가 죽었다면 피워 냈을 것이야.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나'가 아버지의 죽음을 희망한다는 건데. 이 대목에서 '나'가 아버지의 죽음을 희망하지는 않아.
- ④ ㉔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㉓에 투영된 **엄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 ▶ ㉔에서 연상되는 상황은 아버지의 죽음이지. 이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 즉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어. 그럼 ㉓에 투영된 엄원(아버지의 귀환)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지.
- ⑤ ㉓와 ㉔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 ▶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 ▶ 그러나 이 대목의 인물들 중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인물은 없지.

0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건, 기억이 응고되었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해. 앞뒤 호응이 적절하니 넘어가도록 하자.
-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 ▶ '나'는 '아버지'의 환영 때문에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에 빠져. 이는 아버지의 기억이 상처로 남아 심리적 불안감이 비롯됐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지. 앞뒤 호응이 적절하니 넘어가도록 하자.

③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디딤문제 14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 노인의 행위에서 '나'가 어머니의 행위를 떠올려 제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환영에 해당할 뿐이야. 지문에서 '나'를 위해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행한 타인의 노력은 나타나지 않아.

◎ 판단 Point

□ 원인-의도

지문에 따르면 A를 한 원인-의도가 B인데, 선지에서는 A를 한 원인-의도가 C라고 잘못 짚는 경우가 있다.

-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 ▶ 종량 이전에 '아버지'의 환영은 음습한 분위기였어. 하지만 어머니의 형상과 어우러진 '사내의 형상'이 어우러진 이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걱정/생각을 하기 시작해. 이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라 볼 수 있지. 아버지는 원래 불안감, 공포심의 대상이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점차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걱정으로 나아가며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 및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지.
-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 ▶ ㉔와 같은 이야기야.

디딤문제 14

전쟁의 폭력성과 대비되어, 인간을 연민하고 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노인'은 유해를 무시하지 않고 정성껏 수습해주고, '어머니'는 집 나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기다린다.

1문단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 뭘 소리지?

▶ <정립-반정립-종합>이 변증법의 구조라는 것 같은데, 뭘 말인지 이해는 잘 안 가. 일단 밑줄을 쳐두고 전진해보자.

◎ **특해 Point**

▪ 이해·납득X ⇒ 표시·메모

실전에서 이해/납득이 안 가는 정보는 어쩔 수 없다.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여 표시/메모를 남겨놓고 선지 판단 단계에서 참고하도록 하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 변증법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철학이랑 연관이 있나봐. 그럼 이제 헤겔이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나오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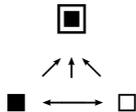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디딤문제 15

위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그려보아라.

▶ 뭘 소리야?

▶ 세 범주가 병렬된 게 아니고, 대립되는 두 범주가 조화롭게 통일과 수렴적 상황을 해나가는 거래. 쉽게 말해, '조화'를 하여 '레벨업'시키는 거구나. 약간 다음과 같은 느낌인 건가?



▶ 조금 더 붙여 읽어보면, 여기서 대립되는 두 범주는 '정립'과 '반정립'일 것이고, 수렴적으로 상향된 것이 '종합'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도 있겠어.

◎ **특해 Point**

▪ 형태·구조 ⇒ 이미지화

글을 단순히 글자들의 나열로 보면 안 된다. 글을 어떤 영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자.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 이게 뭘 말일까?

▶ 논증의 방식도 변증법이고, 존재의 방식도 변증법이라.

디딤문제 15

위 참고

▶ 무슨 말인지 역시 잘 이해는 안 가. 일단 의미는 파악해두었으니 밑줄을 쳐두자.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 뭘 말이지? '이념'의 내적 구조, 외적 구조(=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원리를 밝히는 논증 모두 변증법적이라는 거구나.

▶ 왜 그런 걸까? 잘 모르겠어. 역시 일단은 밑줄을 쳐둬야 할 것 같아.

▶ 직전 문장과 연결해서 이해해볼 수도 있겠어. '즉'이라는 접속어를 통해 이 문장은 직전 문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직전 문장에서는 대상의 '존재 방식'과 '논증 방식'이 모두 변증법적이라 했지. 이 문장에서도 이념의 '존재 방식'(현실로 드러나는 방법)과 '논증 방식' 모두 변증법적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을 한 거지.

▶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어쨌든, 결국 '이 모든 건 변증법이구나~ 세부적인 건 잘 이해가 안 가니 밑줄 쳐두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할 거야.

2문단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 왜 헤겔은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다뤘을까? 헤겔은 모든 대상의 '존재 방식'과 '논증 방식'이 모두 변증법이라고 보았잖아. 미학 역시도 그 존재 및 논증 방식을 역시 변증법적으로 살피려 했을 거야.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디딤문제 16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정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절대정신'에는 예술, 종교, 철학이 있다.

▶ 포함관계니까 표시나 메모를 살짝 해두자.

◎ **특해 Point**

▪ 포함 관계

'동물'이라는 상위 개념에 '인간'과 '개'라는 하위 개념이 포함된다. '개'라는 상위 개념에 '진돗개'와 '푸들'이라는 하위 개념이 포함된다. 이때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특성을 이어받게 된다. 가령, '푸들'은 '개'의 특성을 이어받게 된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디딤문제 17

'예술, 종교, 철학'과 '절대적 진리'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라.

디딤문제 16

포함관계

디딤문제 17

2번 문제의 ㉠해설 참고

- ▶ '절대정신'은 왜 이름이 '절대정신'이지?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정신'이니까 그런가봐.
- ▶ 근데 그러면 '예술, 종교, 철학'을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 정신이라고 본다는 거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 ▶ 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에서 차이가 날까?
- ▶ 아까 예술·종교·철학은 모두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절대정신이라 했으니, '동일한 내용(인식 대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
- ▶ 인식 형식에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명해주겠지?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 표상 · 사유이다.

- ▶ 뭐 소리지? 예술은 '직관'으로 인식하고, 종교는 '표상'으로 인식하고, 철학은 '사유'로 인식한다는 거네.
- ▶ 그런데 왜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일까?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주는 듯하니 읽어보자.

◎ **특해 Point**

- 모든 문장에 '왜?'를 붙인다.
한 문장도 허투루 읽지 않아야 한다. 모든 문장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 납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 ▶ 직관과 표상, 사유의 의미를 설정해주고 있어. 각각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 형식들이 각각 예술, 종교, 철학에 '왜' 대응될 수 있는지 납득해보자.
- ▶ '직관'이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라면, 예술이 '직관'인 이유가 납득돼. 예술은 물질적 대상(영화, 음악)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등의 감각으로 지각하는 거잖아.
- ▶ '표상'이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라면, 종교가 '표상'인 이유가 납득돼. 종교는 결국 '신', 이를테면 하나님 같은 존재를 믿는 것인데, 이는 물질과 상관없이 마음 속에서 '신'을 떠올리는 거잖아.
- ▶ 사유 역시 마찬가지야. 철학은 지금 이 지문처럼 어떤 대상을 '개념화'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사유'라는 걸 알 수 있어.

◎ **특해 Point**

- 최대한 부연을 붙여 납득한다.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부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납득된 정보는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 ▶ 당연한 얘기야. 이전 문장들에서 말한 대로,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이고,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이 되겠지.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 ▶ 이게 뭐 소리야? '직관'과 '표상'이 모인(종합)된 것이 '사유'이고, '예술'과 '종교'가 모인 것이 '철학'이라는 거네. 그럼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겠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 ▶ 왜 직관과 예술은 '외면성', '객관성'을 가진다는 걸까? 앞에서 예술(직관)은 물질적 대상(=외부의 대상=객관적 대상)을 감각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 '외면성', '객관성'과 대응될 거야.
- ▶ 왜 표상과 종교는 '내면성', '주관성'을 가진다는 걸까? 위와 반대일 거야. 종교(표상)은 내면의 심상(=내면의 대상=주관적 대상)을 떠올리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 '내면성', '주관성'과 대응될 거야.

◎ **특해 Point**

- 대응되는 짝끼리 연결하라.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어도, 같은 흐름 속에서 대응되는 짝끼리는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끼리 패러프레이징(유사한 의미, 다른 표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3문단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 ▶ 형식의 차이가 어떤 인식의 차이를 만들까?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 당연해. 원래 진리라는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잖아.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 ▶ 그래 그 단계적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냐고? 1등급, 2등급 이런 게 있는 거야?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 ▶ 예술이 가장 초짜, 종교가 그 다음, 철학이 완숙이라는 거구나.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 이게 뭐 소리지? 그러니까 완전한 절대정신은 철학뿐이고, 예술은 구시대의, 덜 떨어지는 절대정신이라는 거네.

1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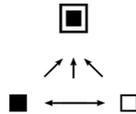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 뭐 소리지? 대립된 두 범주의 '종합'은 하나의 일방적 승리도 아니고, 두 범주의 고유성이 사라져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아, 대립되는 두 범주 각각의 특성을 '조화'하여 '레벨업'을 시켜야 한다는 거구나. 아까 봤던 변증법의 구조를 떠올릴 수 있겠어.



2문단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 '이것이' 뭐지? 변증법의 탁월성은 '종합', 즉 '조화를 통한 레벨업'에 있다는 건가?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타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조타하다: 매끄럽게 다듬다

디딤문제 18

'그 기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뉘앙스가 어째 그럼 헤겔이 변증법의 종합을 제대로 잘 완수했다는 게 아닌 것 같네? 헤겔을 까는 글이려나?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자.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디딤문제 18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종합시키는 것

▶ 헤겔의 변증법적 미학, 즉 예술/종교/철학에서 '종합'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까는 걸까? 아직 잘 모르겠으니 좀 더 읽어보자.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 왜 예술-종교-철학이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고 하는 걸까? 아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모델)은 <정립-반정립-종합>이라고 했지. 이 틀에 맞춰 <예술(직관)-종교(표상)-철학(사유)>을 편성한 것도 변증법 모델의 전형으로 보이긴 하네.

▶ 즉,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예술(직관)과 종교(표상)이 종합되어 철학으로 '레벨업' 한다는 거로 볼 수 있겠어.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디딤문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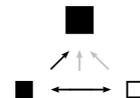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란 무엇인가?

▶ 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까?

▶ 예술(직관)의 객관성(외면성)은 지워지고, 종교(표상)의 주관성(내면성)만이 살아남는다면, 철학(사유)은 이 둘을 '종합'한 게 아닐 거야. '종합'은 두 범주 각각의 특성이 살아있어야 하니까.

▶ 즉, 진정한 의미의 종합이 이뤄지려면, '객관성(외면성)'과 '주관성(내면성)'이 모두 살아서 조화를 이뤄야 할 거야.

▶ 즉, 글쓴이가 생각하는 헤겔의 미학 이론에서 철학은 '예술(□)'의 특성은 지워지고, 종교(■)의 특성만 강해진 거지. 그러니 진정한 종합이라 볼 수 없을 거야.



◎ 독해 Point

▪ 모든 문장에 '왜?'를 붙인다.

한 문장도 허투루 읽지 않아야 한다. 모든 문장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 납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면 안 된다. 앞선 맥락을 토대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장이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디딤문제 19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종합시키는 것

디딤문제 20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란 무엇인가?

- ▶ 그래 예술은 물질적 대상(작품, 음악 등)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였는데, 이러한 특성이 철학(=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사라져 있어.
- ▶ 결국, 철학은 '예술'과 '종교'를 제대로 '종합'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3문단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 ▶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한대. 왜 그럴까?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게 뭐지?
- ▶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주관성(내면성)'과 '객관성(외면성)' 둘 중 어느 것도 사라지면 안 될 거야.
- ▶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된다는 건, 주관성(내면성)'과 '객관성(외면성)' 둘 중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겠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디딤문제 21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 왜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일까?
- ▶ 예술이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일 거야. 즉, 글쓴이는 예술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

◎ 독해 Point

▪ 패러프레이징

필자는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글이 지루해지기 때문이다. 표현이 바뀌어도 그 의미가 같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 ▶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 ▶ 예술 작품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후보임을 증명하기 위함일 거야. 즉, 예술이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지.
- ▶ 객관성이 본질인 예술 작품이 사유(주관성)만을 통해 설명된다면, 예술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계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디딤문제 20

철학

디딤문제 21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함. (즉, 주관성과 객관성을 진정한 의미에서 '종합'해야 함)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 ▶ 글쓴이는 뭐가 아쉬운 걸까?
- ▶ 헤겔이 예술이 '객관성'과 함께 '주관성'을 지닐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종합의 단계에 예술(객관성과 주관성 둘 다 있음)이 아닌 철학(주관성만 있음)을 넣은 걸 아쉽게 생각할 거야.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는 '변증법적 체계(=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가장 낮은 단계)를 얘기했어.

▶ (나)에서는 '변증법적 체계(=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가장 높은 단계의 후보)를 얘기했어.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타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해 평가를 제시하지 않았어.

▶ (나)에서도 특정한 철학적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탁월'하다고만 했어. 변증법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지. 다만, 헤겔이 미학 이론에서 변증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지. (공부법 자체에 대해 비판한 게 아니고, 공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격이지.)

▶ 또한 두 글 모두에서 등장한 미학 이론은 딱 하나, 헤겔의 미학 이론뿐이었어. 이와 설득력을 비교할 대상이 언급되지 않았지.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나)에서는 헤겔의 미학 이론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어. '변증법' 자체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나)는 예술의 장르를 유형화한 글이 아니었어.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가)에서는 변증법의 통시적(=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제시한 적은 없어.

◎ 판단 Point

▪ 논지 전개 방식: 최대한 기억으로 의심

논지 전개 방식 문제는 서치해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 어느정도 독해를 했다면, 최대한 기억 속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심되는 선지를 추리고, 그 선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증하자.

02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셋 모두 인식 내용(대상)은 '절대적 진리(이념)'으로 동일해.

▶ 셋은 각각 직관·표상·사유로 인식 형식이 다르지(상이하지).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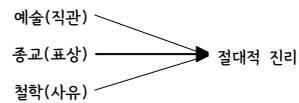
▶ 아까 (가)의 1문단에서 언급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밑줄 찢던 문장이야.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디딤문제 22

선지의 전반부를 바꿔 적절한 선지로 고쳐라.

▶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동일한 하나의 대상, 즉 '절대적 진리'야. 다음과 같은 도식이지.



▶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을 통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주체이지, 인식의 대상(객체)이 아니다!

◎ 판단 Point

▪ 주체와 객체

방향성을 잘 생각하자.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과,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주체와 객체를 뒤섞은 선지를 조심하도록 하자.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역시 아까 밑줄 찢던 정보야. (가)의 1문단으로 돌아가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절대정신의 내용은 절대적 진리였어.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성적이라고 납득했었지.

디딤문제 22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 → 절대적 진리는 ~

03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디딤문제 23**

직관 표상 사유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 ▶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오감과 관련)'해야 해.
 - ▶ 표상은 '내면의 심상'을 떠올려야 해.
 - ▶ 사유는 대상을 '개념'과 '논리'로 파악해야 해.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 별은 '물질적 대상'이고, 바라보는 것은 '감각'이지.
 - ▶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건 '내면의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지.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 모두 '내면의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지.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 그림은 '물질적 대상'이고, 이를 보는 것은 '감각'이지.
 - ▶ 개념에 따라 분석하는 건 '사유'지.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 예술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건 '사유'이지만, 이러한 개념적 사유를 바탕으로 창작을 '기획'하는 건 '물질적 대상'을 '감각'하는 게 아니야. 즉, '직관'을 통하는 게 아니지.
 - ▶ 오히려 사유를 통해 설정한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심상을 떠올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표상'에 가까울 거야.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 또 다른 개념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모두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에 해당하지.

▶ **디딤문제 23**

해설 참고

04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의 글쓴이에게 ㉠은 변증법적 모델이고, ㉡은 외관상 이러한 변증법적 모델에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변증법적 모델과 들어맞지 않아. 그 이유는 '철학'이 앞의 대립되는 두 범주(예술, 종교)의 특성 중 하나(예술의 특성인 '객관성')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 **판단 Point**

■ 선지 보기 전 생각 정리하기

발문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생각을 정리해두고 가자. 선지로 돌격하면 헛갈릴 뿐이다.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 변증법 모델에서 앞의 두 범주는 대립되지.
 - ▶ 예술과 종교 역시 대립되는 두 범주에 해당해.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 변증법 모델에서 '종합'은 앞의 두 범주를 '조화 + 고양(높이 올리다)'시킨 것이라 했어.
 - ▶ (나)의 글쓴이는 ㉡에서 '철학'이 '종교'의 주관성을 강화·완성했다고 했지. 따라서 '철학'은 '종교'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주장한 거라 할 수 있어.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 ㉠에서 첫 번째 범주(정립)의 특성이 강해지는 건 세 번째 범주, 즉 '종합'에서뿐이야. 두 번째 범주(반정립)에서는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사라져있지.
 - ▶ ㉡에서는 예술의 특성(객관성, 외면성)이 종교, 철학에서 아예 사라진다고 했지.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 변증법 모델에서는 대립되는 두 범주(정립-반정립)의 '종합(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했어.
 - ▶ '예술-종교-철학'에서는 대립되는 두 범주(예술-종교)의 '종합(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헤겔의 미학 이론을 지적했지.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 변증법 모델에서는 대립되는 두 범주(정립-반정립)의 '종합(수렴적 상향)'이 이루어진다 했어.
 - ▶ '예술-종교-철학'에서는 대립되는 두 범주(예술-종교)의 '종합(수렴적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헤겔의 미학 이론을 지적했지.

05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 헤겔은 괴테와 실러의 인생 완숙기 문학 작품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했다고 여기고 있어. 이를 지문과 연결하면 이 작품들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을 '재객관화'했다는 거겠지.
- ▶ 즉, 괴테와 실러의 인생 완숙기 문학 작품들은 초기의 작품과 달리,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을 이루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
- ▶ 이에 대해 (나)의 글쓰기는 <거봐 예술이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을 이룰 수 있다니깐?>의 말을 할 거야.
- ▶ 이는 이론에서 '객관성(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직관)'이, 현실에서 '내면성(주관성)'에도 대응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겠지. 즉, '예술'만이 '객관성(외면성)'과 '주관성(객관성)'을 '조화(한쪽의 승리 X, 중화 상태 X)'시킬 수 있다는 거야.

◎ 판단 Point

▪ 지문과 <보기>의 대응-대비

<보기>는 반드시 지문의 내용과 대응되던가, 대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찾아줘야 한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 글쓰기는 이론의 세 번째 단계(종합)가 대립적 범주(객관성-주관성)들을 중화(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상태)한 게 아니라, 한쪽(주관성)의 승리로 남았다 생각해.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 위에서 생각한 그대로야.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이론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해. 그리고 글쓰기는 현실에서 예술이 '종합' 단계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 글쓰기는 예술이 현실에서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를 지닐 수 있다 생각해. 따라서 현실에서 객관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지.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 글쓰기는 예술이 현실에서 진리의 인식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다 생각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지.

SET 4

날개 또는 수갑 (25.09)

<보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중도적 주인공	집단의 논리 비판적·주체적 인식 + 소극적 행동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동림산업	제복 착용제 시행
일부 사원	제복 착용에 불만을 품음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협박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민도식	제복 착용에 대해 협박해진 분위기를 가라앉힘 제복 착용 문제가 이미 끝난 일이라 여김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민도식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제복 착용에 관한 논쟁을 마무리 지음
저 사람	민도식 일행을 보고 비웃음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아름다운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사내	민도식 일행을 보고 비웃음
장상태	사내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름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을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잠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디딤문제 24
 ‘미스 윤’은 ‘장상태’가 요구하는 바를 ‘권 씨’에게 전한다. (O X)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사내 → 권 씨	민도식 일행이 하는 동림산업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음 비교적 예의 바른 태도로 사과함
장상태	권 씨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자 함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민도식	권 씨가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을 느낌 비굴함과 적대감이 아닌, 자신감을 가진 상대라 느낌

디딤문제 24
 X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민도식	자신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될 것에 화 + 외로움 + 어쩔 줄 모름

주제 (전반적 상황·심리)	
민도식	집단의 획일화 문제에 대처하는 소시민적 태도 (비판적 인식 + 소극적 행동)
권 씨	정작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기적/소시민적 세태에 대한 비판

01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민도식'이 '권 씨'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민도식'은 '권 씨'를 잡역부임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민도식'의 생각이 주된 부분이지, 행위가 그려 내지는 부분이 아니다.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과거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도, 인식의 변화도 드러나지 않아.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는 부분이다.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권 씨'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주고 있어. 즉, 3인칭 서술자(세계 바깥의 존재)의 '초점화(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거나, 특정 인물의 관점에 집중하여 서술하는 것)'에 해당해.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려면 여러 경험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해. 그런데 여기서는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경험만이 제시되지.

02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민도식은 이제 절반은 입을 격이고(=제복 착용제가 실시되었고) 나머지 절반을 입을지 말지(=제복 착용제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 ①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미 끝난 일이야'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이때까지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한 말일 거야.
 - ▶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제복 착용제를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
 - ② '협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제복 착용제를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약해진 분위기'는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났음을 짐작하게 하지.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디딤문제 28**
 '권 씨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 '권 씨'는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정말 하찮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지문에 쓰인 내용 그대로야.
 - ⑤ '검정 곤색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 모두가 제복을 입고 있었어. 이들은 제복 착용제를 수용한 거니 ㉠을 마저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디딤문제 28

'고작 제복 착용 문제 가지고 뭐 저리 소란인 거지?'라는 궁금중 및 흥미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 ▶ 권 씨는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어. 이에 장상태가 불만을 가지며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돼.
-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 ▶ 장상태는 큰 소리로 미스 윤에게 권 씨를 데려오라 말했다.
-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 ▶ 상황상, 민도식에게 회사를 가라며 재촉할 수 있는 인물은 아내뿐이야. 아내는 집을 나서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을 할만한 인물이지.

㉤ 판단 Point

□ 문학은 개연적 해석을 허용한다.
 지문에 쓰인 내용과 이어지는 선에서, 문학은 개연적 해석을 허용한다. 그러나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 아내가 걱정했기 때문에 재촉을 한다는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나 상황 맥락상 충분히 아내는 '걱정'의 심리를 가지고, '재촉'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문학은 개연적 해석을 허용한다.

- ④ ㉣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움을 느꼈다.

- ▶ 민도식은 전체 사원들이 제복을 입고 도열한 모습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지.

⑤ ㉣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 ▶ 실제로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민도식이 자신이 지각하고 사복차림인 것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야.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에 비판적·주체적으로 인식해. 이는 경영자의 숨은 의도(=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것)를 파악하며 발언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나,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 민도식은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논쟁을 끝내려 해.
 - ▶ 민도식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야.
 - ▶ 민도식이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권 씨’가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 여겼기 때문이야.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하지만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 회사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일 거야.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공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는 것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자신을 ‘공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겠지.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 ▶ 만약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정을 했다면, 사복 차림으로 당당히 들어가 ‘제복 착용 반대요!!’라고 했을 거야.
 - ▶ 만약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는 결정을 했다면, 당장 제복으로 갈아입고 체육 대회에 참여했겠지.

◎ 판단 Point

□ 문학 <보기> 문제 풀이 방법

문학의 <보기> 문제의 선지는 대부분 ‘A라는 것에서, B라는 의미를 알 수 있군’이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다음 3가지이다.

1. 지문의 핵심 상황/심리와 B가 연결되는가?
2. A와 B가 서로 연관되는가?
3. A가 지문에 있는가?

보통 1과 2를 동시에 고려하며,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대부분의 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문단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 왜 정치 조직은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야.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 ▶ 그치. 여러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듯 보이나, 사실은 한두 명의 권력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디딤문제 29

지칭어를 살려 읽어 과두제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면?

- ▶ 그럼 '과두제'란, 명목상 민주적 운영 체제 + 사실상 독점 체제를 보이는 거네.

◎ 독해 Point

- 지칭 표현 ⇒ 연결

'이러한', '이와 같은', '이것은' 등의 지칭 표현이 나오면 의식적으로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을 확인하여 연결해주자.

- 개념 설정 ⇒ 재구성

특정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거나 특성 등이 설정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나의 말'로 바꾸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 조직에서만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 ▶ 기업 경영에서도 '명목상'으로는 민주 체제이지만 '사실상' 독점 체제, 즉 '과두제'가 나타난다는 거네.

디딤문제 29

위 참고 ('독점 체제'는 과두제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개념의 의미를 대강으로 뭉개서 재구성하면 안 된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디딤문제 30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의 차이점은?

- ▶ 왜 이러한 경영을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를까? 말 그대로,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 경영을 하기 때문일 거야. 의사 결정권이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과두제와는 다르게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겠지.

◎ 독해 Point

- 분류 ⇒ 구분

비슷한 대상이 제시되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두 대상의 차이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 ▶ 당연한 내용이야. 모두가 경영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전문적인 능력과 권한이 있다는 말일 테니까.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디딤문제 31

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갈까?

- ▶ 기업이 커지면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로 나아간대. 왜 그럴까? 사람이 너무 많아졌는데도(=규모가 커지면) 모두가 능력과 권한을 가질 경우, 선택에 있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지. 그러니 사공 자체를 줄이고, 소수의 사공에게 선택권을 몰아주는 걸 거야.

- ▶ 그럼 그 소수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수는 명령을 이행하는 식의 '수직적 경영'이 이뤄질 것이고, 기업은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 독해 Point

- '왜?'를 통해 납득하기

언뜻 보면 외워야 할 것 같이 생긴 정보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상 당연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

- ⇒ 왜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 '수직적 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디딤문제 30

위 참고

디딤문제 31

위 참고

3문단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 과두제적 경영은 뭘까? 소수의 '독점적 경영'이라고 보면 될 거야. 즉, 지들끼리만 모여서,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거지.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 ▶ 왜 이러한 장점을 가질까? 전문성을 갖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니, 경영권도 안정적일 것이고(→소수니까, 의견 충돌이 덜함), 이에 따라 장기적 전략 및 투자, 기술 개발 등에도 유리하겠지(→역시 소수니까, 의견 충돌이 덜함). 당연해.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디딤돌 32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딤돌 33

직전 문장과 이 문장을 요약하면?

- ▶ 왜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이 효율적 대처에 도움을 줄까?
- ▶ 과두제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사실상 소수의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거야. 즉, (기업의 선택 = 경영진의 선택)인 거지. 일체성이 높다 할 수 있어.
- ▶ 이렇게 일체성이 높을 때,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 해보자. 이 상황에 기업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거야. 민주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소수의 경영진끼리만 서로 의논하여 결정, '알잘딱깔센'으로 일을 빠르게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디딤돌 32

경영진이 곧 기업 그 자체다. 즉, 소수의 경영진이 원하는 대로 기업이 나아간다.

디딤돌 33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두제적 경영을 하는 이유)

4문단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 ▶ 왜 주주가 많으면 경영진의 힘이 커질까? 당연해. 주주가 많아질수록 주주의 권한은 1/n이 될 테니까 줄어들겠지. 반면 경영진은 숫자가 늘지 않으므로, 이들이 가진 힘은 주주들에 비해 커질 거야.

◎ 주주

기업의 주주(株主, shareholder)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기업의 재정적 이익과 의사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며, 주식 시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 ▶ 왜 이런 폐해가 나타날까?
- ▶ 소수의 경영진이 막강해진 권력, 정보력을 행사하여 사익만 마음대로 추구하는 상황이 되면, 기업의 발전이 저해되어 다수의 주주는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그렇겠지.
- ▶ 모든 독점 체제의 폐해기도 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소수의 막강한 권력자들의 사익 추구를 막을 방안이 별로 없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디딤돌 34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여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쓰면? (단, 이 사례가 왜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납득하고 쓰도록 한다.)

- ▶ 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날까? 역시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의 안위보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지. 즉,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정보와 관련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럼 주주와 기업은 타격을 입고, 소수의 경영진만 룰루랄라하겠지.

디딤돌 34

경영 성과 부풀려 투자 유치하기 & 기업 정보를 은폐/조작하여 발표하기 (즉, 사기 치기) → 주주들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됨.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디딤문제 35

'이러한 문제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토대로, 위에서 말하는 '방안'의 내용을 예측해보면?

- ▶ 왜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까?
- ▶ 경영진에게 '경영 잘해서 기업을 발전시켜라. 그럼 너한테 경제적 보상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놓는다면,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느라 기업에 타격을 주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디딤문제 36

구체적 수치나 사례를 들어 '스톡옵션'이 왜 '방안'이 되는지 설명하라.

- ▶ 스톡옵션이 뭐냐? 주식을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왜 '소수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인해 다수 주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걸까? 한 번 생각해보자.
- ▶ 예를 들어, X사의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경영자에게 줬다 해보자. 근데 만약 기업이 잘 돼서 시장에서 X사의 주식 가격이 10000원이 됐다면? 경영자는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여 100원에 살 수 있게 돼. 즉, 경영자는 1주당 9900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 ▶ 이처럼,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영진은 회사가 더 잘 될수록 더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에, 경영진이 결국 기업이 잘 나아가는 방향(=다수 주주가 좋아하는 상황)으로 기업을 운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어. 결국, '스톡옵션'은 '소수 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인해 다수 주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거지.
- ▶ 나아가, 우리는 이제 명칭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 '스톡옵션'은 왜 '스톡(주식)/옵션(선택권)'일까?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지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니까.

◎ 독해 Point

- 추상적 정보 ⇒ 구체적 수치/사례 들기
추상적인 정보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떠올려 이해해보자.
⇒ 여기서 '스톡옵션의 권리'가 왜 '경제적 동기'가 되는지에 대해 생각했는지를 묻는 문항이 바로 3번 문항이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 ▶ 주식 평가 보상권이 뭐냐? 기업의 주식 가치를 목표치 이상으로 올려야

경영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구나. 즉, '주식'을 '평가'하여 일정 가치 이상이면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보면 되겠어.

- ▶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원인데, 미래에 주가가 1000원이 될 만큼 기업이 발전하면 경영진한테 100억을 주기로 약속하는 거야. 경영진은 100억을 얻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기업을 발전시키려 하겠지.
- ▶ 이 역시도 경영진에게 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유인이 되므로, '사익 추구로 인해 다수 주주가 피해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거야.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지. 둘 다 기업이 잘 될 때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디딤문제 35

위 참고

디딤문제 36

위 참고

6문단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디딤문제 37

이 문장을 통해 5문단에서 나타난 방안들은 모두 어떠한 '특성'의 방안들임을 반대 추론할 수 있다. 이 '특성'은?

- ▶ 그럼 위의 것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적 제도'(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였다면, 이제 '공적 제도'가 나오려나 보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자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 ▶ '경영 공시 제도'가 뭐고 이게 왜 '방안'이 될 수 있을까?
- ▶ 일단 경영 공시 제도는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이라는 제도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경영진'만' 알고 있는 '독점적 정보'가 줄어들 거야. 즉, 경영진들이 사기쳐서 투자 유치하는 걸 방지하겠지. 그럼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주주와 기업이 피해보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거야.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외 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 '사외 이사(회사 바깥에 있는 이사) 제도'는 뭘까? 왜 '방안'이 될까?
- ▶ 사외 이사 제도는 사외 이사로 하여금 경영진의 독점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구나. 소수의 경영진이 지들끼리만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경영할 수 없게 만들 거야. (회사 바깥 사람이 계속 감시하고 있으면 회사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못할 테니까.) 그럼 당연히 경영진이 사익 추구하느라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지.

디딤문제 37

위 참고

0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 ▶ 과두제적 경영이 뭔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장점(효율적인 경영, 위기 상황 대처)과 단점(경영진의 사익 추구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방지책(사적 제도, 공적 제도)을 소개했지.

②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다.

디딤문제 38

틀린 부분에 X쳐라.

- ▶ 정치 조직과 기업 경영 유사한 원리(민주적 운영 체제 or 권력 독점 체제)를 분석하고는 있지만,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지는 않아.

③ 대립하는 유형을 들어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 ▶ 대립하는 유형(공동체적 경영vs과두제적 경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론적 근거의 변천은 제시되지 않았어.

④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검토한다.

- ▶ 가설을 세운 적은 없어.

⑤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한다.

- ▶ 문제 상황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반대되는) 입장이 나타나지 않았어.

디딤문제 38

위 참고

02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과두제는 소수의 권력 독점 체제였지.
- ①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 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 ▶ 수직적 구조(소수의 경영진이 아랫사람을 시키는 구조)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과두제였지.
- ②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 ▶ 과두제는 소수의 경영진이 지들끼리만 모여 권한과 정보를 독점한다 했어. 이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소수니까 잘 안 싸움)가 가능하지.
- ③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 과두제는 경영권이 안정되어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이 유리하다고 했어.
- ④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경영진이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칠 수 있다 했지.

⑤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디딤문제 39

경영진과 다수 주주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 ▶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건, 둘이 원하는 바가 같다는 거야. 이는 경영진이 주주들과 같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상황이지. 이러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은 낮아질 거야.

디딤문제 39

경영진이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들에게 사기를 치지 않는 상황. 경영진이 원하는 것 = 주주가 원하는 것 = 기업이 잘 되는 것인 상황

03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 ▶ 스톡옵션의 권리자는 매수 여부도, 매수 시점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 주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사지 않으면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지.

◎ 판단 Point

▪ 선제적 추론

지문에서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읽은 사람은, 선지에서 별다른 추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평가원의 선지는 대부분, 지문에서 했어야 할 생각을 했는가를 묻기 때문이다.

②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 ▶ 스톡옵션도, 주식 평가 보상권도, 모두 미래의 주식 가치가 높아져야 경영자가 이득을 보게 돼.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동기'가 되는 거지.

③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 ▶ 경영 공시는 경영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제도야. 당연히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겠지.

④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 ▶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거니, 소수 경영진의 독단성과 폐쇄성을 낮추고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했어.

⑤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 ▶ 경영진의 정보 독점을 완화해주는 제도들이었어.

◎ 독해 Point

▪ 추상적 정보 ⇒ 구체적 수치/사례 들기

추상적인 정보를 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떠올려 이해해보자.

- ⇒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해·납득해보려는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문제이다. '스톡옵션'이나 '주식 평가 보상권'이 대체 왜 과두제적 경영의 보완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왔어야 한다.

04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 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디답문제 40

X사의 현재 경영 체제가 지문의 '과두제적 경영'에 비해 갖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라.

- ▶ X사는 원래 주주 모두가 경영진이 되는 '공동체적 경영'을 했었어.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며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구나. 그러나 이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결권도 전체 주주가 공유하니 지문에서의 '과두제적 경영'과는 다른 부분이 있네.

◎ 독해 Point

▪ 지문과 <보기>의 대응 대비

<보기>는 반드시 지문의 내용과 대응되던가, 대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찾아줘야 한다.

- ⇒ '효율성 증진'과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 구성'은 '과두제적 경영'과 연결되는 정보이다. 그렇다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은 무엇과 연결되는 정보인가? '공동체적 경영'과 연결되는 정보일 것이다. 즉,

▪ 날려 읽기 금지!

결국 국어는 읽기 싸움이다. 글자를 제대로 읽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날려 읽으면, 점수도 같이 날아간다.

- ⇒ 많은 학생들이 <보기>의 첫 번째 ~ 두 번째 문장만 읽고 그 뒤는 날려 읽어 X사가 지문에서 말한 '과두제적 경영'일 거라 속단하고 풀었다. 그러나 정답률도 낮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은 것이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A :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 A는 경영진을 변동시키지 말고, 결정권도 경영진에게 집중시키자 하니, '과두제적 경영'으로 가자는 거구나.

B :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디답문제 40

X사는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는 체제이다.
→ 장점: 정보 및 권력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가 덜함
→ 단점: 안정적/장기적 투자&전략 수립에 불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불리
즉, <보기>의 과두제는 지문에서 말한 '과두제'가 아닌, '부분적 과두제'라 할 수 있다.

디답문제 41

B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예전처럼'의 의미를 살려 읽어라)

①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 ▶ X사는 현재 '부분적 과두제'로, 주주들이 돌아가며 경영진이 되고 있으니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는 보이지 않을 거야.

◎ 판단 Point

▪ 4vs1

하나의 선지가 명백히 정답임(or4개의 명백한 오답)이 확인되면 그 즉시 다른 선지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 실전에서 이 선지를 확인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X사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과두제'인 것은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두제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에 섣뜻 동의하기 힘들었을 수 있다. 만약 그랬다면 나머지 선지들을 찬찬히 해결하며 4vs1로 ①을 찍어내야 했을 것이다.

②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교체되는 구조야.

③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 A는 현행 유지가 아닌 '완전 과두제'로 체제를 변화시키기를 주장하고 있어.

④ B는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 B는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공동체적 경영)의 전환을 하자는 입장이다. 즉,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해보자는 거지.

⑤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

- ▶ A가 현재의 경영 체제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오히려 현재의 체제가 최근의 경쟁에 대응하기 힘든 구조라고 전제할 상태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야.

- ▶ 한편, B 역시도 현재 X사가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어쨌든 X사는 현재 정보나 권한의 독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과두제적 경영이 아니니까.

디답문제 41

X사의 '현재'는 '부분적 과두제'이고 '예전'은 '공동체적 경영'이다. X사는 '공동체적 경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즉, 주주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니, 모든 주주가 같이 경영진이 돼도 괜찮다는 것이다.

SET 6

우부가/타능설 (25.06)

<보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디딤문제 42

<보기>를 토대로 지문의 내용을 최대한 예측해보면?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 (가) 규범 이탈+세속적 욕망+요행 → 경계
- (나) 주체적 태도+성실함 → 권면

(가)

저 건너 ㉠공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공생원 금수저 → 팔자 원망, 친구 대접X

주제넘게 아는 체로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예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을 적 갈 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흠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공생원 음양술수 현혹됨, 처자식을 흠어 놓음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뜬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침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걸태 하다 혼금(閹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흥정 구문 먹기 ㉤핀잔 듣고 자빠지고

디딤문제 42

위 참고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공생원

요행 → 여기저기서 봉변 당함

디딤문제 43

윗대목은 공생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볼까 ㉠갑언이설 띄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뚜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짜리 되었구나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가대(家垜):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공생원

요행 → 가족 몰락, 여기저기서 손가락질 당함

디딤문제 43

공생원이 요행을 부리다가 여러 곳에서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댈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짝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디딤돌 44

<보기>와 연관 지어 볼 때, ‘부지런한 농부’는 어떠한 면모를 보이는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부지런한 농부

가뭄 → 주체적이고 성실한 태도

㉞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게으른 농부

가뭄 → 운명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나는 일찍이 가을걷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뻑뻑하게 달려 있었다.

디딤돌 45

황폐한 절반과 뻑뻑한 절반은 각각 어디에 대응되었는가?

◎ 독해 Point

▪ 예상하며 읽기

전 맥락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먼저 예상하고 가는 게 좋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디딤돌 44

위 참고

디딤돌 45

밭의 황폐한 절반은 ‘게으른 농부’의 밭일 거고, 곡식이 잘 가꾸어진 절반은 ‘부지런한 농부’의 밭일 것.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디딤돌 46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가?’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뻑뻑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매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게으른 농부

가을걷이(수확철) → 하늘만 바라봄, 굶주림

부지런한 농부

가을걷이(수확철) → 술 취해 잠들, 배부름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농부 =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㉟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선비들

3수 실패 → 낙심, 운명론적 태도

화자

선비들 = 게으른 농부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디딤돌 46

비가 오기를 바라는 운명론적 태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우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우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우이 크다.

디딤문제 47

글쓴이는 학문과 농사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O X)

이로우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글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

디딤문제 48

읽대목에서 글쓴이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O X)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학문의 이로우) 농사의 이로우 게으른 선비들 → 성실하길 바라

◎ **독해 Point**

▪ **핵심 의도 파악하기**

모든 인물은 '의도성'을 갖고 말하며 행동한다. 핵심이 되는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 작가의 의도는 '선비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번 문항을 풀어내야 한다.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딤문제 49

선지의 후반부를 봤을 때, 가장 정답으로 의심되는 선지와 그 이유는?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가)는 공생원이 요행을 바라면서 행했던 행동과 이에 따라 당한 분변을 열거(여러가지 것을 늘어놓음)하며 '요행을 바라는 삶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나)는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를 대조하며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해.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공생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었으니까.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나)는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특정 교훈을 주려는 글이야. 기대감을 높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글이지.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두 글의 주제는 모두 향토적 분위기와 직결되지 않아.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두 글의 주제는 모두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직결되지 않아.

◎ **판단 Point**

□ **주제와의 관련성(필자의 의도성)**

필자가 해당 글을 쓴 의도, 즉 핵심 주제(상황·심리)를 생각해보자. 이것과 전혀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선지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 선지의 후반부를 보자. ①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주제를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된 주제들이 전부 (가)와 (나)의 주제들과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각 선지 해설을 참고하자) 따라서 우리는 ①을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디딤문제 49

판단 POINT 참고

디딤문제 47

O

디딤문제 48

X 둘 다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0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딤문제 50

이 문항은 ㉠~㉡에 상관없이, 정답의 후보를 추릴 수 있다. 그 이유는?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공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 ㉠은 공생원이 현혹된(=관심을 보이는) 대상이야. 공생원은 이장과 이사도 자주 했다 하니,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요행)을 바랬음을 추측할 수 있어.
- ② ㉡은 재물을 모은 공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대상이다.**
- ▶ 공생원은 누군가와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물이 아니야. 오히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지.

㉡ 판단 Point

□ 4vs1

국어는 다섯 선지에 대한 완벽한 해설이 아니라, 네 개의 오답에 대한 확신 또는 한 개의 정답에 대한 확신을 요구한다.

⇒ ㉡를 제외한 선지들은 꽤나 깊은 해석을 묻고 있어서, 실전에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는 주제의식과 완전히 상충된다. 4vs1을 바탕으로 ㉡를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공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 애초에 공생원은 요행을 통해 재물을 벌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지. 이때, '돈재물을 경영하'던 공생원이 '재상가에 청질하'는 건 선지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돼.
- ④ ㉣은 집이나 땅을 증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공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 ▶ 공생원은 가대를 흥정하다가(=집이나 땅을 증개하여 이문을 취하려 함) 핀잔(=부정적 반응)을 듣고 있어.
-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공생원이 부자를 찌는 수단이다.
- ▶ '부자나 후려볼까' 생각하는 공생원을 확인할 수 있어.

디딤문제 50

㉡는 주제랑 완전히 상충된다. 이유는 위 참고.

0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공생원', ㉣은 '게으른 농부', ㉤은 '선비들'이야. <보기>에서 말한, '책임감 없이 요행만을 바라는 삶', '주체적이지 못한 운명론적 태도'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네.

㉢ 판단 Point

□ 선지 보기 전 생각 정리

발문에서 특정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정리하고 가자. 선지를 보고 그때 생각을 시작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 위와 같이 생각했다면 ㉤는 손을 들고 있다.

-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은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 ▶ 공생원이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는 건 맞지만,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건 '부지런한 농부'야.

㉢ 특해 Point

■ 분류 ⇒ 구분

두 가지 대상이 분류될 때는 반드시 둘의 차이점을 파악해서 구분해줘야 한다.

■ 헷갈리는 정보 ⇒ 출제 POINT

헷갈릴만한 정보는 선제적으로 표시를 해두는 등 확보해두자. 평가원도 헷갈릴 걸 알고 선지로 낼 것이다.

⇒ '부지런한 농부'가 술에 취해 누워있고, '게으른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정보는 애초에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 분류되는 정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지런한 농부'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건 꽤나 헷갈릴 만한 정보다. 이 역시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은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 공생원은 부모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금수저 팔자를 원망했지.
- ③ ㉢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은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 ▶ ㉢가 수치를 당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아.
- ④ ㉣은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은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 ▶ ㉣은 가뭄에 김을 매는 다른 농부들에게 조롱을 하고 있어. 받는 게 아니지.
- ⑤ ㉣은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은 모두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인물들이야. 즉, 둘 모두 '성실히 노력을 하여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인물들이지.

0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말을 인용하며 흥년에 대응하는 상반된 태도(운명론적 태도 vs 주체적 태도)를 드러냈다.

◎ 판단 Point

□ 4vs1

국어는 다섯 선지에 대한 완벽한 해설이 아니라, 네 개의 오답에 대한 확신 또는 한 개의 정답에 대한 확신을 요구한다.

□ 주제의와 관련성(필자의 의도성)

필자가 해당 글을 쓴 의도, 즉 핵심 주제(상황·심리)를 생각해보자. 이것과 전혀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선지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 실전에서는 처음부터 특정 표현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면밀히 조사하면 손해다. 결국 평가원의 문항은 주제를 묻는다.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지를 훑어보며 튀겨 나오는 선지(②)를 먼저 조져야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라 낱 알아야 한다.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 글쓴이의 주장은 '선비들이 부지런히 공부해라'는 거야. 근데 이 주장을 글쓴이가 누군가에게 직접 내세운 게 아니고, 글로 썼을 뿐이야.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박이 제시될 리가 없지.
 ▶ 즉, 이 글은 글쓴이가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글이지, 누군가와 의 논쟁을 다루기 위해 쓴 글이 아니야.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어떤 농부가 술에 취해 잠 들어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노인에게 물었고, 노인은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라고 하며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제시했네.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 글쓴이의 경험(농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n수 중(...)인 '선비'를 얘기하며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네.

0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 '공것'과 '뜯재물'은 모두 공생원이 바라는 것들이야. 공생원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가지니, 이처럼 진술할 수 있지.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땀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은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문제 상황)에 해당하지. 농부들은 이 상황에 당면해있어.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가)의 공생원은 이익을 위해 규범을 벗어나려는 태도를 지닌 인물이야. 그런 공생원은 '공납'을 쓰려고 하니, 이러한 태도와 연결될 수 있지. (나)의 게으른 농부는 어차피 가뭄이라 일해봤자 결과가 안 좋을 거라 예단하고 있어. 이는 운명론적 태도라고 볼 수 있지.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가)의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공생원이 친구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걸 할 수 있어. 이는 인색한 물욕을 보여주지. (나)에서 '풀 뽑기를 쉬지 않는 것'은 가뭄이라는 한계 상황에서도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어.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공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 (가)에서는 공생원이 무책임한 삶을 살다가 일가와 친구에게 소외당하는 정황이 나타나. 이는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지.
 ▶ (나)에서는 화자가 '큰 일'을 하는 선비들에게 성실히 공부하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어. 이는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지. '게으른 농부'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은 대상일 뿐이니까.

◎ 판단 Point

▪ 분류 ⇒ 구분

두 가지 대상이 분류될 때는 반드시 둘의 차이점을 파악해서 구분해줘야 한다.

⇒ 결국 묻는 건 기본적인. '게으른 농부'는 깨달음을 얻어낸 대상이고, '선비들'은 해당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1문단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통화(돈) 정책이니까, 당연히 경제 안정이 목표겠지.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 금리(=이자율)가 인상되면 대출이 줄고(=신용 공급 축소), 저축은 늘어날 거야.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이고, 물가는 안정되어 경기 과열이 진정되겠지.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 반대로 금리(=이자율)가 인하되면 대출이 늘고, 저축은 줄어들 거야. 즉, 신용 공급이 확대되겠지. 은행이 수중에 돈을 많이 푸니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많아져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활성화될 거야.

2문단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디답문제 51

'미시' 건전성 정책은 왜 '미시' 건전성 정책인가?

디답문제 52

'전통적인'이라는 표현을 의식하면, 이 뒤에는 '현대 경제학'에 준하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현대 경제학'은 무엇을 주장할지 최대한 예측해보라.

- ▶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본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밀줄 쳐두자. 어쨌든 뉘앙스상,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대출 및 투자)의 역할을 크지 않게 본 것 같아.
- ▶ 왜 전통 경제학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을까? 개별 금융 회사만 건전하면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겠지.
- ▶ 아마 전통 경제학이 위와 같은 2가지 주장을 했으니, 현대에 와서는 이 2가지 주장이 뒤집힐 수 있을 거라 예상해볼 수 있겠어.

◎ 독해 Point

□ 명칭 납득

개념의 명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어지지 않는다. 명칭의 의미를 납득해보자.

□ 반대 추론

반대되는 개념을 예상할 수 있을 땐, 특성도 반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서술어에 '왜?' 붙이기

'~한다.'라는 서술어에 '왜?'를 붙여보자. 해당 정보를 조금 더 깊게 각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 ▶ 뭘 소리일까? 결국,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의 장기적 영향력은 크지 않고, 자산 가격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했나봐. 전반적으로 '안일한' 느낌인데.

디답문제 53

여기까지 나온 전통적인 경제학의 주장을 3가지로 요약해보라.

◎ 독해 Point

- 길고 복잡한 정보 ⇒ 미시적 의미 파악/납득 + 거시적 흐름 요약
- 길고 복잡한 정보는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의미를 파악(납득)해보되,

디답문제 51

'전체적(거시적)'이 아닌, '개별적(미시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 하므로

디답문제 52

1.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2. 전체 금융 회사의 건전성(거시 건전성)에 집중할 것이다.

디답문제 53

1.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며, 장기적 영향력을 무시한다.
2.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만 집중한다.
3. 자산 시장에는 버블이 없다고 전제한다.

거시적으로 무슨 흐름인지를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 뭘 소린 줄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뭘 소리지?'라는 질문을 붙여,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 ▶ 왜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했을까? 개별 금융 회사가 자기 돈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규제를 해놓으면, 추후에 위험한 상황이 와도 이 최소 자본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랬겠지.
- ▶ 즉, '미시 건전성'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개별 회사(미시)'가 '향후 위험에 대비 가능한 특성(건전성)'이라 볼 수 있겠네.

3문단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 ▶ 전통 경제학에서는 왜 이러한 이원적인 접근을 추구했을까? 금융의 영향력을 알았잖아. '금융은 금융이야. 물가랑 노상관~'이라고 봤던 거지.
- ▶ 결과적으로,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둘로 나눠 따로(이원적으로) 접근한 거야.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디딤문제 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했던 일들을 최대한 예상해보면?

- ▶ 왜 이러한 자성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기존의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한 것(금융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 생각, 자산 시장 버블이 없다고 생각, 미시 건전성만으로 충분하다 생각)과 다른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일 거야.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 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을까? 실제로 '경제 불안'이 발생했는데, 누군가 '저금리 정책(신용 확대) 때문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금융 불안이 야기되었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진 거임!'이라 주장을 했기 때문이겠지.
- ▶ 그런데 이건 전통 경제학의 여러 가정들을 깨는 생각이야. 일단, '버블'이 없다는 기존의 가정과 배치되고, 금융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기존의 가정과도 배치돼.
- ▶ 결과적으로, 전통 경제학의 '안일한' 생각들(금융의 영향력 ↓ 버블X)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됐겠구나.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 ▶ 왜 금융 회사 규모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된 걸까? 금융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 회사가 휘청거리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이었을 거야.
- ▶ 그럼 아마도, 그럼 이전과는 달리 금융 시스템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겠지?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디딤문제 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불안 과정에서 '금융의 영향력'이 컸거나, '자산 시장 버블'이 발생했거나,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만으로 금융 안정을 도모할 수 없었을 것 (이에 따라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을 것)

- ▶ 왜 금융 안정도 경제 안정의 필수적 요건이라 생각했을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큼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야. 즉, 금융 혼자만 따로 보는 전통 경제학과는 달리, 금융이 다른 경제 여건들과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 ▶ 그래야 했을 거야. 금융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금융이 다른 경제 여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 정책도 중요히 여기며 상호 보완적(일원적)으로 접근해야 했겠지.

다답문제 55

전통적인 경제학과 구별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경제학'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답문제 55

1. 금융, 물가를 '일원적'으로 접근
2. 금융의 경제적 영향력이 큰 것을 인정

4문단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 '거시'라는 말 자체가 크게 보겠다는 거잖아. 당연히 '전체' 차원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책이겠지.
- ▶ 즉, '거시 건전성'이란, '나무'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숲'의 건전성을 추구하겠다는 거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 ▶ 그렇겠지. '숲'까지도 건전하게 만들려 했던 이유는, 당연히 '나무의 건전성'만으로는 숲이 건전해지는 건 아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 ▶ 당연해. 미시 건전성 정책은 말 그대로 미시적인 예방만 했다면, 거시 건전성 정책은 거시적인 예방 정책을 펼치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 ▶ 왜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해야 할까? 위에서 우리는 금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어. 그렇다면 다른 경제 여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정책을 펼쳐야 비로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

금융 시스템 위협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 ▶ '경기 순응성'이란, 말 그대로 경기에 자산 시장(금융 시장)이 커플링(연결)되어 움직인다는 거네. 역시 금융과 다른 경제 여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 ▶ '경기 대응 완충자본'이란, 호황기에는 돈을 쓰지 말고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거구나.
-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경기 호황기에는 은행이 돈을 풀지 않게 하여 경기 과열(신용 팽창)을 억제하고, 경기 불황기에는 은행이 돈을 풀 수 있도록 하여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는 거겠지.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 ▶ 위에서 생각한 내용이야.

01 |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 전통 경제학에서 금융은 큰 영향력이 없었어. 근데 단기적으로도 영향력이 없었나?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없던 거 아닌가?
 - ▶ 전통 경제학에서는 금융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다고 했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 보았다.
 - ▶ 전통 경제학에서는 미시적인 건전성만 챙기면 금융 안정이 달성된다고 보았지.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원화된 접근을 했어. 금융 정책은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지, 경기 안정을 도모하는 건 통화 정책이라고 본 거지. 즉,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더불어' 펼치지 않았지.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금융과 통화 정책(금리 조절 정책)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봤어. 정책 금리 인하(=통화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순응성이 있다 했어. 이는 (경기 호황 → 금융 호황 → 경기 과열)의 과정에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고, 불황일 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였지.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 떠올려 보자. 각각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했지.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미시 건전성 정책은 전통 경제학으로, 이원화된 접근을 추구해.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거시 건전성 정책은 완충자본 제도를 쓴다 했어. 이는 경기 순응성(호황이면 과열되고, 불황이면 침체되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 했지.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둘 모두 '건전성(=향후 손실에 대비하는 특성=예방적 규제 성격)'을 추구해. 다만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의 차이였어.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둘의 차이는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였어.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둘 다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정책이었지. ㉠은 최저 자기자본 규제, ㉡은 완충자본 규제(최저 자기자본 규제 + 추가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정책이었으니까.

0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 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 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 일단 '완충 자본' 얘기가 나오는 B는 거시 건전성 정책일 거야. A와 C는 각각 (불황, 사용) 또는 (호황, 적립)이 되어야 하겠지. '개별' 금융 회사 얘기가 나오는 D는 미시 건전성 정책일 거야.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04 읽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 ▶ 통화 정책이 경기 과열을 억제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극복할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 즉,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쉽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건 어렵다는 거네.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표현을 쓴 걸 거야.
- ▶ 아래에서 위로 올리기 힘든 이유는, <소비 심리 위축 + 투자 대상 마땅치X>래. 즉,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땡겨줘도(신용 공급 확대), 그 돈을 일반 시장에 잘 안 써서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자산(주식, 부동산) 시장에만 돈을 써서, 자산 가격 급등(버블)이 나타나는 거지.

디딤문제 56

'끈 밀어올리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기>에 근거하여 찾으려면?

-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 ▶ 경기 침체에는 확대된 신용 공급(대출 증가)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자산 가격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
 - ▶ 따라서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때는 신용 공급(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소비 심리를 자극해주거나 투자 대상을 마련해주는 방침이 더욱 효과적이겠지.
-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 ▶ '끈 밀어올리기'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소비 심리의 위축이었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다면, 경기 침체에 펼친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이 침체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야.
-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 ▶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은 경기 침체에 적립된 자본을 사용하여 신용 공급을 확대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제도야. 그러나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에 신용 공급을 확대해도, 자산 시장 버블을 만들어 낼뿐, 기대한 효과(경기 부양)가 나타나지 않지. 그 이유는 '소비 심리 위축'과 '투자 대상 마땅치X' 때문일 거야.
-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 ▶ 금리 조정을 해서 정책 금리 조정을 통해 신용 공급을 확대해도 이미 소비 심리 위축/기업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안 돼. 소비 심리를

디딤문제 56

위축된 가계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 기업이 투자할 대상을 마련해준다.

자극하거나, 투자 대상을 마련해줘야겠지.

-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
 - ▶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는 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어렵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건 가능한 상태를 말해. 즉, 금리 인상을 통해 신용 공급(대출)을 축소시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

◎ 독해 Point

□ <보기> 자체에 대한 이해

<보기>도 하나의 지문이다. 지문을 읽을 때처럼,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 '끈 밀어올리기'가 '왜?' 발생하는지, 대출을 늘리는데도 왜 경기 부양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는 사고가 중요했다.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디답문제 57

지상에서의 시간적 질서가 화자를 왜 힘겹게 만들지 추측해보면?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천상(끝없는 사랑)에서 지상(생로병사)으로 내려옴 → 괴로움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믿음 이 사랑 견줄 덕 노여 업다
 평싱(平生)에 원(願)호요되 혼디 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옛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저괴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믿음의 킷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한(有限)호되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냥(炎涼)이 쎄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호되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틱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남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젓거 내여 님 겨신 덕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 유한한 삶(생로병사)에 대한 시름

디답문제 58

디답문제 57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고, 사랑에 '끝'이 있으므로

디답문제 58

빠르게 흘러간다. 빠르게 '끝'나가는 지상에서의 시간을 힘겹게 느끼고 있다. 이는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한다.', '염냥이 가는 듯 다시 오니'라는 표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자에게 지상의 시간은 심리적으로 빠르게 흘러가는가? 느리게 흘러가는가?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고요한 상황? 고요한 심리?
(다)	고요한 상황? → 내적 고요 추구, 불편/슬픔 극복 의지

(나)

창 밧긔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신희 -

*혜란 혜경: 난초 편 지름길.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나)	임의 부재(외적 고요) → 그리움, 슬픔 (내적 고요X)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체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장흥방의 길갯집(회상)
→ 외적 고요 추구, 더위를 고요로 극복하려는 의지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 구분,
내적 고요로 더움 극복 의지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옛집(장흥방의 길갯집)에 돌아옴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옛집 → 그리움 but 다시 살고 싶지는 X
새집(임원)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했던 뜻만 이르려 함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분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당호: 집에 붙이는 이름.

*유중영의 옛일: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임원: 산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새집(임원) → 내적 고요 + 외적 고요(진정한 고요) 추구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디딤문제 59

'노여'와 '다'라는 수식어는 어떤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을까?

- ▶ '노여'와 '다'는 시의 맥락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사랑 or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사용되고 있어.
 - ▶ (가)의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 / 임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슬픈 그리움', (나)의 주제는 '입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이 주제상 '입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독해 시에 이걸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글을 마구 읽은 게 아니라면, 애초에 원망의 정서가 지문에 없었기 때문이겠지.
- ② (가)의 '흐느고야'와 (나)의 '흐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 주제상 화자는 어떠한 의지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낼 뿐이지.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사**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외부의 사물로, 화자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은 변했음(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에 해당해.
 - ▶ 실전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할 거야. 주제와 잘 부합하는 선지를 찾으면, 그 선지부터 확인하기 위함이지.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단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 (가)와 (나)의 화자는 '반가움'의 심리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리움, 안타까움'의 심리를 가지지. 화자가 처한 주제 상황/심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선지야.
- ⑤ (가)의 '넘이신가'와 (나)의 '넘이신가'는 모두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 ▶ 주제상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어.
 - ▶ 또한 '넘이신가'는 혼자 하는 말이니 독백적 어조라 볼 수 있지.

◎ 판단 Point

□ 추론·의심

일단 선지를 훑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보자. 의심되는 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주제와 가장 잘 이어지는 것은 ⑤이다. 당연히 애부터 조져야 한다.

디딤문제 59

노여 : 화자와 입의 사랑이 매우 컸음을 부각하는 수식어
다 : 화자가 입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큼을 부각하는 수식어

0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 화자는 임과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보기)에서 천상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 했으므로, '연분(=사랑)'을 '하늘(=천상=끝없는 시간)'과 연결 짓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② '점어 있고'와 '늪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 (보기)에서 화자는 지상에 내려왔다 했고, 천상에서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다고 명시해줬어. 따라서 시간의 흐름(점어있다가 → 늪음 = '로'의 과정)을 겪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지.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 임과 함께했던 3년 전(=오래 전=긴 시간)을 엇그제(=짧은 시간)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지상의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그 이유는 임과의 추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거야.
- ④ '인칭은 유흔'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디딤문제 60

화자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인가?

- ▶ 화자는 '생로병사'와 '끝'이 존재하는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힘겨워 해. 또,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지. 이 2가지 심리를 연결했을 때, 화자가 시간이 흐르는 것에 힘겨워하는 이유는, 화자가 입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힘겨워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도 있어.

◎ 판단 Point

□ 개연적 근거

문학에서의 근거는 필연적이지 않다. 화자가 어떠한 심리를 가졌을 거라는 개연적 근거가 글자만으로 존재해도, 그러한 해석을 인정해줄 수 있다.

⇒ 화자가 가지는 2가지 심리를 연결했을 때, 화자가 위와 같은 심리를 '개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차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디딤문제 61

위 선지를 '선지 내 모순성', '선지 간 모순성', '<보기> 상충'으로 해석하라.

디딤문제 60

위 참고

- ▶ 무언가가 '가는 듯 고쳐(다시)' 온다는 것은, 가자마자 온다는 거야. 이는 시간이 빠르게 흐름을 의미하지. 지연되는 게 아니야.
- ▶ 게다가 <보기>에서도, ㉓과 ㉔에서도, 화자는 시간이 흐르지 않던 천상과 달리, 지상에서의 시간 흐름을 힘겨워해. 그렇다면 화자는 지상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힘겨워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 **판단 Point**

□ 선지 내 모순성

선지의 앞뒤 호응을 잘 살펴보자. 앞뒤의 내용이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 부적절함을 의심할 수 있다.

□ 선지 간 모순성

선지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일 경우, 이 둘 중 하나가 답임을 알 수 있다.

□ <보기>와의 상충

<보기>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선지가 논리적 모순을 보일 경우, 이를 의심할 수 있다.

- ⇒ ㉔는 선지의 앞뒤 호응이 안 맞다. 그리고 ㉓, ㉔와 방향성이 반대된다. 무엇보다 <보기>와 상충된다. 이 문제는 답이 ㉔여야만 하는 논리적 상황에 있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 낙엽 소리마저도 들리는 상태라면, 이는 외적 고요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어.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에 빠져 있으니 낙엽 소리마저도 임의 소리로 착각했고, 이러한 슬프고 힘든 그리움을 가진 상태는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라 볼 수 없겠지.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 옛집의 것들이 슬픔을 더하는 것은 필자의 내적 고요를 방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 주체상 화자는 외적 고요와 함께 내적 고요를 추구해. 이는 새집에서도 마찬가지지.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기는 인물은 '누군가'가 아니라, '화자'야.
 - ▶ '누군가'가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은, 내적 고요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야. 즉, 외적 고요만을 고요로 생각하여, 이미 외적으로 고요한 상태인데 왜 또 외적으로 고요함을 추구하냐고 묻는 것이야. 내적 고요의 개념을 모르는자가 위 선지와 같이 말할 수는 없을 거야.
 - ▶ 하지만 화자가 말한, 이기는 '고요함'은 '내적 고요'를 의미하지.

디딤문제 62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 **통해 Point**

□ 구분(나뉘임기)

글에 나타나는 단어/구절은 결국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구분하며 읽어주자.

- ⇒ '화자'와 '누군가'는 맥락상 구분/대립되는 생각을 갖는다.

□ 선지의 전제 오류

디딤문제 62

위 참고

디딤문제 61

위 참고

선지가 어떤 전제를 뒤에 깔아둘 때, 그 전제가 지문과 상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⑤는 '누군가'가 '내적 고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문에서 '누군가'는 '내적 고요'의 개념을 모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04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가)와 (다) 모두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중심 대상은 각각 임과의 이별, 옛집에 대한 그리움이지, 인간의 외양 변화는 아니야.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 둘 다 옛사람/옛집에서의 일을 그리워 하는데? 물론 (다)는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새로운 것을 중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가)는 부재한 임, (나)는 옛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 주제와 완전히 이어지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가)는 무언가를 순응(순순히 받아들임)하기 보다는 매우 슬퍼하지. (다)는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글이야.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 (다)에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아.

◎ 판단 Point

□ 추론·의심

일단 선지를 훑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보자. 의심되는 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주제와 가장 잘 이어지는 것은 ③이다. 당연히 애부터 조져야 한다.

05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내적 고요가 충족되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유중영'이라는 과거 인물의 행적(각주)을 비추어, 옛집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화자는 옛집을 그리워할 뿐 다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다고 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인간사가 바뀌어 옛집은 슬픔만 유발하므로, 새집을 지으려고 한다 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이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네.

1문단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절할 수 있다.

- ▶ 그치. 플라스틱은 일상적으로 익숙한 소재야.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 ▶ '플라스틱'이란, 열과 압력으로 변형이 가능한 물질인 거네.
- ▶ 그런데 고분자 화합물은 뭐지? 뒤에서 설명이 나오려나?

2문단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 ▶ '플라스틱'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어. 작은 분자들이 반복 연결된 '거대 분자'구나.
- ▶ 그럼 앞 문장에서 플라스틱이 고분자 화합물이란 말도 이해돼. 플라스틱은 수없이 많은 분자들의 화합물일 거야.

◎ 독해 Point

■ 이미지 세팅

글의 서두에서 대상의 형태나 구조를 묘사할 경우,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를 만들면서 출발하자.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한다.

- ▶ 왜 이러한 결합이 '공유 결합'인 걸까?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이겠지. 원자와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어.
- ▶ 근데 이게 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지? 혼자 있을 때보다는 결합된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인 걸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 ▶ 명칭을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어. 단일(한 쌍) 결합, 이중(두 쌍) 결합은 이름 그대로 전자쌍의 개수를 의미하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 ▶ 왜 그럴까? 이미지를 생각하면 당연해. 서로 공유하는 게 많을수록 결합되는 정도가 세지겠지.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 ▶ 왜 딱 전자가 8개일 때 안정해질까? 이유는 잘 모르겠네. 고정값이니 그냥 표시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자.

◎ 독해 Point

■ 고정값·고유명사

납득할 수 없는 고정값이나 고유명사는 표시 치고 넘어가도록 하자.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 ▶ 탄소 원자는 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지고, 거대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을까?

- ▶ 탄소 원자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 다른 원자로부터 4개의 전자를 더 공유받아야 할 거야. 그래야 전자 8개를 가지게 될 테니까.
- ▶ 하나의 탄소 원자가 다른 원자들과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을 맺을 수 있으니, 이게 연결되면 거대 분자의 골격이 될 수도 있겠지. 이미지를 통해 납득할 수 있겠다.
- ▶ 아마도, 이 탄소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 공유 결합한 것이 연쇄되어 '플라스틱'이 되지 않을까?

◎ **독해 Point**

- **예측하기**
뒷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멈춰서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3문단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 ▶ 플라스틱은 왜 에틸렌 분자들의 연결로 만들어질까? 아마 에틸렌 분자도 안정화를 위해 서로 공유 결합을 맺고, 이러한 공유 결합이 연결되어 거대 분자가 돼서 플라스틱으로 탄생하는 거겠지.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다답문제 63

에틸렌은 안정화된 상태일 것이다. (O X)

- ▶ 이게 뭐 소리지? 텍스트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살짝 그림을 그려보자.
- ▶ 탄소 원자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른 탄소 원자와 이중 결합을 하여 전자 2개를 공유 받고(+2), 두 개의 수소 원자와 각각 단일 결합을 하니 또 전자 2개를 공유 받을 거야(+2). 결과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8개가 되니, 에틸렌은 안정화된 상태겠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 ▶ 왜 그렇지? 잘 모르겠네. 납득이 안 되니, 일단 밑줄 쳐두고 기억해두도록 하자.

다답문제 63

위 참고

4문단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 ▶ 에틸렌의 중합(연결)에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한다. 과산화물 개시제가 될 하길래 이걸 쓰는 걸까? 이제 설명해주겠지?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 ▶ 뭐라는 거지? 이미지르 그려보자. 과산화물 개시제는 열을 흡수하면 7개의 전자가 있는 분자로 분해된다.
- ▶ 아마도 애는 전자 하나를 가져오고 싶을 거야. 8개가 되어야 안정화될 테니까.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 ▶ 왜 개시제가 에틸렌의 이중 결합을 끊으면서 단일 결합하는 걸까? 개시제는 전자를 하나 공유받고 싶은 상태니까, 탄소 원자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을 끊어서 전자 하나를 자신과 공유하게 만드는 거구나.
- ▶ 뭐 얘기인지 정리가 잘 안 된다면 머릿속에든 실제로든 그림을 그려봐야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 ▶ 그치. 원래 한 쌍이었던 두 전자 중 하나가 개시제의 전자에 붙어버렸으니 하나의 전자는 자기 짝을 잃어버린 꼴이 됐어.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디딤문제 64

위에서 말하는 '같은 방식'이란 어떤 방식일까?

- ▶ 탄소 원자는 왜 또 불안정해졌을까? 원래 다른 탄소 원자와 이중 결합,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통해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시제에 의해 다른 탄소 원자와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버리면서 전자 하나를 개시제에 뺏겨버린 꼴이 됐잖아.
- ▶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다른 에틸렌 분자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전자를 7개 가지게 된 탄소 원자가 다른 에틸렌 분자의 이중 결합을 끊어 하나의 전자를 자기에게 공유하게끔 만든다는 거네.
- ▶ 즉, 여기서 '같은 방식'이란, '과산화물 개시제'가 에틸렌의 이중 결합을 단일 결합으로 만들면서 전자 하나를 뺏는 방식을 의미하겠네.

◎ 독해 Point

- 이게 뭐 소리지?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왔을 때, 승부를 포기하지 말자. 충분히

디딤문제 64

위 참고

그 문장에서 시간을 써야 한다. 어차피 그 시간을 안 쓰면 문제에서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 ▶ 왜 사슬 형태가 나오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탄소 원자가 옆에 있는 에틸렌 분자의 탄소 원자에게 전자 하나를 가져와 단일 결합하고, 이렇게 또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탄소 원자가 또 옆에 있는 에틸렌 분자의 탄소 원자에게 전자 하나를 가져와 단일 결합하고 ... 결국 탄소 원자끼리 모두 단일 결합으로 쭉 연결되니 사슬 형태가 될 거야.
- ▶ 그런데 왜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될까? 계속해서 옆 에틸렌 속 탄소 원자의 공유 결합을 끊어 전자 하나를 가져오므로, 지속적으로 탄소 원자 하나가 남겠지.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 ▶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와 같이 자라나는 사슬이 또 하나 있다는 거네. 그럼 이 2개의 사슬의 한쪽 끝에는 각각 짝이 없는 전자가 있으니 이 둘이 짝을 이뤄 연결된다는 거야. 2개의 사슬이 연결되어 1개의 사슬이 되는 거네.

①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 ▶ 왜 고분자 화합물인 걸까? 에틸렌 분자를 이루는 탄소 원자들이 단일 결합을 이뤄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5문단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 그치. 에틸렌 분자가 쪽~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 거대한 분자가 곧 사슬인 건가? 결정 영역은 사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서로 평행한 부분을 말하는 거네. 긴 끈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걸 상상해보면, 확실히 끈이 서로 평행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긴 할거야.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 플라스틱의 결정 비율은 왜 조절이 가능할까? 아까 플라스틱은 성형이 쉽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 결정(규칙적 배열)이 많으면 왜 이런 특성을 가질까? 결정이 많을수록 규칙적 배열이 많아져 HARD한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 유연하지 않고, 가공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하고,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화학 물질에 대해 둔감해.

▶ 나열된 정보들 각각을 납득했지만, 혹시 모르니 표시해두자.

◎ 독해 Point

▪ 나열된 정보

정보들이 나열될 때는 각각을 납득(왜 그렇지?)하려 하되, 기억하려 크게 애쓸 필요는 없다. 돌아와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남겨두자.

▪ 납득을 통한 정보의 집약

여러 정보들이 산개될 때, 이 정보들을 하나로 집약해주는 하나의 정보가 필요하다. 각각의 정보들에 '왜?'를 던지다 보면, 이러한 구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HARD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웬지 '유연하지 않고, 가공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하고,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화학 물질에 대해 둔감할 것 같다. 즉, 나는 HARD라는 단어로 이 정보를 집약시킨 것이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아마도 결정의 비율을 조절하며 단단한 정도를 조절하는 거겠지.

0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 ▶ 단위체(작은 분자)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가 되고, 거대 분자들의 집합이 플라스틱이 돼.
- ②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 ▶ 에틸렌 분자에서는 탄소 분자끼리 이중 결합, 탄소와 수소 분자끼리는 단일 결합된다고 했어.
- ③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 ▶ 1문단에 딱하니 나와 있네.
 - ▶ 보통 이런 세부정보가 답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니, 확인하는 시간을 아끼도록 하자.
- ④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 ▶ 과산화물 개시제를 쓰면 안정화된 원자를 갖고 있는 에틸렌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돼. 선후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네.
- ⑤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 ▶ 지문에서 이중 결합에서 하나의 결합 세기는 다른 하나보다 약하다 했으니, 다른 하나의 결합 세기는 더 강한 거지.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 ▶ 성장 중인 사슬은 한쪽 끝에서만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돼. 다른 한쪽은 이미 안정화된 상태일 거야.
- ②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 ▶ 탄소 원자는 원래 2개의 전자쌍, 즉 4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이중 결합으로 연결돼. 그러나 불안정한 개시제가 안정되기 위해 탄소 원자의 2개의 전자쌍 중 하나를 끊으면서, 이때 두 탄소 원자는 [공유 결합 → 단일 결합]으로 변하게 돼.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기에 사슬의 중간에는 탄소 원자의 단일 결합이 존재할 거야.
- ③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 ▶ 불안정한 원자의 안정될려는 성질 때문에,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에틸렌)이 생겨나면,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또 다른 에틸렌의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전자쌍을 끊고 전자를 자신과 연결해, 이 과정이 반복되며 사슬이 성장하지.
- ④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쇄적으로 홀로 남은 전자가 발생하지. 이리면서 사슬이 성장해. 그리고 마지막 두 사슬 각각의 한 쪽 끝에 있는 홀로 남은(=짝을 뺀) 전자끼리 만나 원자가 안정화되면 성장이 종결되지.
- 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간다.
- ▶ 선지 2, 3번에서 이미 확인하고 온 내용이야.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 ▶ ㉡는 나란하지 않은 배열(결정 영역↓)이고, ㉢는 나란한 배열(결정 영역↑)이야. HARD한 특성(위의 독해 POINT 참고)들은 ㉡가 높겠다.
- ①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 ㉢는 HARD해. 유연하지 않지.
- ②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로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 ㉢는 HARD해. 불투명하지. 더 투명한 ㉡를 쓰는 게 잘 보일 거야.
- ③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군.
- ▶ ㉢는 HARD해. 화학 물질에도 둔감하지. 화학물질에 더 둔감해야 보관용기를 더 오래 쓸 수 있겠지?
- ④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 ▶ ㉢는 HARD해. ㉢의 밀도가 더 높지.
- ⑤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 ㉢는 HARD해. 열에 잘 견디지.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가지

담을 넘을 때 → 여러 존재의 도움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나 → 이홍

잇어라

◎ 판단 Point

▪ 애 지금 어떤 마음이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다. 인물이 '왜' 이러한 대사/행동/생각을 보이는지에 집중해보자.

⇒ 사실상 이 지문의 7할은 여기서 잡혀야 한다.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넘겨 버리면 이 뒤의 내용도 다 넘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확보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 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어차피 돌아올 거라면, 애초에 제대로 심리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⑥그렇다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나 → 이홍

잇어라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 독해 Point

▪ 평소에 120, 실전은 70

평소 학습에서 답하게 파는 이유는, 실전에서 그 모든 걸 하기 위함이 아니다. 평소에 120정도로 파두어야 실전에서 70정도는 할 수 있고, 그래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이다.

⇒ 실전에서 한 문장씩 깊게 분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 이 정도는 해두어야, 실전에서 이런 난해한 글을 만났을 때도 최소한의 주제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이 구간을 읽고, '뭐 어쨌든 잇어버리라는 거네' 정도만 떠올렸어도 충분했다.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것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것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나 → 이홍

아름다움/세력/재물 등을 못 잇음 → 걱정거리

◎ 독해 Point

▪ 클리셰적 해석

수능에서 반교육적인 글이 출제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글의 주제는 '거기서 거기'다. 이에 비추어 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크고 화려한 집', '재물', '물건의 취하려는 마음'에 대해 잇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잇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잇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잇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잇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잇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잇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⑥면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잇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잇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잇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잇는다.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잇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잇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잇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잇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잇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잇어도 좋을 것은 잇고 자신의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지 않는다.”

- 유한준, 「잇음을 논함」 -

디딤문제 68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나 → 이홍

외적인 가치들(아름다움, 교만, 재물욕 등) 잇어라
내적인 가치들(충효, 의로움, 예의 등) 잇지 마라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명사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디딤문제 68

위 참고

드러낸다.

▶ (가)는 화자의 '감정'이 추가 되는 시가 아니야. 화자가 순환하는 자연과 인간 역사의 생성/쇠퇴를 떠올리고 '생각'한 것들이지. 주제와 안 맞으므로, 일단 넘길 수 있어야 해.

▶ 명시적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 또한 나타나지 않아.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가)에는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동일하게 쓰였어.

▶ (나)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 아니면 ~가 아니었을 것이다'를 반복하는 시였으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다 볼 수 있지.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가)에는 화자의 특정한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 따라서 '안타까움'도 없다고 봐야겠지.

▶ (나) 역시 '안타까움'이 추가 되는 시가 아니야. 가지가 담을 넘을 넘은 건 가지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시지.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사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관조/관망'은 별 생각이나 감정 없이 대상을 바라보는 거야. (나)와 (다)는 특정한 생각과 인식을 제시하므로, '관조/관망'으로 볼 수 없지.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 (가), (나)에서 대상과의 '소통'은 나타나지 않아. (다)는 필자와 '이홍'이 소통하고 있다 볼 수 있지.

▶ 또한 (가)와 (다)에는 문제 해결 과정이 연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 판단 Point

▪ 추론·의심

일단 선지를 훑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보자. 의심되는 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실전에서는 ②를 보고 바로 확인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선지를 '주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지워낼 수 있어야 한다.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생각보다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를 제외한 상태로, ②가 답일 거라는 가능성을 높게 두고 서치해야 그나마 근거가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즉, ②를 못 찍은 사람은, 근거 서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머지 선지를 주제로 못 쳐낸 것이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퇴와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퇴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디딤문제 69

이 선지를 적절하게 고쳐라. 단, <보기>의 표현을 최대한 활용한다.

▶ <보기>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 이를 통해 보면, '흰 벽(인간의 역사)'에 '나뭇가지(자연)'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건,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 <보기> 내용과 상충돼.

▶ 만약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간의 역사에 의해 자연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해.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의한 자연의 모습 변화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지.

▶ 본문에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구절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거야. 그림자가 나타나는 걸 '자연의 힘에 대한 탐색'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쇠락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지, '쇠락해온' 결과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 즉 선지를 옮겨 고치면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쇠퇴의 과정 속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

◎ 판단 Point

▪ <보기> 방향성 상충

<보기>의 방향성과 선지의 방향성이 서로 상충될 경우, 일단 틀렸음을 의심해봐야 한다.

⇒ 쉽게 보자. <보기>는 '자연→인간'을 말하는데, 선지는 '인간→자연'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①을 잡아낼 수 있어야겠다.

◎ 판단 Point

▪ 틀린 해석은 명백하다.

문학에서 적절한 해석은 증명이 힘들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증명은 비교적 수월하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선지가 왜 올바른지'보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

⇒ ①은 언어갈 게 많은 선지다. 실전에서는 <보기> 상충로 고르는 게 가장 편하지만, 이외의 틀린 POINT들도 꼭 다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점적인 부분이 살펴볼 만하다.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두리기둥'은 인간의 역사에, '별과 바람'은 자연에 대응하지? 그럼 별과 바람이 두리기둥에 스며들고, 이를 '서럽지 않다'고 한 건 그 힘을 수용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을 거야.

디딤문제 69

위 참고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 '기왓장'은 인간의 역사에, '이끼'와 '바람 소리'는 자연에 대응하지? 그럼 기왓장에 이끼가 덮여 가는 건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걸 의미할 거야.
 - ▶ 바람 소리(=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 귀 기울이는 건, 자연의 힘(=인간 역사의 생성 가능성)을 탐색하는(=찾는) 것이라 볼 수 있지.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 주춧돌 놓인 '자리'는 인간의 역사에, '푸른 싹'과 '나무'는 자연에 대응할 거야. 여기서 '주춧돌'은 다시 자연물에 대응하므로 생성의 기반(주춧돌)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자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자리에 싹이 돋고 나무가 자람)하는 거라 볼 수 있지.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 ▶ 별들이 돌아오고 빛이 쏟아지는 새벽이 오는 건 순환하는 자연이라 볼 수 있을 거야.
 - ▶ 이 속에서 '달혀진 문'이 열리는 모습(=인간의 역사가 다시 생성될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겠지. <보기>의 문장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허용할 수 있어.

0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환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게 아니라, 애초에 설정된 것들이야. 이것의 원인이 나타나지는 않아.
 - ▶ 이 시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해, 어떤 상황/행위가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의 시가 아니었어. 주제로 칠 수 있어야 할 거야.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디딤문제 70
이 선지를 적절하게 고쳐라.

- ▶ 이 시의 주제를 생각해보자. 가지를 꿈꾸게 만들고, 담을 넘게 만드는 조력자들이 나온 시였어. 결코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대상들이 나올만한 시가 아니지.
- ▶ 적절하게 고쳐보자.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담을 넘는 행위가 '신명' 날 수 있도록 만드는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하지.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금단의 담'이야. 그리고 '신명 나는 일'은 '담을 넘는 행위(=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지.
- ▶ 즉, [B]에서는 '금단의 담'을 '신명 나는 일(=담을 넘는 행위=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에 연결하여 조력자로 설정하고 있어. 담을 넘는 행위가 사실은 가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담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지.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디딤문제 71
이 선지가 틀린 이유를 2가지 서술하라.

- ▶ 시의 주제를 생각해보자. '가지'가 담을 넘는 게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 즉, 가지가 담을 넘어 '획'을 그을 수 있는 게 가지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 ▶ 또한 가지는 '담 밖'을 가두고 있지 않아. 담 밖을 가두는 건 '금단의 담'이지.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디딤문제 72
이 선지가 틀린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라.

- ▶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이들 덕분에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야. 즉 이들이 가지의 '조력자'임을 얘기하는 표현이지.
- ▶ 그러나 '목련'과 '감나무'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야. 이들은 가지처럼 담을 넘는 행위자들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행위자'이지.

디딤문제 70

위 참고

디딤문제 71

위 참고

디딤문제 72

위 참고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잇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물음을 통해 상대방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 이를 통해 '잇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지.
- ▶ 필자는 '잇음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 이 글을 썼어. 따라서 ①의 내용은 적절할 가능성이 높지. ㉠의 판단은 일단 보류했어도 좋을 거야.
- ② ㉡: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잇는 것이 병이 아님. 잇지 않는 게 병임)의 '연유(이유)'에 대해 제시하기 위한 물음이지.
- ▶ 필자는 '잇음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 이 글을 썼어. 따라서 ②의 내용은 적절할 가능성이 높지. ㉡의 판단은 일단 보류했어도 좋을 거야.
- ③ ㉢: 잇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자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는 가정은, 필자의 본 관점(잇는 건 병이 아님)을 반대로 한 가정이야. 따라서 가정적 상황이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에 해당하지.
- ④ ㉣: 잇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필자는 '먼 것'과 '새것'은 잊어야 하는데 잇지 못한다 하고, '가까운 것'과 '옛것'은 잇지 않아야 하는데 잇는다고 말하고 있어.
- ▶ 필자는 '잇을 건 잇자. 잇지 말 건 잇지 말자'고 하기 위해 이 글을 썼어. 따라서 ④의 내용은 적절할 가능성이 높지. ㉣의 판단은 일단 보류했어도 좋을 거야.
- ⑤ ㉤: 잇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 잇을 걸 안 잇고, 잇지 않을 걸 잇으면 '벌'과 '재앙'이 온다고 하고 있어. 이는 '나'의 생각(잇을 건 잇고, 말 건 말자)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지.

0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문'은 인간 역사 생성의 가능성으로, 자연 순환의 힘을 받아 닫혀있다가 열리게 돼. 그리고 '깃발'로 표상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지.
- ▶ '가지'는 담을 넘는 행위자로서, 주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게 돼.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문은 순환하는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열리고, 그것은 인간 역사의 생성과 관련되니, 미래로 나아가다 볼 수 있을 거야.
- ▶ 그러나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받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문은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않으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
- ▶ 가지는 담 안에서 담 밖으로 이동하니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어.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문이 자연의 영향을 받아 열려 깃발과 단절된 상황이 극복되지만, 그러한 의지를 가진다고 볼만한 구절은 나타나지 않아. 즉, 문이 특정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 ▶ 가지는 외부의 간섭을 받는 존재로 묘사돼.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아.

◎ 판단 Point

▪ '~려 하다'의 해석

'~려 하다'는 표현은 의지·의도를 전제한다. 즉, 어떠한 의지·의도로 해석할만한 글자가 없다면 '~려 하다'는 선지의 표현은 의심해볼만 하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둘 다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하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아.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 둘 다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

06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 수양의 부분적 대상들(뿌리, 꽃, 잎, 가지)을 '혼연일체'라고 보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대상으로 인식한 거라 볼 수 있지.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 필자는 '충효, 의로움 등'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 즉, 이 가치들을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로 인식하는 거지.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 필자가 깨달은 잊음의 본질은 '잊지 않아야 할 건 있고, 잊어야 할 걸 못 잊으면 걱정이 되고 병이 된다'는 거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이를 깨닫고, '잊을 건 있고, 말 건 마는' 사람이니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말하지.
 - ▶ 결국 이러한 잊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게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을 말한 이유지.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 (나)의 '담쟁이 줄기'는 '가지'와 같이 조력자들의 힘을 받아 담을 넘을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되는 대상이야.
 - ▶ (다)의 필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내적인 것)을 잊으면 잊어야 할 것(외적인 것)을 잊지 못한다 하지.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 (나)의 화자는 가지에게 담은 '도박(도전)'이자 '도반(벗)'이 된다 해.
- ▶ (다)의 필자는 '예의'나 '분수'와 같은 내적인 것들은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내. 그런데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은, '잊지 않으면 병이 된다'는 깨달음이야.
- ▶ 즉, 앞뒤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아. 앞부분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이고, 뒷부분은 '잊지 않으면 병이 된다'는 거니까. 필자에게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니,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깨달음을 드러내겠지.

◎ 판단 Point

▪ 선지 내 모순성

선지의 앞뒤의 내용이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 부적절함을 의심할 수 있다.

- ⇒ 앞부분은 '잊지 않아야 하는 대상'을 제시하며, 뒷부분은 '잊지 않으면 병이 된다'고 한다. 호응이 안 맞다.

디딤문제 73

⑥를 고쳐보면?

디딤문제 73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내적인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1문단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 ▶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까? PCR이 어떤 기술이길래?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 ▶ 뭘 소리지? PCR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를 다량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가?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 ▶ 애네들 각각을 소개할 거야.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할까?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 ▶ '주형 DNA'가 뭐고, '표적 DNA'가 뭐지?
- ▶ '표적 DNA'는 증폭하려는 DNA 부위 그 자체이고, '주형 DNA'은 그 표적 DNA를 포함한 '전체'에 해당하겠네. '이중 가닥'이라고 하니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겠어.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디답문제 74

프라이머는 어떻게 표적 DNA의 양 끝에 결합할 수 있는 걸까? 주관적으로 예상해보라.

- ▶ '프라이머'는 뭐지? 표적 DNA의 일부와 똑같은 염기 서열을 가진 '단일' 가닥으로,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붙는데. 이미지로 그리면 될 거야.
- ▶ 왜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할까? 그야 염기 서열이 동일하니까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이지 않을까?

◎ 독해 Point

- 이유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위성의 부여를 위해 글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을 끌어올 수 있다. 이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문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디답문제 75

PCR 과정을 예상해보면?

- ▶ 'DNA 중합 효소'는 뭐지? 단일 가닥을 이중 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거구나.
- ▶ 그럼 PCR 기술에서는 단일 가닥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양쪽 끝에 붙고,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 단일 가닥이 이중 가닥이 되면서 증폭되는 과정이 나타나려나?

◎ 독해 Point

- 이미지 세팅

글의 서두에서 대상의 형태나 구조를 묘사할 경우,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를 만들면서 출발하자.

디답문제 74

위 참고

디답문제 75

위 참고

2문단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 왜 이중 가닥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할까? 아마도 단일 가닥이 되어야, 중합 효소에 의해 각각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일 거야.
- ▶ 아무튼 열을 가해서 이중 가닥이 각각 하나의 단일 가닥으로 되는 과정을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 ▶ 왜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길까?
- ▶ '표적 DNA 이중 가닥'이 2개의 '표적 DNA 단일 가닥'으로 나뉘다 했어. 이 각각의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하고, DNA 중합 효소에 의해 각각이 복제되면, 결과적으로 2개의 '표적 DNA 이중 가닥'이 생겨날 거야.
- ▶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겠지?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 ▶ 왜 한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하지?
- ▶ 위에서 말한 대로야. '이중 가닥 표적 DNA'가 2개의 '단일 가닥 표적 DNA'로 쪼개지고, 각각에 프라이머가 붙어 복제되니 4개의 '단일 가닥 표적 DNA'이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2개의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만들어지는 꼴이지.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 ▶ 어느 순간부터는 DNA가 더 이상 2배씩 증가하지 않나 보네. 그때까지 사이클을 돌린 후 종료하는구나.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 ▶ 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까? PCR이 잘 수행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 거야. 발색 여부에 따라 증폭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겠지.

3문단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디딤문제 76

위 문장을 읽고 2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질문을 던지면?

- ▶ 왜 '실시간' PCR이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PCR의 발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걸까?
- ▶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다는 데,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 뒤에서 얘기해주겠지.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아, 정말 이름 그대로 실시간으로 증폭 상태를 확인할 수 있구나. 전통 PCR과 다른 점이 있거네.
- ▶ 또, '누적되는 발색'이라 하니, 증폭이 많이 일어날수록 발색이 많이 누적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위에서 DNA의 양도 알 수 있다 한 걸 거야.

◎ 독해 Point

▪ 분류 ⇒ 구분

비슷한 대상이 제시되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두 대상의 차이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 ▶ 애네들을 왜 이용할까? 실시간으로 증폭 여부를 확인하고, 얼마나 증폭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겠지.

①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증폭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지?
-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표적 DNA에 붙어 발색하는 거래.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늘어나므로, 증폭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발색도 많아질 거야. 즉, 이 발색이 많아지는 만큼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 ▶ 왜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까?

디딤문제 76

위 참고

-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끼리 형성한 이합체에도 결합하여 발색하는구나.
- ▶ 원래 의도한 발색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건데, '프라이머 이합체'에 결합하여 발색하니 의도치 않은 발색이라 하는 거겠지.

4문단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 ▶ '형광 표식 탐침'은 뭐 하는 거지?
- ▶ 일단 형광 표식 탐침의 구조를 상상해 주자.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래.
- ▶ 애는 '이중 가닥 특이 염료'와 달리, 이중 가닥 표적 DNA에 붙는 게 아니라 단일 가닥 표적 DNA에 붙는 거구나.
- ▶ 원래 단일 가닥 표적 DNA의 양 끝에는 프라이머가 붙었잖아. 그럼 형광 표식 탐침은 양 끝이 아닌 중간에 붙는다고 보면 되겠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 ▶ 왜 분해되는 걸까? 잘 모르겠어. 아무튼 원래 결합해있던 단일 가닥 표적 DNA가 복제되어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되면, 그 순간 결합력이 사라지나봐. 떨어져나가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뭘 소리지? 단일 가닥 표적 DNA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되는 순간, 3단 분리가 이뤄지며(표적 DNA - 형광 물질 - 소광 물질) 형광 물질이 발색한다는 거구나. 이미지로 그릴 수 있겠다.
- ▶ 근데 이게 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해줄까? 단일 가닥 표적 DNA가 이중 가닥 표적 DNA로 증폭되면서 발색이 이뤄지는 거니, 발색을 통해 증폭을 알 수 있을 거야.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 ▶ 왜 비쌀까? 형광 표식 탐침은 이합체 때문에 발색하는 일(=의도치 하는 일)이 없다는 등의 장점을 지니기 때문일 거야.

5문단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 ▶ 왜 그럴까?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다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이 별로 없겠지. 처음부터 많았으니까, 발색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겠지.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 ▶ Ct값이 뭐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수'라고 보면 되겠네. 초기 농도가 높을수록 이 Ct값은 줄어들 거야.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 ▶ 어떻게 표적 DNA의 농도를 안다는 걸까?
- ▶ 미지 시료에서 Ct값이 100이고, 표준 시료의 Ct값이 200이었다 해보자. 그럼 표준 시료의 초기 농도가 1%였다면, 미지 시료의 표적 DNA 초기 농도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 독해 Point

- 구체적 수치/사례를 넣어 이해하기
추상적인 정보를 이해할 때,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면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6문단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 DNA 증폭을 시키는 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구나.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 ▶ 그렇겠지. 표적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므로 바이러스의 DNA가 조금만 있어도 이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0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은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의 일부와 동일하겠지. 표적 DNA는 주형 DNA에 속해있었어.

▶ 그러면 주형 DNA에서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찾을 수 있을 거야.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사이클 1번 돌리면 표적 DNA는 2배가 돼. 즉, 처음에서 2배가 되는 시간이나,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모두 사이클 1번 돌리는 시간으로 같지.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전통적인 PCR은 실시간 PCR과 달리 PCR 과정 중에 아무것도 알 수 없어.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 이중 가닥 DNA를 단일 가닥 DNA로 분리하며 시작할 수 있어.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 당연한 거 아니야? 프라이머랑 DNA 중합 효소가 증폭의 핵심 재료였잖아.

0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중 가닥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표적 DNA에 붙어서 발색하는 거였어.

▶ 형광 표식 탐침은 단일 가닥 표적 DNA에 붙어 있다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되면 3단 분리되며 발색하는 거였어.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뤄진 거야.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이중 가닥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표적 DNA에 붙어서 발색하고, 형광 표식 탐침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되면 떨어져 나가며 발색했지.

▶ 둘의 핵심 차이 그 자체를 말하고 있네.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뤄진 거야.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사이클의 시작 시점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단일 가닥 DNA로 분리되는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발색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 이중 가닥 특이 염료에만 해당되는 얘기지.

03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 PCR은 표적 DNA의 초기 양이 적어도 그것을 증폭시키는 기술이었어. 증폭이 이뤄지면,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 그렇겠지. 실시간 PCR은 '특이 염료', '탐침' 등의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잖아. 전통 PCR은 그게 아니니 상대적으로 싸겠지.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 오히려 실시간 PCR로 해야 진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지. 사이클 종료 후에 발색 여부를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 과정 중에 이것을 확인하니까.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 PCR을 수행하려면 프라이머가 있어야 하고, 프라이머를 만들려면,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알고 있어야 해.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 ▶ 실시간 PCR은 실시간 증폭을 확인할 수 있겠지. 실시간으로 바이러스의 DNA가 증폭되는 걸 보면서 '음 바이러스에 감염됐군'이라 할 수 있겠지.

04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보기 2>

만약 ㉠가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가 (㉢) .

↓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가 (㉣)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가 (㉣) .

- ▶ 미지 시료의 초기 농도가 20%이고, 표준 시료의 10%라 해보자.
- ▶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른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미지 시료가 높을 거야. 둘 다 사이클 1번당 2배씩 증가하는데, 애초에 미지 시료의 표적 DNA가 더 많은 상태였으니까.
- ▶ ㉡: 따라서 Ct값이 미지 시료에서 n이면, 표준 시료는 2n이 될 거야. '일정 발색도'에 도달하기 위해 미지 시료는 사이클을 n만큼 돌려야 한다면, 표준 시료는 2n만큼 돌려야 하는 거겠지.
- ▶ ㉢: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어떻게? Ct값은 '일정 발색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이클의 횟수였어. 그럼 Ct값에서의 발색도는 둘 다 '일정 발색도'에 도달한 상태로, 같겠지.

- | | ㉠ | ㉡ | ㉢ |
|---|---------|---------|---------|
| ① |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 ㉡보다 많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 ㉡와 같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 (가) 세속을 떠남 → 자연으로의 동화 과정
- (나)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인식 태도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디딤문제 77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의 의미를 <보기>에 근거하여 해석해보면?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디딤문제 78

화자는 세속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이는가? 없어 보이는가? 만약 있다면, 1행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가?

◎ 독해 Point

□ 문학적 언어의 이해

'님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언뜻 보면 모순적이다. 그러나 문학은 이러한 모순을 허용한다. 이러한 모순성 속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상황/심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친/남친과 헤어지고, '나 이제 개한테 미련 없어!'라고 했으나 결국 상대와의 추억을 생각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지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디딤문제 77

위 참고

디딤문제 78

위 참고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 (가) 세속을 떠남
 → 세속에 대한 미련 + 자연에 동화되어 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

디딤문제 79

'관습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인물(화자/대상)

상황 · 심리

- (가) 세속으로부터 자연으로 들어온 상황
 → 세속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을 떨치고 편안히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심리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뻐 가꾼 것도 아니다.

디딤문제 80

<보기>와 관련지을 때, '누구'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디딤문제 79

위 참고

디딤문제 80

위 참고

02 ㉔,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㉔는 자연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돌아보는 관습들, 자연에 있기를 다짐했다가 포기하는 관습들을 의미해. 즉, 이 관습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란 같은 의미일 거야.

▶ ㉕는 차를 마시는 관습이야. 이는 화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적 사실이지. 절대자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도 해.

① ㉔는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화자는 '관습들'에 의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관습들' 자체를 돌아보는 게 아니야. 즉, 만약 돌아보는 것이 그리움의 표현이라면, '관습들'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움을 표현하는 행동양식 그 자체라 봐야겠지. 그리움의 대상은 '속세의 것들'일 테니까.

▶ 또한 시에서 화자가 미련은 갖고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나타나지는 않아.

㉔ 판단 Point

□ 견덕지 사고

특정 해석을 허용하기 위해선, 그 해석을 허용해줄 수 있는 글자 근거가 필요하다. 글자 근거가 없는 해석은 부적절하다.

⇒ 화자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관습들' 자체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② ㉕는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상 (나)의 화자는 사회적 고립의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화자가 혼자 있는 건 맞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볼 글자는 없어. (집에 혼자 있다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하지는 않으니까.)

㉕ 판단 Point

□ 주제와의 관련성(필자의 의도성)

필자가 해당 글을 쓴 의도, 즉 핵심 주제(상황·심리)를 생각해보자. 이것과 전혀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선지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 작가가 (나) 시를 쓴 이유가 '사회적 고립'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서는 아닐 것이다.

③ ㉔는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㉕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㉔는 어떠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드러내는 것이지. '서쪽 마을'을 바라보는 것도, 그것을 지향한다기 보다는 미련이 남아있음을 말할 거야. 화자는 속세에 미련을 가질 뿐이지, 속세를 지향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것들이 모두 지향이라 인정하더라도, ㉔ 자체가 '피안(≒해탈)'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지는 않아.

▶ (나)의 화자는 편안함을 가지고 차를 마시며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겨. 고즈넉한 저녁에,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㉕ 판단 Point

□ 4vs1

하나의 선지가 명백히 정답임(or 4개의 명백한 오답)이 확인되면 그 즉시 다른 선지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피안'에 대해 어휘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관습들'은 '지향'이라기보다는 '미련'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면 best였겠지만, 그것도 안 됐다면 넘기는 게 차선책이었다. 모르는 것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④ ㉔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㉕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속세를 돌아보지. 게다가 '다짐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행위'를 30번 반복하는 건 '내면의 갈등'이라고 볼 견덕지가 될 거야.

▶ 또한, (나)의 화자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 '고즈넉함'과 '담담함'은 '평정함'과 이어지는 글자들이지. 따라서 차마시는 '관습들'은 이러한 정서를 내포할 수밖에 없을 거야.

⑤ ㉔는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㉕는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 (가)의 주제와 자기 연민은 전혀 맞지 않아.

▶ (나)의 주제 역시 자기 위안과 전혀 맞지 않아.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 이전에는 흐려서 볼 수 없었던 자연을 점차 보게 되었다는 뜻일 거야.
 - ▶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건, 이제는 제대로 파악된다는 걸 전제해, 주제와 이어보면 점차 자연에 동화된다는 거겠지.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 한 가정의 고민(=상황과 처지)이 연기로 피어오른다(=시각화)로 해석할 수 있어.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 (가)의 '돌들'은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로 묘사돼,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야.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 화자는 '차 마시기'를 선호하지, 이를 '스스로' 한다는 건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낼 거야.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 화자는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경험적 사실로만 세계를 인식하지, '이제는'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 '편지 구절', '칫솔'은 자연이 아닌 세속의 일상에 대응되는 물건들이야. 이들을 생각하는 건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이고, 이는 '자연에 대한 동화가 완전하지 않다'는 심리를 보여주지.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디답문제 81

②를 최대한 논증해보자. '차를 마시는' 행위가 확장되는 것이 왜 위와 같이 해석되는가?

- ▶ 화자는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이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된다고 해. 이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거라 볼 수 있어.
- ▶ 여기서 '차를 마시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해당해. 이 경험적 사실이 곧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니 화자에게 (모든 것=경험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 즉, (보기)와 같이 화자는 모든 것을 '경험적 사실'로만 인식하겠다는 거야. '경험적 사실'을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걸 알 수 있어.

㉠ 판단 Point

□ 선지의 논증

실전에서는 모든 선지가 왜 맞는지, 왜 틀린지 분석할 수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판단력이 늘기 때문이다.

⇒ ②는 사후적으로 논증하는 연습을 꼭 해보아야 하는 선지다.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디답문제 82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 구절일까?

- ▶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자연에 들어와서 점차 자연과 동화된다고 해. 이 맥락에서 자연에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건 자연에 점차 동화되는 것(친숙해지는 심리)을 보여주는 거겠지.
- ▶ (나)의 화자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고 했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한 적은 없지. 오히려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디답문제 81

위 참고

디답문제 82

위 참고

죽든지'는 운명론적 태도(≒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해 회의하고, 경험적이고
 실재하는 현실에만 기초하여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에 해당하지.

◎ **판단 Point**

▪ **분절적 판단**

길고 복잡한 선지는 반드시 끊어가며 하나씩 판단을 진행하자.

- ⇒ '현실'이라는 한 단어를 날려 읽는 순간, 문제는 미궁 속에 빠진다.
 길고 복잡한 선지에서 더 꼼꼼하게 하나씩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있음을 알 수 있겠군.

- ▶ 화자가 특정 인식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이는 투영/투사에 해당해.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 '자연과의 동화'를 느끼며
 '여울물'과 '때까치들'을 바라보니 투사라고 할 수 있어.
- ▶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 했어. 이 맥락에서
 참새의 떨어짐을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건, '절대자'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읽어 읽기 알 수 없어요 [2013학년도 6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탐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 한용운(모든 건 절대자의 것) vs 이기철(모든 건 경험적 사실일 뿐)

⑤ (가)의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 (가)에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은 '돌들'이야. 이들은 모두
 자연물이고, 화자가 동화되고 싶은 대상이지. 따라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어.
- ▶ (나)의 '물은 물일 뿐'은, <보기>의 맥락에 따라 '절대자의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어. 근거는 ②와 같아.

◎ **판단 Point**

▪ **선지 간 연결성**

선지가 진술하는 내용의 방향성이 서로 같을 땐, 그 둘 모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음을 의심할 수 있다.

- ⇒ 실전에서는 ②가 살짝 의심됐다 하더라도, ⑤를 보고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 순간, ②와 ⑤는 정답의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문단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 ▶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왜 평가하는 거지?
- ▶ 기존 정책(=사건)의 효과와 앞으로 시행할 정책의 효과를 알고 싶어서겠구나.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 ▶ 왜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 vs '사건 후의 결과'를 비교해야 할까?
- ▶ 예를 들어, 어떤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여파를 조사한다고 해보자. 그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와 '화재가 발생한 후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하면, 화재 사건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거야. (실제로 내가 이 글을 처음 볼 때 떠올렸던 예시야.)

◎ 독해 Point

- 구체적 수치/사례 대입
추상적 정보를 이해할 때는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대입하여 이해해보자.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디딤문제 83

문맥상 '관측할 수 없는 가상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 뭘 소리지? 하나씩 끊어서 이해해보아야 할 듯해. 이 문장의 의미는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겠어.
-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파악한다.
- ▶ 먼저,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는 게 뭘 말일까? 아, 앞문장에서 얘기한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는 '가상의 결과'라서 관측할 수 없다는 건가 보다. 즉, '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화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가 '가상의 결과'가 되어버려, 실제로 관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거겠지. 이에 따라 '화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질 거야.
- ▶ 그래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거구나. 즉, '화재 사건이 발생한 시행집단'과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비교집단' 둘을 비교하면 화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거야.

◎ 독해 Point

- 이해하지 못한 문장은 다시 읽는다.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급하니까 마치 이해한 척 하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적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X ⇒ 표면적 의미 확보

디딤문제 83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 (실제 상황과 다른, 반대의 결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표면적 의미라도 챙겨야 한다. '어쨌든 ~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표시나 메모를 동원해도 좋다.

- ⇒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면, '어쨌든 비교집단이란 시행집단 둘을 비교하는 거네'라고 생각했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 ▶ 당연해. 사건의 정확한 효과를 살피려면, 그 사건 외에는 변수가 없어야겠지.
- ▶ '화재 사건'이 얼마나 재산 피해를 입혔는지 평가하려면, 비교집단과 시행집단이 '화재 사건' 외에는 재산상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야 할 거야.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이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 ▶ 직전 문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이 없었다면 결과의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사건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지.
- ▶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 '예성생의 수업으로 국어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집단(예성생 수업 들음)과 비교집단(예성생 수업 안 들음)을 구성할 거야. 이때, 두 집단은 예성생 수업 외에는 국어 성적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야 할 거야. 즉, 한쪽 집단이 국어를 더 잘한다든가, 나이가 더 어리다든가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두 집단의 국어 성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예성생 수업의 효과'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을 테니까. 즉, 두 집단의 초기 조건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지.
- ▶ 시험장에서는 이와 같은 예시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했을 거야. 물론 이 정도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생각은 못 했더라도 말이야.

◎ 독해 Point

- 실전에서는 50 사후적으로 150
실전에서는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 선지를 추려낼 만큼만 이해해도 좋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히 이해해서 오답 선지까지 완벽하게 논증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피지컬이 신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 ▶ 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할까?
- ▶ 완벽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러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면,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거야. 즉, 사건 외의 차이가 거의 없는 두 집단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
- ▶ 물론 '임의로 배정'이라는 것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납득할 수도 있어. 여기서 임의로 배정한다는 건 '랜덤으로' 표본을 구성한다는 건데, 이러면 결국 특정한 의도가 없이 표본이 구성되기 때문에 두 집단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 (다만, 이는 어느정도 배경지식이 필요한 납득이니, 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디답문제 84

이 문장은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문장을 읽고 면질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보먼?

- ▶ 왜 사람, 사회 문제 대상으로는 실험적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까?
- ▶ 랜덤의 방식으로, '사건 외에 차이가 거의 없는 집단'을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비슷하게 두 집단을 구성해도, 결국 사건 외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져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방해가 되겠지.
- ▶ 즉, 예성쌤의 수업으로 국어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집단(예성쌤 수업 들음)과 비교집단(예성쌤 수업 안 들음)을 구성할 때, 애초에 '평균 성적이 똑같고, 공부 환경도 똑같고, 학습 의지도 똑같고 등등'을 갖춘 두 집단을 구성하기 힘들다는 거야.
- ▶ 그럼 이제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올 거라 예상해볼 수 있겠어. 아마도 표본을 임의로 배정하는 실험적 방법과는 다르게, 초기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2문단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 ▶ 이중차분법이 뭐라는 거지? 앞에 나온 '실험적 방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지?
- ▶ 위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자. 아까 '실험적 방법'에서는 두 집단의 '결과'의 차이'를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했어. 그런데 '이중차분법'에서는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를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듯해.
- ▶ 와닿지 않으니, 또 사례를 들어 이해해보자. 가령 어떤 사건이 다음과 같이 두 집단에 영향을 끼쳤다 하자.
 -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 30 → 40 (+10)
 -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 50 → 70 (+20)
- ▶ 그럼 이 경우에 이중차분법은 사건의 효과를 10이라고 판단하겠구나. 반면 실험적 방법은 결과에 차이에만 주목하니, 사건의 효과를 30으로 판단할 거야.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 ▶ 평행추세 가정이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행한 변화의 추세'가 두 집단 모두에 나타날 거라는 '가정'이구나. 역시 잘 와닿지 않으니 수치를 대입하여 이해해보면 좋을 듯해.
-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될 땐, 시행집단에서 사건이 없었을 때 비교집단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해. 즉, 사건이 없었다면 두 집단의 변화량이 같아야 한다는 거지.
 -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 30 → 40 (+10)
 - 사건이 없었을 경우, 시행집단에서 일어날 변화 : 50 → 60 (+10)

디답문제 84 그럼 사람이나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다룰 때에는 어떻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지?

- ▶ 아,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은 '원래도 이 정도의 변화가 있긴 했을 건데, 사건 때문에 이 정도로 더 크게 변화했어!'라는 느낌이구나. 즉, '어차피 예성쌤 수업을 안 들어도 성적이 올랐을 건데, 예성쌤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더 많이 올랐어!'라는 느낌인 거지.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디답문제 85

지문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표면적 의미를 통해 이중차분법과 실험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질문 2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를 만들면?

- ▶ 왜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면 두 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같지 않아도 될까?
- ▶ 어차피 이중차분법은 '변화량'의 차이에 주목하는 거잖아. '초기 조건(사건 전의 상태)'은 차이가 있어도 된다는 거지.
- ▶ 이는 '실험적 방법'과의 차이점일 거야. 실험적 방법에서는 초기 조건을 거의 같게 만들어줘야 했는데, 이중차분법은 이로부터 자유롭겠지.

◎ 독해 Point

- **대칭점**
두 대상의 차이점(대칭점)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한 번 짚고 가자. 선지화될 것이다.
- **이해X ⇒ 표면적 의미 확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표면적 의미라도 챙겨야 한다. '어쨌든 ~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표시나 메모를 동원해도 좋다.
 - ⇒ 실전에서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나 역시 처음 이 지문을 대할 때 이해가 붕 뜨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둘이 주목하는 바가 '<두 집단의 결과 차이>나, <두 집단의 변화 차이>'이라는 대칭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했을 것이다.'

3문단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디답문제 86

다음 빈칸을 채워라.

스노는 초기 조건이 (달라도 되는 / 같아야 하는) 두 집단을 구성하고, 이 두 집단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변화량 / 결과) 이/가 같을 거야. 그리고 한쪽 집단에만 사건을 시행하여 (변화량 / 결과) 차이를 계산하여 사건의 효과라 평가하겠지.

- ▶ 이제 스노 형이 이중차분법 쓰는 얘기 나오겠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디답문제 85

- 1) 사건의 효과를 결과의 차이로 판단하는가? 변화의 차이로 판단하는가?
- 2) 두 집단의 사건 전의 상태(초기 조건)가 같아야 하는가? 달라도 되는가?

디답문제 86

달라도 되는, 변화량, 변화량

▶ 한 회사가 수원을 바꿨다 하니, 이 '수원 교체'가 바로 '사건'에 해당하겠지.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디답문제 87

스노가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왜 내렸는지, 구체적 수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라.

- ▶ 스노는 왜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 ▶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구체적 수치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을 거야.
 -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콜레라 사망률 변화 : 10 → 10 (+0)
 -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콜레라 사망률 변화 : 20 → 10 (-10)
- ▶ 즉, 수원 교체로 인해 콜레라 사망률이 -10만큼 변화했으므로, '물'과 '콜레라 사망률'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겠지.
- ▶ 그런데 왜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걸까? 비교집단과 시행집단에서 공기의 차이가 없었다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공기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량 차이가 공기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했을 테니까.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 ▶ 아마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집단과 도입하지 않은 집단에서 임금 변화량 차이를 계산했겠지? (이 두 집단은 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임금 변화의 크기가 똑같은 거라 가정했을 거야.)

4문단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 ▶ 당연하지. 사건 외의 변수가 '변화량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해당 변화량의 차이가 사건의 효과 때문인지, 다른 변수의 차이 때문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 ▶ 왜 ㉠에서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까?
- ▶ 평행추세 가정이려면,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변화량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의 경우에는 비교집단보다 시행집단에서 고용이 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야. 사건 이전에 이미 시행집단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 시행집단에서 사건을 시행해 고용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저평가 당할 거야.

디답문제 88

다음 빈칸을 채워라.

- 학습 의지가 충만한 학생들로 구성된 비교집단과 다르게,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들만으로 시행집단을 구성해서 '예성샘 수업의 효과'를 평가하면, 비교집단과

디답문제 87 해설 참고

디답문제 88 저평가

시행집단을 제대로 구성했을 때 비해 '예성샘 수업의 효과가 (저평가 / 고평가)당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슨 소리일까? 왜 이게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아지는 거고, 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이 보장되는 건 아닐까?
- ▶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건, <예성샘 수업을 듣기 전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그 학생들이 예성샘 수업을 들은 이후>를 '시행집단'으로 설정한다는 거겠지. 이 경우 집단의 구성원이 동일하기에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은 높아질 거야.
- ▶ 다만 그렇다고 해서 평행추세 가정 충족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집단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이 시기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평행추세 가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겠지.
- ▶ 가령, <예성샘 수업을 듣기 전 학생>들은 단순히 아직 어려서 학습 동기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 학생들이 예성샘 수업을 들은 이후>에는 수험생이어서 학습 동기가 충분한 상태라면, 이 두 집단 간의 성적의 변화가 '예성샘 수업'만이 원인을 아닐 거야. '시기적 차이 + 학습 동기' 등 사건 외 원인에 의해 성적의 변화가 나타나겠지.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고용 지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네. 비교집단과 시행집단의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 '평행추세 가정'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 ▶ 당연하지. 여러 검증을 거치면 신뢰도는 높아질 거야.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 역시 당연해.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겠지.
- ▶ 물론 위에서 말했듯, '통계적 유사성'이 만능은 아닐 거야. 고용과 같은 지표에서는 '동시성'이 평행추세 가정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디답문제 89

이중차분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를 3가지 서술하면?

디답문제 89

통계적 유사성, 검사 결과의 교차 검증(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 변화 발생의 동시성

01 읽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전·사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 실험적 방법에서는 초기 조건이 동일한 두 집단을 설정하고, 이 둘의 '결과 차이'를 사건의 효과로 평가했다. 한 집단만의 변화를 사건의 효과로 평가한 게 아니야.

◎ 판단 Point

▪ 명시적 근거 확보 후 네모 치기

어떤 선지에 확신이 든다면, 해당 선지에 대해서 명시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나머지 선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각하자. 이때, 네모 표시를 남기고, 추후에 나머지 선지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 실험적 방법은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로 볼 수 있지.

◎ 판단 Point

▪ 평가원은 조전한 정답을 내지 않는다.

평가원이 비핵심적인 내용에서, 판단의 근거가 애매한 데서 정답 선지를 출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혹시 이런 애매한 선지를 가지고 고민이 될 때는 이를 떠올리고, 다른 곳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 평행추세 가정은 사건 외의 변수가 '변화 차이'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가정이었어. '변화 차이'는 오로지 사건을 통해서만 만들어져야, 사건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야.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 이중차분법에서는 사건 외의 변수가 '변화 차이'를 만들어내면 안 돼. 그러나 '초기 조건'은 '변화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수가 아니었지.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초기 조건'은 서로 달라도 돼. 당연히 사건 이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 ▶ 스노의 결론은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거였어.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물' 때문이지,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지.
- ▶ 즉,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물'의 차이는 있으나,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봤을 거야.

02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어떤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 ㉠에서 시행집단은 사건(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크므로, 고용률 증가가 작을 거야. 일자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 ▶ 이런 상황에서 사건(프로그램)을 시행시켜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하면, 제대로 된(=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설정했을 때에 비해 그 효과가 저평가당할 거야.

	A	B
①	클	클
②	클	작을
③	같을	클
④	작을	클
⑤	작을	작을

03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사건이고, 이에 따른 '고용 변화'를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할 거야.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일어난 시행집단은 'P주 저임금 식당'이네. 나머지 두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비교집단에 해당할 거야.
 - ▶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 차이'는 3.4야. 즉, 사건의 효과는 3.4라 할 수 있지.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위에서 확인 가능해.

◎ 판단 Point

▪ 선지로 이해하기

선지를 통해서도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수정/보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 시행집단을 'P주 전체 식당'으로 잡은 친구들은, 이 선지를 보면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통계적 유사성이 평행추세 가정을 보장하진 않지만 신뢰도는 높일 수 있다고 했어.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비교집단을 무엇으로 택하든, 변화량의 차이는 3.4로 같아.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아까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중요하다고 했어. 시행집단의 변화와 비교집단의 변화 모두 1992년의 변화로 파악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거야.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교차 검증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했지.

◎ 판단 Point

▪ 이해가 완벽히 안 돼도, 최소한 정답만큼은.

실전에서는, 지문의 모든 문장을 빠짐없이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표면적 의미에 대한 처리로 '정답만큼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결국 수능 국어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이다. 지문과의 대조를 통해 '판건 모르겠는데, 이거 아님~'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 물론 사후적 분석을 통해 지문을 완벽히 훑어보는 경험은 해야겠지만, 위 3문제 모두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평가원 기출의 특징이다.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 선지만큼은 자명하다. 이의 제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박태보	임금의 부당함과 대결에서 패배 윤리적 책무를 끝까지 다함 → 도덕적 영웅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박태보	죽기 직전의 상황 (=명재경각)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해달라 청함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 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제원	박태보의 막중한 충을 모르고 죄를 혼자 당하게 한 것에 대해 사죄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상(왕)	박태보를 금부에 가두게 함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백성이 구름 피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인명이 오면 재천이옵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으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박태보	왕비의 환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및 요구
상	왕비를 내치고 태보는 유배 보냄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정배: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 (주유배)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박태보의 부인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지 못하고 되돌아 오 꿈에서 남편을 만남
박태보	작별 인사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오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박태보의 부인	꿈에서 박태보를 붙잡음 어린 제자 오륙 인을 보고 꿈인 걸 깨달음 박태보의 죽음을 예상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춘**에 개 짓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원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동일	박태보의 소식(→아마도 사망 소식)을 전함
대감 부부, 부인	통곡, 놀람, 슬픔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후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백성들	슬픔
박태보	스스로를 불효자로 낮추며 부모의 안녕을 바램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뒤편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연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대감, 판서 등	박태보의 장례를 치르고, 모두 애통해 함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량한데 어떤 아이 오록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붙들랴.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벼를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아이들	왕을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름
상	은신하여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애달파 함

애연하다: 슬픈 듯하다.

주제 (인물(화자/대상)·상황·심리)	
박태보	왕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함 죽을 때까지 도덕적 책무를 다하려는 의지
주변 인물들	박태보의 죽음을 슬퍼함, 왕에 대한 원망

01 읽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욕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차청**했다.
▶ 태보가 바라는 것은 부인의 환궁이었어. 본인을 어디로 이송해달라는 심리를 보이지는 않았지.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꿘다**.
▶ 부인은 꿈에서 박태보를 만났지. 그러다가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꿘어.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짐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대감은 과천으로 가서 아들의 초종례를 지냈어.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왕은 노래의 내용을 이미 엿들었어.
▶ 노래의 내용을 알고 싶었다면 노래의 내용을 물었겠지, 이름은 묻지 않았을 거야.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차세하** 보고했다.
▶ 형조 판서는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강' 보고 했어.

◎ 판단 Point

▪ 4vs1

우리의 목표는 4개의 명확한 오답 또는 1개의 명확한 정답을 찾는 것이다.

- ⇒ 꽤나 상세한 내용일치 문항이다. ②에서 일단 확신을 갖고, 나머지 선지의 판단 절차는 '일단' 생략하고, 검토 시간을 활용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02 읽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딤문제 90

아래 선지의 판단 근거들을 지문에서 찾아, 밑줄 쳐라

◎ 판단 Point

▪ 확인시키면, 확인한다.

상세한 내용 일치를 요구하는 문항은 정직하게 확인해준다. 잔머리 굴려서 급하게 풀다간 호되게 당할 것이다.

- ⇒ 지문 독해 단계에서 아래 선지의 내용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모두 챙겨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물을 때는 서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서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정확성과 속도가 내려갈 것이다.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금부 자체가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금부는 태보가 임금에 의해 가게 될 장소야. 임금은 금부에 있지 않았지.

▶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야. 몰래 아이들의 노래를 듣다가 시무룩해지는 공간이지.

▶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보자.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락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야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치진 민 중전이 거쳐해야 하는 곳이다.

▶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보자. (상이 구태어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보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짓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야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보자.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보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붓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디딤문제 90

해설 참고

0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A]는 제원들이 태보의 충심을 몰랐으며 미안함을 느끼고 위로하는 부분, [B]는 태보가 혼백이 되어서라도 왕비를 환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부분이다.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 [A]에서 제원들이 책임을 통감하며 탄식하고 있지만, [B]에서 태보의 자책은 나타나지 않아.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 [B]에서 태보의 목적은 본인의 무죄 소명이 아닌, 왕비의 환궁이지.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 [A]에서는 태보의 충심을 언급하고, [B]에서는 소신(왕비 환궁의 의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 제원들 간의 갈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 ▶ 태보의 상처는 만남을 통해 해소되지도 않았어. 죽었으니까, 만남 자체가 있을 수 없지.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 ▶ 태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어. 오히려 혼백이 되어서라도 왕비를 환궁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했지. (애초에 태보의 캐릭터가 후회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야. 끝까지 도덕적 책무를 다하려는 강인한 캐릭터지.)

◎ 판단 Point

- **인물의 캐릭터성으로 판단하라**
 지문에서 나타나는 각 인물의 캐릭터성을 따라가다 보면, '틀릴 만한' 선지와 '그럴 듯한' 선지가 추려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후보를 추리고 검증하자.

0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 하늘에서 태보가 무죄를 판명받고, '전고 충신'을 따르게 됐다면 이는 윤리적 명분을 인정받고, 도덕적 영웅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돼.
 - ▶ 그런데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고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한 건가? 지문을 살펴보자.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이 부분이 선지가 말하는 부분인 듯해.

◎ 판단 Point

-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그랬나' 싶은 태도로 선지에 대한 판단을 확신하면 안 된다. '그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답을 확정할 수 있다.
 - ⇒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고 전고 충신을 따르게 했다'는 것에 의심이 들었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문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①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
- ② 국을 잃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 태보가 한탄하며 결국 죽은 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 패배했다고 볼 근거가 될 거야.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 죽음을 전하는 편지에서도 부모의 안녕을 바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지.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 백성들이 부르는 주상을 비판하는 노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상이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되고, 신임되지 않음을 보여주지.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키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 ▶ 태보는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이 아니라, 윤리적 책무를 다한 도덕적 영웅이야.

◎ 판단 Point

- **<보기>와의 상충**
 <보기>의 내용과 상충하는 선지는 의심할 수 있다.
 - ⇒ <보기>에서는 태보가 세계와의 대결에 실패했음을 제시한다. 이는 ②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과 ⑤는 반대되고 있다.

1문단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 ▶ 이미지로 상상하면 좋을 듯해. 물이나 공기 속에서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이때 3가지 힘(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하는구나.
- ▶ 중력은 떨어지는 힘, 부력은 떠오르는 힘인 것 같고, 항력은 뭘까? 저항력일까?

◎ 판단 Point

■ 명칭으로 추론하기

어떤 개념어의 명칭이 나타나면, 해당 명칭을 토대로 그 개념의 의미를 예측해보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 **디딤문제 91**

위 문장을 토대로 중력 가속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을 예측해보라.

- ▶ 일단 수식이 나왔으니, 반사적으로 메모해두자.
 - 중력 = 중력 가속도 × 물체의 질량
- ▶ 그런데 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은 일정할까?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는 않을 테니,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겠지.

◎ 독해 Point

□ 수식·비례

수식이나 비례가 제시되면 그 관계에 대해 최대한 납득하고, 표시/메모를 동원하여 남겨놓도록 하자.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 ▶ 부력이 뭘라는 걸까? 문장 자체가 복잡하니까 천천히 끊어서 의미를 파악해보자.
- ▶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 역시 와닿지 않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이해해보자.
- ▶ 만약 물에 부피가 100cm³인 스티로폼 박스를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이때 스티로폼 박스에 작용하는 부력은 (스티로폼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 = 100cm³)만큼의 (물의 무게)일 거야. 즉, (100cm³만큼의 물의 무게)가 스티로폼에 작용하는 거지.
- ▶ 이때,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 그렇다면, 스티로폼이 물에 들어갔을 때 떠오르는 이유를 알 수 있겠다. 스티로폼은 질량이 낮아 작용하는 중력(내려가려는 힘)이 낮겠지. 하지만 이에 비해 부피는 커서 부력(올라가려는 힘)은 클 거야. 이에 따라 물에 넣은 스티로폼이 물 위로 떠오르겠지.

■ **디딤문제 91**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 **독해 Point**

■ 이해·납득X ⇒ 표시·메모

실전에서 이해/납득이 안 가는 정보는 어쩔 수 없다. 표시/메모를 남겨놓고 선지 판단 단계에서 참고하도록 하자.

- ⇒ 부력의 정의에 대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위의 서술만으로 부력이 뭘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최대한 의미를 파악해보되, 못 다한 부분은 서치할 결심으로 표시를 해둬야 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 **디딤문제 92**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작다. (O X)

- ▶ 직전 문장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해당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체의 무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 **디딤문제 93**

밀도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위를 납득해보고, 밀도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위 문장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정리해보라.

- ▶ 왜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수준인 것이 부력의 영향을 작게 할까?
- ▶ 공기의 밀도가 (물보다 1000배) 낮다면, 그만큼 '공기의 무게'는 낮을 거야. 결국 부력은 특정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값인데, 유체의 무게가 낮아지면 부력도 작아지겠지.
- ▶ 물의 밀도가 (공기보다 1000배) 높다면, 그만큼 '물의 무게'는 높을 거야. 따라서 물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만큼 커지겠지.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 ▶ 따라서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빗방울(물)에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고, 부력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겠지.
- ▶ 만약 밀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해 이 모든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표면적 의미로 처리하면 좋았겠지?
 - 물체의 밀도 ↑ 부력의 영향력 ↓
 - 유체의 밀도 ↓ 부력의 영향력 ↓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왜 스티로폼 입자에는 부력이 크게 영향을 미칠까?
- ▶ 밀도가 작은 만큼, 질량이 작아져,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일 거야.
- ▶ 역시 밀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해 이 모든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표면적 의미로 처리하면 좋았겠지?

■ **디딤문제 92**

X 부력은 물체의 부피 및 유체의 무게에 상관한다. 따라서 물체가 유체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있는지와 상관없다.

■ **디딤문제 93**

위 참고

· 물체의 밀도 ↓ 부력의 영향력 ↑

◎ **특해 Point**

▪ 이해·납득X ⇒ 표시·메모

실전에서 이해/납득이 안 가는 정보는 어쩔 수 없다. 표시/메모를 남겨놓고 선지 판단 단계에서 참고하도록 하자.

⇒ 중요한 건, 어쨌든 '부력의 영향력'은 '밀도'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이 점만 챙겼다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 **특해 Point**

▪ 이미지화

글을 단순히 글자들의 나열로 보면 안 된다. 글을 어떤 영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자.

⇒ 사실, 이미지를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쇠구슬과 스티로폼 공을 바닷속에 넣을 때, 어디에 부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까? 직관적으로 스티로폼 공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미지를 그렸다면 어렵지 않게 <부력의 영향력 ∝ 물체의 밀도>인 것을 알 수 있다.

2문단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 ▶ '항력'이 뭐라는 걸까? 쉽게 말해서, 저항력이라고 보면 될 듯해.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니깐.
- ▶ 위에서 물체가 낙하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왔으니, 낙하하는 물체에 항력은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위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 ▶ 그럴겠지. 운동 속도가 커질수록 저항하는 힘도 커질 거야.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 ▶ 일단 수식이니깐 메모하자.
 - 항력 = 마찰 항력 + 압력 항력
- ▶ 근데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은 뭐지? 설명해주겠지?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 ▶ 마찰 항력이 뭐라는 걸까?
- ▶ 말 그대로 유체와 마찰하면서 작용하는 항력이네.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마찰 항력은 커질 거야. 그냥 물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보다, 물엿과 같이 점성이 큰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더 마찰이 많이 될 테니까.
- ▶ 물체의 표면적이 큰 것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이 클수록 마찰되는 부분이 많아지니, 마찰 항력이 커질 거야.
- ▶ 어쨌든 비례 관계이니, 이 문장 위에 화살표 표시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

· 점성 ↑ 표면적 ↑ → 마찰 항력 ↑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 ▶ 압력 항력은 물체의 앞뒤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이구나.
- ▶ 왜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압력 항력이 커지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밑줄 쳐두고, 화살표 표시로 비례 관계를 정리해두자. 추후에 필요하면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거야.

3문단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 왜 작은 물체에서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일까?
- ▶ 작은 물체는 전후방의 압력 차가 매우 작대잖아. 즉, '압력 항력'이 매우 작다는 거지.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찰 항력이 클 것임을 알 수 있어.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 ▶ 왜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질까?
- ▶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면적도 커져 마찰 항력이 커지는 것보다도,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더 많이 커지기 때문일 거야. 즉, 마찰 항력보다 압력 항력이 더 많이 커지는 거지.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 ▶ 왜 아예 큰 물체가 낙하할 때는 마찰 항력의 비중을 무시할 만할까?
- ▶ 역시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면적도 커지겠지만, 그것보다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더 많이 커지기 때문일 거야. 즉, 마찰 항력보다 압력 항력이 더 많이 커지는 거지.
- ▶ 그럼 결국 3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네.
 - 크기 작으면 - 마찰 항력의 비중 ↑
 - 크기 크면 - 압력 항력의 비중 ↑

4문단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 ▶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일 거야. 빗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므로, 계속해서 중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낙하 속도가 추가되겠지.
- ▶ 낙하 속도가 증가하므로, 이와 반대로 작용하는 힘인 항력도 이에 상응하여 커질 거야. 위로 작용하는 힘인 '항력'과 '부력'의 합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인 '중력'과 같아지면,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 되겠지.

읽어 읽기 외부로부터의 힘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디딤문제 94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면, 빗방울은 정지한다. (O X)

- ▶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면, 물체는 기존의 상태를 변화 없이 지속하게 될 거야. 즉, 속도 변화 없이 낙하하게 되겠지.
- ▶ 만약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면,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장에 밑줄을 쳐야 할 거야. 어쨌든 글이 제시하는 FACT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력=항력+부력)이 되면 빗방울이 멈추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이 되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 일정 속도로 낙하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겠지.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 ▶ 유체 속에서 낙하 운동을 할 때 외에도, 수직 이동 또는 상승 이동을 할 때에도 힘의 평형(가려는 힘 = 막는 힘)이 발생하면, 속도가 일정해짐을 알 수 있어.

디딤문제 94

X 해설 참고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 스카이다이버는 큰 물체니까 압력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이겠지.
-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 압력 항력도 항력이야. 항력은 저항하는 힘이니까 속도를 감소시키지.
-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 종단 속도는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야.
 - ▶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으로, 0이 아니지. (만약 중력 가속도가 0이면 중력도 0이 되어야 해.)
-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 및 유체의 무게'와 상관하는 값이야. 항력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부피 및 유체의 무게는 변하지 않으므로, 부력의 크기는 일정할 거야.
-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 ▶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 유체의 무게'와 상관하는 값이야. 모양이 달라졌다 해서 부피나 무게가 변하지는 않아.

디딤문제 95

④, ⑥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 써라.

디딤문제 95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0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 ▶ A, B 모두 위로 상승한 걸 보면, 중력보다 부력이 큰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미지화하면, 헬륨 풍선을 생각하면 되겠지?)
- ▶ A, B 모두 위로 움직이고 있으니, 항력은 반대 방향인 아래로 작용하겠지.
- ▶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대. 그럼 B는 부력의 영향을 덜 받겠네. (친숙한 예시를 떠올리면, 완전 가벼운 헬륨 풍선A와 조금 더 무거운 헬륨 풍선B를 상상하면 될 거야. A는 부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B는 부력의 영향을 덜 받겠지.)
- ▶ A는 B에 비해 부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상승 속도가 빠를 거야. 이에 따라 항력도 점점 커져 특정 시점에 종단 속도에 도달하겠지.
-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 고정되어 있을 때는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작용하지 않아.
-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건, '종단 속도'에 다다랐음을 의미할 거야.
- ▶ A는 B에 비해 부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야. 항력도 이에 상응하여 커지겠지.
-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 부력과 중력은 부피나 무게(질량)에 상관하는 값이야. 이동 여부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지.
- ▶ 이동 여부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건 '항력'밖에 없어.
-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 A와 B 모두 처음에는 부력이 더 커서 상승 속도가 점점 증가해. 이에 따라 항력도 점점 증가하겠지. 결국 (부력=중력+항력)이 되어 종단 속도에 도달하겠지.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 ▶ B가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 있다면 B에 작용하는 부력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야. 아까 '유체의 밀도'와 '부력의 영향력'은 비례한다 했으니까. 즉, B의 상승 속도는 기존보다 더 빨라질 거고, 이에 따라 항력도 더 커지겠지.
- ▶ 이미지를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헬륨 풍선이 공기 중에서 상승하는 속도와 물(공기보다 밀도가 더 큼)에서 상승하는 속도 중 뭐가 더 빠를까? 물에서 상승할 때 더 빠를 거야. 즉, 물에서 상승하는 헬륨 풍선에 작용하는 항력이 더 클 거야. .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주인공

공적 가치(충) 및 사적 목표 실현

장 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㉔그 글에 하였으며,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 애재라!

오호 애재라 = 오호 통재라 = 아이 비통하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장애황

시랑의 영위 앞 → 슬픔(오호 애재라!)

◎ 판단 Point

- 심리의 근거를 잡는다.

근본적인 내면 심리를 잡기 위해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리에 대하여 ‘왜?’를 물어야 한다.

⇒ 장 소저는 왜 슬퍼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궁금하며 읽어야 한다.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장애황의 부친

대인과 혼인의 연(→서로의 자식 간 혼인)을 맺음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편섭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대인

모해로 유배를 감

부친

원통함으로 병을 얻어 별세

모친

부친 따라 별세

간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종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흠향하옵소서.’ 하였더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왕희

장애황의 혼인을 강제하려 함

장애황

도주 후 전쟁 영웅이 되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려 함
but 대인과 공자가 죽었다 생각하고 추모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㉑용궁을 떠나 여러 날만에 ㉒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흥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저의 상포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이대봉(공자)

부친(대인)과 용궁을 떠나 흥노의 머리 벤 것을 성상에게 올림

성상

장 소저의 앞길을 안타까워 함
장 소저의 상소문을 봄

◎ 판단 Point

- 애 누구지?

새로운 인물이 출현할 때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야 한다.

⇒ 중략 이후 첫 대목을 읽으며 ‘이 공자 대봉이 누구지?’ 라고 생각해야 했다.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담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훈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장애황

삭발 승려가 된 시어머니 양씨와 만남

일비일희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베타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장애황

왕희 부자를 엄히 다스리고,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 성상에게 요청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㉞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은 황궁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탑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㉟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버지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㊱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이대봉 부자

왕희의 모함으로 유배 감
유배 가던 도중 뱃사람에 의해 물에 빠짐
but 용왕이 구함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옵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버지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척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㊲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특남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이대봉

용궁에서 나와 부친의 유골과 어미를 찾고자 함
여러 곳에서 풀땀을 창작한 후 흉노를 물리침

◎ **판단 Point**

▪ 세부는 요약한 후 서치한다.

모든 세부 내용을 완벽히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해당 세부 내용을 거시적으로 요약한 다음,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그때 찾아주도록 하자.

⇒ 이대봉이 거쳐간 공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물어보면 그때 차분히 돌아와 보도록 하자.

흉노: 기원전 4세기부터 5세기까지 북아시아에 존재한 유목제국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지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디딤문제 96

위에서 말하는 ‘신의 부자의 죄’는 무엇일까?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이대봉

아버지와 재회 후 귀환
성상에게 사죄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진진지연(秦晉之緣): 혼인의 인연.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이대봉

자신 부자를 죽이려한 뱃사람이
왕희의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
→ 난신적자 왕희를 엄형해줘

주제 (인물(화자/대상)·상황·심리)

장애황

부모의 죽음, 대인과 이대봉(공자)의 죽음
→ 애통히 여김
왕희 부자가 참고육 당하기를 바람

이대봉

왕희 부자에 의해 아버지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나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남
흉노를 베어낸 후 왕희 부자가 참고육 당하기를 바람

디딤문제 96

유배를 보낸 상태임에도 황명을 듣지 않고 돌아옴

0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은 농서야.
- ② ㉡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차단한 공간이다.
▶ 이대봉이 흉노를 차단한 곳은 금릉(적장 동돌수를 벤 곳)과 천릉도(도망친 흉노를 벤 곳)야.
-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 장 한림 부부(장애황의 부모)는 유배를 가지 않았어. 유배를 간 건 대인 부자야.
- ④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백운암에 8년을 있다가 중원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네.
-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 동돌수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금릉에서 이대봉한테 죽었지.

◎ 판단 Point

- 확인시키면, 확인한다.

상세한 내용 일치를 요구하는 문항은 정직하게 확인해준다. 잔머리 굴려서 급하게 풀다가간 호되게 당할 것이다.

02 장 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 장애황의 글에서 부친이 꿈을 꾸고 대인(=이 시랑)과 진진지연을 맺었다고 나와있어.
-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장애황은 이 시랑은 '시운이 불리'하여 간신의 모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 장애황은 부친이 이 시랑의 유배(=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기 그릇됨) 때문에 분노했다고 했어. 이 시랑의 '죽음' 때문이 아니야.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복 도주했다.
▶ 왕희는 장애황과 혼인을 강제하려 했고, 이에 장애황은 변복 도주했다 나와있네.
-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 이대봉(=이 시랑과 양씨의 아들)과 혼인을 치루지는 않았지만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했지.

◎ 판단 Point

- 추론·의심

일단 선지를 훑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보자. 의심되는 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실전에서는 ①과 ②를 '모르겠는데'라는 마인드로 지나치고, ③에서 '영? 장애황의 부친이 병을 얻은 건 이시랑이 유배를 간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③을 의심하는 게 베스트였을 거다. 다른 건 몰라도, 인물의 '심리'는 핵심 정보 중의 핵심 정보다. 이를 챙겨왔다면 큰 서치 없이 ③을 먼저 의심하고,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0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뒷글의 ㉠과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 _____ [A]

선생님 : 네, 맞아요.

- ▶ ㉠은 장애황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대인(=이대봉의 부친)에게 그간 자신의 행적을 읊고 혼백을 위로하는 글이고, ㉡는 이대봉이 성상(왕)에게 그간의 행적을 읊고 왕희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글이야.
- ① ㉠은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 ▶ ㉠은 장애황이 망자라고 생각하는 이시랑에게 쓴 제문(애도의 글)이고, ㉡는 이대봉이 왕에게 쓴 표문(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은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 ▶ ㉠에서는 장애황이 이시랑이 원통하게 유배 가서 죽은 것을 위로하고, ㉡에서는 이대봉이 성상(왕)에게 왕희에게 벌을 내려달라 하지.
- ③ ㉠과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 ▶ 둘 다 자신보다 높은 상대에게 쓰는 글이야. 둘 다 스스로를 낮추고 있겠지.

◎ 판단 Point

- **추론·의심**
일단 선지를 훑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어긋나는 선지를 찾아보자. 의심되는 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 **4vs1**
하나의 선지가 명백히 정답임(or 4개의 명백한 오답)이 확인되면 그 즉시 다른 선지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두 글 모두 글을 읽는 독자가 필자보다 높은 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을 의심했다면, 다른 선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 ▶ 장애황이 ㉠에서 오해했던 사건은 '이 시랑과 이대봉의 죽음'이고, ㉡를 통해 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지.
- ⑤ ㉠과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 ▶ 명시되어 있어.

0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 장애황은 왕희와의 강제 혼인을 피하고, 이대봉과의 혼약을 이루기 위해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세웠으니,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야.
-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 장애황은 성상에게 왕희 부자를 엄벌에 처하고(공적 권위 존중), 그 뒤에 신첩에게 내어달라(사적 목표 실현) 했어. 이는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지.
- ③ 흥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 이대봉이 흥노와의 전투를 하러 간(=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이유는, 흥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했기 때문이야(=당위성).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 표류하던 이대봉은 천우신조(=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음)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했다(=사적 목표의 달성)다고 하지.
- ▶ 이 시랑과의 재회는 공적 활약에 해당하지 않아.
- ▶ 한편, 천우신조는 관용적 표현으로 실제로 비현실계의 존재가 조력했음을 의미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다'는 맥락에서 많이 쓰여. 따라서 '비현실계의 존재의 조력'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 ⑤ 이대봉이 흥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 ▶ 이대봉은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하는 건 '사적 목표' 때문이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흥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건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거야. 또한 이 대목에서 왕에게 예절을 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 판단 Point

- **선지 내 모순성**
선지의 앞뒤 호응을 잘 살펴보자. 앞뒤의 내용이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 부적절함을 의심할 수 있다.
⇒ ④는 보자마자 의심할 수 있었어야 한다. 앞부분에 '공적 활약과 대응되는 내용이 없는데, 뒷부분에서 '공적 활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문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 ▶ 왜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할까?
- ▶ 이름부터가 '공정' '거래' 위원회잖아. 당연히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주권(자유)도 확립할 수 있을 거야.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 ▶ 공정거래법은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이겠지?
- ▶ 표시광고법은 표시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법이겠지?
- ▶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 글의 내용이려나?

2문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뭐냐? 뭐길래 금지하는 걸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 ▶ 문장이 되게 길어. 본질적으로 끊어가며 이해해주는 게 좋겠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 확실하게 와닿지 않으니 예시를 들어보자.
- ▶ 만약 예성이가 예순이에게 사과를 1개 1000원에 팔면서 '야 너 이거 남들한테 팔 때 1200원에 팔아라'라고 명령한다 해보자. 이게 바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되겠구나.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 ▶ 꼭 판매 가격이 아니어도, 가격과 관련된 것(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을 강제하면 무조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되겠구나.
- ▶ 그럼 결국 예성이가 예순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지 않는 '이거 너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가 되겠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 ▶ 권장 소비자 가격 여부에 상관 없이, 강제성이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

보는 이유는 뭘까?

- ▶ 결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이 얼마나 보다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했는지의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겠지.

3문단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 ▶ 앞의 흐름을 토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 예성이가 예순이에게 가격을 강제할 경우, 예순이는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도 어려워질 거야.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 ▶ 유통 조직의 효율성은 왜 저하되는 걸까?
- ▶ 아마도 유통 과정에서도 유통 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타협해야 효율적인 가격대가 형성될 텐데, 이를 개인이 강제하다 보니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일 거야.
- ▶ 만약 실전에서 이처럼 납득된 게 아니라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모두 저하시키는구나'하면서 밀줄을 쳐줬으면 되겠지?

◎ 독해 Point

- **쉽다고 달리 말 것**
내용이 쉽게 전개된다 해서, 일정 속도 이상 가속을 주면 안 된다. 무심코 지나친 그 문장에 정답 선지의 근거가 실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서처럼, 지문 독해도, '최고 속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하니, 이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마라'는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벌금)을 부과할 거야. 이를 통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억제할 수 있겠지.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 ▶ 예외가 나타났어. 법 지문에서 예외는 항상 출제되는 POINT이니 이 문장예다가 밀줄 하나 남겨두도록 하자.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출판 저작물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는듯해. 왜일까? 잘 납득은 안 가. 직후 문장에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는 듯하니, 그냥 하나의 예외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 독해 Point

- **법 지문의 예외**
법 지문에서 법 적용의 예외가 나타날 경우, 이는 주요한 선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 '정당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되기도 한대. 왜일까?
- ▶ 1문단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런데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것보다도 소비자의 후생(=이익) 증대가 더 크다면 이를 인정해줄 수 있겠지.
- ▶ 하지만 그 정당성은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대. 왜일까?
- ▶ 일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건 세금 낭비일 거야. 사업자가 자신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인정받고 싶으면, 직접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게 효율적이겠지.

4문단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 ▶ 이제 '표시광고법' 얘기가 나오려나봐. 위의 '공정거래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 ▶ 일단 말 그대로, 광고에 대한 금지법인 것 같아.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 ▶ 그렇지. 광고도 일종의 '표현'이고, '영업'의 일부니까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겠지.
- ▶ 그런데 왜 그런 광고를 금지하는 걸까? 아마도, 아무 광고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앞 문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선 넘는 광고'를 금지하는 걸 거야.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 ▶ 그렇지. 허위, 과장, 기만 광고는 '선 넘는 광고'일 테니까. 금지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 '선 넘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구나.
- ▶ 아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었는데, '선 넘는 광고'는 형사 처벌까지 받는 차이점이 있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 더 엄벌에 처하는 거겠지.

5문단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 ▶ 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을까? 인터넷 광고가 늘어나면서,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광고가 많아졌기 때문일 거야.
- ▶ 즉, 부당한 광고(ex. 너튜브 뒷광고)와 정당한 광고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졌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 ▶ '추천·보증'이 뭐라는 거지?

- ▶ 일단 <사업자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거래, 당연하지. 만약 사업자가 자기가 만든 상품을 '추천'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추천'이 아니라 '자기 홍보'하는 거니까.
- ▶ 그리고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래. 즉,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런 거구나. 너튜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거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 ▶ 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을까?

- ▶ 당연한 거야. 만약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면 이걸 '허위/과장/기만 광고'가 될 테니까. '선 넘는 광고'가 되는 거겠지.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 이 역시 직전 문장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A를 근거로 추천·보증을 한다면 A가 사실과 부합해야겠지. 가령, 칼슘이 많이 든 우유가 키가 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천·보증하려면 칼슘 성분이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지식과 부합해야 할 거야.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 '유료광고 포함'

- ▶ 만약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한 경우, 위와 같은 표시를 게시물에 남겨줘야 한다는 거겠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 ▶ 사람들이 정말 이 게시물에 순수하게 '추천·보증'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님 광고를 위한 건지 알게 하기 위함일 거야. 쉽게 말해 '내돈내산'인지, '유료광고 포함'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지.

6문단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 ▶ 이용후기 광고는 또 뭐지?
- ▶ 소비자들이 작성한 '이용후기'를 사업자가 광고로 이용하는 거구나.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 ▶ 그럴것지. 인강강사들이 학생들의 성적 상승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거야.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 ▶ 이용후기 중에서 '이 쌤 별로예요'라는 이용후기를 무단으로 비공개/삭제하면 이게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구나.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 ▶ 그럴 수 있겠지. 해당 이용후기가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사실적이고, 공익적 목적인 이용후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구나.
- ▶ 이는 마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대가 크다면 용인된 것과 같은 이치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 위에서 차이점으로 확보하고 온 내용이야.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 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밑줄 치자고 했던 내용이지. 3문단의 초반부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유통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확인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에 납득했어.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 A를 근거로 한 추천·보증은 A가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했어.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지.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상대방 사업자에게 가격 강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이었어.

0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은 한 사업자가 관련된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야.
 - ▶ ㉡(이용후기 광고)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행위야.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 ㉡이 허용되려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했어.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디딤돌 97

이 선지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 치라.

- ▶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오히려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봐야겠지.

◎ 판단 Point

- 정답 선지에 한해서 명시적 근거를 확보한다.

모든 선지의 명시적 근거를 지문에서 확보하는 힘들다. 그러나 정답 선지에 한해서만큼은 명시적 근거를 지문에서 확보하려 해보자. 이렇게 교차 검증을 거쳐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순간적으로 사고가 꼬여 '재판매 가격 규제 행위는 한 사업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이걸 막는 공정거래법은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적인 사고의 꼬임은 방지하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허나, 정답 선지에 한해서 명시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지문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읽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 이를 금지하는 법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 ㉡ 역시 광고이므로,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 ▶ 그러나 이 이용후기 광고가 부당하다면, '표시광고법'에 의해 그 자유가 제한될 거야.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 ㉡(이용후기 광고)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행위라 했어. 사업자와 소비자는 구분되므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을 거야.

◎ 판단 Point

- 4vs1

우리의 목표는 4개의 명확한 오답 또는 1개의 명확한 정답을 찾는 것이다.

⇒ 실제로 처음에 ④를 읽었을 때 '사업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함만으로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나머지 선지가 명백히 틀렸다는 거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가장 적절한 것'이 ④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 ▶ ㉠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야.

디딤돌 97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상품의 효능이 뛰어난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판단 Point

- 선지 보기 전 생각 정리

선지로 닥돌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주관식으로 정리해두자.

- ▶ 갑은 상대방 사업자에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했어.
- ▶ 갑은 불리한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했어.
- ▶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A상품을 추천 보증한 광고가 게시됐어.
- ▶ 갑은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의 이용후기를 활용하여 광고했어.
- ▶ 갑은 불리한 이용후기를 게시한 병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어.

① 갑이 A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이나 모두 부당한 광고라고 했지.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 광고를 진행했다면, 그것이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해.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니 전문적 지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지. 따라서 부당한 광고로 제재를 받을 거야.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당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조건은 둘 중에 하나였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크거나, 출판된 저작물에 해당해야지. 권장 소비자 가격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 따라서 갑은 제재를 받을 수 있겠지.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게시한 이용후기는,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지.

⑤ 병이 A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 ▶ 사실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의 이용후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고향: 낭만적인 봄 → 비극적인 겨울(일제강점기)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A]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처.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고향의 풍경을 떠올림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B]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C]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풍족하지 못한 고향의 겨울을 떠올림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D]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복창을 열어 산을 향해 앉음
산	태고로부터 한결같이 푸르러 옴

고요하고 너그러운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산을 사랑하고 배우려 함
산	너그럽고 겸허함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산에 대한 애정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기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꽃을 베는 걸 보고 탄식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혜를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공교하다: 숨씨나 껍 따위가 재치가 있고 교묘하다.

졸렬하다: 천하고 옹졸하다.

디딤문제 98

화자가 제시하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라. 또, 이러한 깨달음을 '모란'과 '해당화'의 사례로 연결하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공교함과 졸렬함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다르게 해아릴 필요는 없음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어떤 것은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것은 천하게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가짐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뻥뻥**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뜬에 있기 때문인가?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디딤문제 98 깨달음: 졸렬함과 공교함을 다르게 해아릴 필요가 없다. / 모란이나 해당화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다르게 해아릴 필요가 없다.

디딤문제 99

위 대목에서 '요황과 위자'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는 것에 다 O쳐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어떤 것은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것은 천하게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가짐

◎ 독해 Point

▪ 세부 나열 ⇒ 상위 범주화

세부적으로 나열된 각각의 단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단어들 이 가리키는 상위 범주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운이 없기에 그 **造化(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천함**도 있는 것이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하늘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존재가 사사롭지 못한 인간에 의해 가치 우열이 가려짐

◎ 독해 Point

▪ 나의 말 바꾸기

지문에 나타난 표현이 명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한 '나의 말'을 떠올려 정리한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필자

하늘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동등한 대상들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가치 우열이 가려진다는 것을 깨달음

디딤문제 100

(가)~(다)의 주제를 짧게 정리하면?

디딤문제 99 뜨락, 성씨가 존엄한 것, 뿌리가 깊은 것, 높은 큰 것.

디딤문제 100 (가) : 비극적 거울을 맞던 고향의 기억

(나) : 한결같고 겸허한 산에 대한 애정

(다) : 하늘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동등한 것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가치 우열이 가려진다.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가)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비극적인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였어.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나)는 '산이 좋다'는 시야. 부정적 인식이나 회의와는 전혀 관련 없지.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다)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를 '가치 우열을 가린다'로 인식했어. 여기서 자연은 객체로, 인간은 주체로 나타나니 이 둘의 관계를 살핀 것도 맞지.
▶ 성찰은 내면을 '살펴보는(돌아보는)' 모든 행위를 포괄해. 따라서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도 인정할 수 있어.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다)의 주제는 모두 자연물 쇠락과는 상관없는 작품들이었어. 인생에 대한 무상감(허무감)과 이어지지도 않아.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 낙관? 일단 (가)의 주제가 '비극적'이었는데? (나), (다) 역시 주제가 '낙관적 전망'과는 잘 안 어울려.

◎ 판단 Point

▪ 필자의 의도

필자가 해당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던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야 한다.

02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쾌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보기>에서 화자는 고향을 회상한다 했으니, [A]에서 묘사되는 산기슭은 회상 속 고향의 모습·분위기를 나타낸다 볼 수 있을 거야.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보기>에서 화자는 고향을 회상한다 했으니, [B]에서 묘사되는 보리밭 풍경은 고향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 앞내강에 세레나무 밀려 나리면> 이 말은 맥락상 <비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 풍년 안 오네>일 거야. <보기>에서도 고향이 비극적인 현실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 따라서 이는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나타내는 부분일 거야.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D]에는 <피로 가곤 이삭이 참새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 <보기>에서도 고향이 비극적이라 했으니,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거야. 또한 <곰처럼 어린 농이 복극을 꿈꾸는데>에서 '복극'은 현실 너머의 세계일 거야. 화자의 고향이 '복극'은 아닐 테니까. (일제 강점기라는 정보에서 알 수 있지.) 따라서 소년은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꾼다고 볼 수 있겠지.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보기>에서 화자는 봄에서 겨울이 되며 악화되는 고향의 비극적 모습이, 일제 강점기로 인한 악화와 연결된다 했지.

03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의 화자는 '불변'하고 '겸허'한 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 '사람은 맨날 변해 쌀지만'에서 화자가 인간은 불변성을 지니지 못했다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반면에 산은 '태고로부터 푸르러 왔다' 했으니, 불변성을 지녔다고 인식하는 거야.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 '산'은 불변하고, 겸허하며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 '덕성 표면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지.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 지문에서는 산이 이승과 저승에 다리를 놓는다고 해.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야.

◎ 판단 Point

▪ 낱덕지 사고

내가 이 작품을 읽으며 그러한 해석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도 될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 '고향인 산', '날마다 그리운 산'이라 하므로,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그리워한다고 볼 수 있어.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 ▶ 산을 보고 있으니, 현재 함께하면서도, ③의 내용처럼 계속해서 함께할 존재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어.

04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 글쓴이는 공교함과 졸렬함(가치 우열)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았어. 그저 하늘의 입장에서 동등한 게, 인간한테는 아니라는 깨달음을 제시했을 뿐이야.
- ② 화초의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사사로운' 때문에 가치 우열이 생긴다 하였지.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 화자는 그저 하늘의 입장에서 동등한 게, 인간한테는 아니라는 깨달음을 제시했을 뿐이야. '가치 우열을 두는 주체가 누구여야 한다~'는 식의 교훈을 주는 글이 아니었지.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 정확한 주제야. 하늘의 입장에서는 가치 우열이 없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가치 우열이 생긴다고 했지.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 균형을 도모하자는 의견의 글은 아니었지.

05 묵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 (가)에서 고향은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묵화'나 '박쥐 나래' 역시 고향을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시어이고, 어두운 이미지이니,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볼 수 있어.
 - ▶ (나)에서 산은 필자가 애정하는 대상이니, 그의 '품' 역시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볼 수 있지.
- ② (가)에서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 (가)에서 '묵화'와 '황혼'은 비극적인 고향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나타나는 시어들이므로, 고향의 현실적 상황과 대응된다 볼 수 있겠지.
 - ▶ (나)는 애초에 '절망적 상황'을 다루는 글이 아니야.
- ③ (가)에서 '묵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 (가)에서 '묵화'에 '좀이 쳐'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 (나)에서 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본 적 없어. 줄곧 지향의 대상이었으니까.

좀이 치다: 좀벌레가 먹다

- ④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어머니**를 나타낸다.
- ▶ (가)에서 '묵화'는 고향을 나타내. 이를 '그림 조각'이라 했으니 분절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거야.
 - ▶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는 건, 산과 연결되는 이미지야. 즉, 선망하는 세계와 연결된 이미지를 나타내지. 또한 '산에서도 산을 그리며', '산 품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도 주제상 화자는 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움'이라는 말만 가지고 화자랑 산이랑 분리되어 있다고 속단하면 안돼. 하나의 단어만 보고 판단하기 금지!)
- ⑤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 ▶ (가)에서 '모매꽃'은 빈바구니를 들고 오기에 부끄러워 하는 가시내의 표정을 부각하는 소재야.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낸다고 할 수 있지.
 - ▶ (나)는 애초에 '안타까움'과 상관없는 글이야. 산에 대한 지향과 예찬이 주로 나타나는 시지.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 (가)는 어두운 고향(산골 마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야. '호롱불'은 이러한 고향(산골 마을)의 풍경에서 나타나므로,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 (가)는 고향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니,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건(=객지로 떠나는 현실) 고향에서의 삶의 불안정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거야.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 (나)에서는 불변하는 산과 변하는 인간을 비교했어. 그렇다면 불변하는 산이 등진 '장거리'는 속세와 연결되는 대상일 거고, 이는 이해관계가 얽혀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지.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 (다)의 주제와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함'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 ▶ 선지의 말대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은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글자이지, '적막함'을 환기하기 위해 사용된 구절이 아니야. '적막함'과 관련지를 만한 글자가 주위 맥락에 전혀 없으니까.

적막하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 판단 Point

▪ 주제와의 관련성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지는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선지까지 하나하나 서치하면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될 수 있다.

⇒ '오 장막 안? 꽤 적막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선불리 고르면 안 된다. 이 지문이 '무언가가 적막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적막함'은 주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역어 읽기 필자의 의도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난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X)

→ 이 지도가 '천하의 지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이 글의

주제는 '우리 모두는 물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천하의 지도인 것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필자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는 물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 **판단 Point**

▪ 선지 내 모순성

선지의 앞뒤 호응을 잘 살펴보자. 앞뒤의 내용이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 부적절함을 의심할 수 있다.

- ⇒ 선지의 앞부분에선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은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뒷부분에서는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은 '적막함'을 환기한다고 한다. 앞뒤 호응이 긴밀하지 못하다. 이 자체로도 이 선지는 '일단' 의심스럽다.
- ⇒ 물론 이 지문의 주제가 <귀하게 여겨지면 뭐하나. 적막한데>거나, 주변 맥락에 <적막함>과 이어질 만한 글자가 존재한다면, 이 해석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문의 주제는 '적막함'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주위 맥락에도 '적막함'으로 해석할 만한 글자가 없다. 따라서 부적절하다.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디딤문제 101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본질적 가치의 동등성을 강조하는군. (O X)

- ▶ 어떤 풀은 '소'의 먹구멍을 채우고, 어떤 풀은 '나비'로 하여금 찾게 해. 이는 어떤 풀은 하찮게 여겨지고, 어떤 풀은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지. 따라서 이 둘의 귀하고 천함이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구절로 볼 수 있어. 다만 이들은 하늘의 입장에서 동등하므로, 다르게 헤아릴 필요는 없는 대상들이야.

◎ **판단 Point**

▪ 귀류적 판단

'A가 드러난다'의 판단이 애매해질 때는 'A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로 뒤집어서 판단해보자.

- ⇒ 위 선지를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로 바꿔보자.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힘들 것이다.

◎ **판단 Point**

▪ 해석의 공존성

본인이 A라는 해석을 했다 해서 B라는 해석이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니다. A와 B의 해석이 공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가령, <빨간색 사과나 초록색 사과나 달고 맛있는데 달리 볼 게 뭐 있는가?>라는 구절에서는, '빨간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내면서, 결국 '달고 맛있다는 공통적 속성을 강조한다. '차이점'과 '공통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문장인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만 해석을 물면 안 된다.

1문단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 ▶ 뭘 상황이지? E가 “처음 승소시 수강료 낼게요”라고 P와 약속(계약)한 거구나. 살짝 헛갈릴 법 하니, 메모해주는 게 좋겠어.
- E 승소 → 수강료 지급

◎ 독해 Point

- 헛갈리면 정리한다.
- 어떤 정보가 헛갈릴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 ▶ P는 왜 E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걸까?
- ▶ E가 소송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소'할 일도 없었을 거고, 이에 따라 P는 수강료를 지급받지 못했을 거야. P는 수강료를 받기 위해 E를 소송한 거구나.
- ▶ P가 이제 E에게 강제로 소송을 개시했으니, E가 승소하면 P는 수강료를 지급받을 수 있겠네.

◎ 독해 Point

- 예측하며 읽기
- 머리가 눈알보다 빨라야 한다.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확인하는 식을 글을 읽어야 한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디딤돌 102

위에서 언급하는 '판결'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 ▶ 왜 P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될까?
- ▶ 애초에 P가 건 소송이 'E가 저에게 수강료를 안 줘니다. E한테 수강료 지급하라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겠지. 만약 이 소송이 P의 승소로 끝나면 법원은 E한테 'P에게 수강료를 지급하세요'라는 판결이 나오겠지. 이에 따라 P는 수강료를 받게 될 거야.
- ▶ 근데 왜 P가 패소해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받는 걸까?
- ▶ P가 패소하면, E가 승소한 거잖아. 그럼 위의 계약(E 승소 → 수강료 지급)에 따라 P는 수강료를 지급받겠네.
- ▶ 사적 계약과 공적 판결 중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 수강료 지급 여부가 달라지네.

◎ 독해 Point

- 헛갈리면 정리한다.

디딤돌 102 판결의 내용: P에게 수강료를 지급하세요, 계약의 내용: E가 처음 승소하면 P에게 수강료 지급

어떤 정보가 헛갈릴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왜 E는 반대로 주장하는 걸까?
- ▶ E 역시 자신이 승소하면 판결의 내용이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일 것이므로 수강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겠지.
- ▶ 또한 E 자신이 패소하면 계약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므로 수강료를 안 낸다는 소리네.
- ▶ 만약 이 흐름이 납득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거야.
 - P의 주장: 내가 이기든 지든 수강료 받을 수 있음
 - E의 주장: 내가 이기든 지든 수강료 안 낼 수 있음

◎ 독해 Point

- 표면적 의미 확보 & 요약
- 어떤 정보가 이해/납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소한 표면적인 의미를 요약하여 정리라도 해야 한다.

2문단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 ▶ ㅇㅇ 즈갈.. 아니 어려운 문제긴 하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 ▶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 ▶ 그렇지. E가 '처음으로 승소(=실현되지 않은 사건)'해야 '수강료 지급'을 하겠다 했으니까.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①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 ▶ '부관'이 뭐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거로, '기한'이나 '조건'이 있대. 잘 와닿지 않으니 위의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해보자.
- ▶ <처음 승소를 하면 → 수강료 지급>라고 했을 때 '처음 승소를 하면'이 '부관'으로 덧붙인 '조건'에 해당하겠지?
- ▶ '기한'은 말 그대로 시간적인 속성일 거야. 가령 <1년 후에 → 수강료 지급>이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부관'으로 덧붙인 '기한'에 해당하겠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 ▶ 기한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건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래. 왜 그럴까?
- ▶ 위에서 이해한 내용대로일 거야. '기한'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충족되지만, '조건'은 충족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테니까.

◎ **특해 Point**

▪ **개연성 vs 필연성**

개연적 진술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가령, '내일 비가 올 수 있다'는 개연적 진술로, 내일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필연적 진술은 100%다. 가령 '내일 비가 온다'는 필연적 진술로, 비가 오게 100%라는 진술에 해당한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 ▶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정지', 효과를 소멸시키는 건 '해제'구나.
- ▶ 세부 정보기도 하고, 헛갈릴 것 같으니 표시를 남겨두도록 하자. 선지에서 물어보면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거야.

3문단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 ▶ 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더 이상 다룰 길이 없어지는 걸까? 말 그대로 '최종' 판결이잖아. 또 판결을 내릴 거면 '임시' 판결이라 이름을 지었겠지.
- ▶ 그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겠어.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 기판력이 뭐까?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 ▶ 기판력은 쉽게 말해서 '재소송을 막는 힘'이라는 거네.
- ▶ 즉, 최종 판결이 이뤄지고 나면, 기판력이 생겨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 확정 판결이 났으면 더 이상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 ▶ 왜 계약서가 발견됐음에도, 다시 소송하지 못할까?
- ▶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판력'이 생겼기 때문일 거야. 계약서 발견한 사람은 억울하긴 하겠네..ㄸ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그렇겠네. 한 번 확정 판결이 나오는 순간, 기판력에 의해 더 이상 새로운 판결이 불가능해질 테니까.

4문단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 ▶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재소송이 가능하다고? 왜지? '새로운 사정'이 뭐길래? 법률 지문에서의 예외는 선지에서 중요히 다뤄지니, 신경 써서 읽어보자.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 ▶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기존의 소송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소송에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기판력' 또한 없다고 볼 수 있겠지.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 ▶ 기존 계약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판결 이전에 작성됐으니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 그럼 '새로운 사정'은 대체 어떤 경우인 거지?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디답문제 103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새로운 사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표면적 FACT는 2가지가 있다. 이 2가지를 파악하면?

- ▶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왜 재소송이 가능해지는 거지?
- ▶ 아마도 '계약 기간의 만료'는,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해당되기 때문일 거야.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으니, 이전과는 다른 소송이 되어 재소송이 가능해지는 거겠지.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디답문제 104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 ▶ 이게 뭐 소리지? 왜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권리에 변화가 생길까? 위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자.
- ▶ 아, 위의 예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이제 정당하게 집을 비워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납득할 수 있네.

디답문제 103 '계약서의 발견'은 '새로운 사정'이 아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는 '새로운 사정'이다.

디답문제 104 해설참고

5문단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 1문단의 내용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해결될까?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디딤문제 105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무엇인가?

- ▶ 뭐라는 거지? 왜 E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거지?
-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에서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 아까 P와 E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자.
 - E 승소 → 수강료 지급
- ▶ 여기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건, 'E 승소'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은 수강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볼 거야.
- ▶ 결과적으로 E가 승소하게 되고, 이 판결에 따라 P는 수강료를 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디딤문제 106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P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 ▶ 응? 무슨 조건이 실현됐다는 거지?
- ▶ 아 그렇네!! 위에서 '조건'은 'E 승소'였잖아. 이 조건이 이제 달성했으니, 이에 따라 P는 정당하게 수강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날 거야. 이러한 권리의 변화는 '새로운 사정'에 해당한다 했지.
- ▶ 즉, 위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의 만료'가 '새로운 사정'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E 승소'가 '새로운 사정'에 대응하는 거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 ▶ 그렇지.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 계약상의 조건을 실현시킨 거고, 이에 따라 '수강료 지급'을 해줘야 할 거야. 다음이 계약 내용이었으니까.
 - E 승소 → 수강료 지급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 ▶ 왜 재소송이 불가능할까?
- ▶ 재소송을 하려면 '새로운 사정'이 생겨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정'이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일 거야. 즉, 추후에 새롭게 달성될 만한 계약상의 조건/기한이 없기 때문이겠지.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납득한 내용이지.

디딤문제 105 해설참고

디딤문제 106 해설참고

01 읽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기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 했지. '승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므로, '조건'에 해당할 거야.

▶ 직관적으로 봐도, '승소'는 시간적 속성을 지니지 않아. 당연히 '기한'이 아니겠지.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전자는 기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후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야. 둘 다 장래(미래)의 사실에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해제 조건이 뭐였는지는 표시해줬으니 확인해보자.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 적절한 선지네.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상소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했어.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지문에서 납득하고 온 내용이야.

02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계약(E 승소 → 수강료 지급)에 따르자고 할 경우 수강료 지급을 못 받을 거거든. E가 아직 승소한 적 없는 상태니까.
 - ▶ 첫 번째 소송에서 E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거야. 계약(E 승소 → 수강료 지급)에 따르자고 할 경우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역시 E가 아직 승소한 적이 없는 상태니까 그럴겠지.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 첫 소송에서는 E가 승소한다고 했어. E가 승소한다는 건, E가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 P는 언제나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할 거야. 그 외의 주장을 할
 - ▶ 첫 번째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했어. 즉, (E가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겠지. 이것이 E의 승소가 된다는 것은, 애초에 P가 주장한 내용이 (E가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일 거야. 애초에 1문단에서 P가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라고 주장한 것도 일맥상통할 거야.
 - ▶ 두 번째 소송 역시 P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일 거야. 이때는 조건이 실현되었으니 P가 승소하겠지.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②에서 확인한대로, 첫 소송에서는 E가 승소해. 이에 따라 E는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가 되어,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지.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 ▶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의 내용이 상반되는 건 맞는데 하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첫 번째 판결의 내용을 뒤집고 두 번째 판결의 내용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소송을 다루는 거니까.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 (가)에서는 '기한'이나 '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즉, '권리의 변화'가 있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날 여지가 없어.
 - ▶ (나)에서는 11월 30일이 지나면 '권리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거야. 따라서 재소송이 가능해지겠지.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 (가)에서 판결은 확정되었어. 확정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룰 길(상소)이 없다 했지. 다만 새로운 사정이 생긴다면, 새로운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새로운 사정이 생길 사유가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기존 계약서의 발견은 '새로운 사정'이 아니라 했어. '새로운 사정'은 '조건'의 실현'이나, '기한의 만료'에 따라 권리의 변화가 생겨야 해.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 11월 30일 이전에는 '새로운 사정'으로 나타날 게 없어. 따라서 재소송을 할 수도 없고, 확정 판결에 따라 을은 금전을 갚지 않아도 돼.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11월 30일이 지나면 '계약 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거야. 따라서 재소송을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전축 :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리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 ▶ 계약서의 발견은 '새로운 사정'이 아니야. 이걸 근거로 재소송을 할 수 없지. 재소송을 하려면 권리의 변화가 생기는 11월 30일이 지나야(=계약 기간의 만료) 해.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숙이고 나는 떠났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많은 것들을 배반하고 떠나옴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춘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쫄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여러 대상들

나를 떠나 보내며 슬퍼함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파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떠나와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태평하게 생활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디딤문제 107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는
무엇을 보여주는 시구일까?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시간이 흐르고, 슬픔을 못 이겨 고향으로 돌아옴

디딤문제 107 세월의 흐름. 시간의 경과.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 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과거의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 남아 쓸쓸함

디딤문제 108

윗글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
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통해
생가의 시린 기억을 떠올림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히

나의 생각 같았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통해
생가의 시린 기억을 떠올림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디딤문제 109

디딤문제 108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회한과 자책

디딤문제 109 시간의 경과. 과거와 현재의 단절감. 화자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뿐, 그 기억과 서로 소통할 수 없음 → 그리움과 슬픔을 심화

‘나를 못 알아보고’가 부각하는 건 무엇일까?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갠 땀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머니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떼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물고기에 가족들의 모습을 투영, 그리움

디딤문제 110
 윗글의 주제를 정리하면?

<보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늙은 나무	인간의 도움을 받아 자라남

(다)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웅이가 쪼고 가지는 구불구불 뺨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①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쇠뿔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디딤문제 110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운 기억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늙은 나무	편안한 그늘이 있음
필자	늙은 나무의 그늘 아래서 편안함을 느낌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대체의 풀과 나무	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음
늙은 나무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음

◎ **판단 Point**

- 범주의 구분
 두 범주가 구분될 때는 이를 확실하게 나눠주는 편이 좋다. 선지에서 이들의 속성을 뒤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툭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攄文院老樞記)」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늙은 나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함 like 암소 인간의 도움 덕에 번성하게 자람

디딤문제 111
 윗글의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디딤문제 111 인간의 도움을 받고 무성히 자란 늙은 나무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가)~(다) 모두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는 시가 아니야.

◎ 판단 Point

▪ 필자의 의도

필자가 글을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틀린 선지를 빠르게 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다)는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기 위한 글이 아니지.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은 웬만한 문학 작품에 다 드러나. 또, 모두 '나'가 등장하는 작품들이므로, '나'의 인식은 당연히 나타나겠지.

▶ 근거를 확인해보자.

- (가)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 고향을 태반에 빗댄
- (나)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 물고기를 생가의 식구들에 빗댄
- (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 늙은 나무를 가축에 빗댄

◎ 판단 Point

▪ 오래 맞는 표현

문학 작품 전반에 적용되는 선지의 표현(ex. 분위기를 드러낸다. 행동을 통해 심리를 암시한다 등)은 일단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실전에서는 ③에서 일단 답이라 생각하고, 네모 치고 넘어가도 됐을 것이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다) 모두 경외감을 드러내기 위한 시가 아니야.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다)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시가 아니야.

02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태반'은 화자가 떠나오고, 다시 돌아간 고향이야. 돌아간 고향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서, 화자는 슬픔을 느끼지.
- ▶ '생가'는 화자가 물고기를 보고 떠올린 유년 시절의 기억이야. 이 기억에서 화자는 그리움을 느끼지.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가)의 화자는 돌아간 고향(태반)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서, 화자는 슬픔을 느끼지.

▶ (나)의 화자는 '생가'의 기억에 마음을 두고 있어. 이는 그리운 마음으로, '서글픔'이라는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소외감/수치심은 (가)와 (나)의 화자가 겪는 감정이 아니야.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 (가)에서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는 시점은 '옛날'이야. 이때는 큰 슬픔이 없이 이별을 수용하고 떠나왔지. 하지만 '태반'에서는 오히려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어.

▶ (나)의 화자가 만남을 기억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어.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큰 불평·불만 없이)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슬픔을 느끼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 그리움을 느껴.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저항**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 (가)와 (나) 모두 '생명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는 시야.

03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난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여를 속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 열거는 동질성을 부여해. 제목을 참고할 때, 화자가 떠난 곳은 '북방'이므로, 이들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이라 볼 수 있을 거야.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디딤문제 112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상징한 대상이 무엇일까?

-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마치 인간인 것처럼 슬픔을 느낀다고 하니, 의인화에 해당해.
- ▶ 화자가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픔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떠날 때에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픔을 느꼈다는 걸 전제해.

㉢ 판단 Point

▪ 선지의 중의성

선지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만약 판단 결과가 의미에 따라 달라질 경우 판단을 보류한다.

⇨ 적지 않은 학생들이 '화자는 떠날 때 슬프지 않았다'는 이유로 ㉡를 틀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는 '화자가 느낀 슬픔'의 주체가 '화자'인지, '자연물'들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즉, 슬퍼하는 것이 화자인지, 자연물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만약 '화자는 떠날 때 슬프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더라도, 선지의 의미를 전자로 해석하면 틀렸고, 후자로 해석하면 맞다. 따라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 물론 '화자는 떠날 때 슬프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인식은 투영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슬퍼하지 않는 자연물들을 슬프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화자의 슬픈 마음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떠날 때는 그 슬픔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뿐이다.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로춘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 ▶ '~것도'가 반복되니 유사한 통사 구조가 제시되었다 할 수 있어.
- ▶ 화자는 북방(고향)에 있는 대상들이 자신과 이별하던 때를 '잊지 않았다'고 했으니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차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 ㉣의 시구가 ㉢에서 반복되고, 살짝 바뀌어 있으니 변주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그러나 ㉣은 고향을 떠날 때의 상황, ㉣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이야. 일치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 화자가 '그리운 것, 사랑하는 것'이라 부르므로,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이 '없다'고 하니 '부재함'을 표현한 거라 할 수 있지.

0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답문제 113

화자의 기억이 '시린' 이유를 추측하고, 그 근거를 대면?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 보고 있군.
 - ▶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흘러'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 ▶ 화자는 물고기들(=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흘러'진다고 했지.
- ③ '젓을 갖 떼어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각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 화자가 보는 물고기들은 모두 '생가의 사람들'로 볼 수 있어. 여기서 '어린 것들'은 유년 시절 생각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지.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각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다답문제 114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투영된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 ▶ '비좁은 구석방(=깊은 데)'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은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 '어미들'이야. ③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들은 유년 시절 '부모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겠지.
 - ▶ 유년 시절의 화자가 '외따로(홀로 따로)' 지내야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물고기들이 화자를 못 알아보는 하지만, 이런 '현재'의 화자를 못 알아보는 거야.)
 - ▶ 그렇다면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투영된 유년 시절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난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던 부모의 모습이겠지.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각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각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구절은 화자의 마음이 유년 시절의 기억인 '생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거야.

다답문제 113 '사방 쪽방', '찬 마루', '비좁은 구석방' 등의 표현을 볼 때 화자의 유년 시절 생가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답문제 114 해설 참고.

05 ㉓와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㉓(살얼음의 창)는 화자와 '물고기네(유년 시절 생가의 기억)'를 매개하고 있어.
- ▶ ㉔(기둥)는 늙은 나무에게 필요한 '인간의 도움'을 말해.

① ㉓는 **화자의 불안—심화**하는, ㉔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 ▶ (가)의 화자는 그리움을 느낄 뿐 불안이 심화되지는 않아.
- ▶ ㉓는 필자의 의지를 북돋는 게 아니라, 늙은 나무에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필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

② ㉓는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㉔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 ㉓(살얼음의 창)는 매개물일 뿐 이상향은 아니야.
- ▶ (나)의 필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뿐 태도를 전환하려 하지는 않지.

이상향: 완전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③ ㉓는 ㉔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 ㉓(살얼음의 창)는 매개물일 뿐 책임감이랑은 상관없어.

④ ㉓는 ㉔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 ㉓는 필자가 아닌 '늙은 나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지.

⑤ ㉓와 ㉔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㉓를 통해 '물고기'를 보므로 주목의 계기라고 볼 수 있어.
- ▶ (나)의 필자는 ㉔를 보고,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㉔가 '늙은 나무'에 새롭게 주목하게 된 계기라 볼 수 있지.

06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A] _____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피 주었기 때문입니다.
 - ▶ '늙은 나무'가 번성히 자란 것은 '인간의 도움' 덕분이라 했어.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늙은 나무'의 '그늘'로 필자가 편안한 기분을 느낀 것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있지.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는 '늙은 나무'와 '인간' 사이에서 나타난 일이야. '풀과 나무'는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계책을 만든 경우에 가까워

◎ 판단 Point

■ 범주(맥락) 뒤섞기

A의 범주(맥락)에서 a가 제시됐고, B의 범주(맥락)에서 b가 제시되었다 해보자. 이때 선택지에서 A와 b를 연결짓는 게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툭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암소'의 위험을 인간이 해결해주는 것 역시, '가축(암소)'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경우라 볼 수 있지.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 ▶ 필자는 '늙은 나무'가 '암소'처럼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 또,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골짜기'의 나무보다,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더 번성하게 자랐다는 것은,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거야.

1문단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 ▶ 블록체인이 뭐라는 거지?
- ▶ '데이터 블록'을 '체인' 형태로 만든 거구나. 다음의 형태를 떠올릴 수 있겠다.



- ▶ 이들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다 하니, 컴퓨터들 각각에 위 체인이 하나씩 저장된 형태를 떠올려보자.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 블록체인이 저장된 컴퓨터를 이제부터 '노드'라고 부르겠구나. 까먹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 ▶ 당연한 내용이야. 블록체인이 각 노드에 저장된다 했으니, 새로운 블록 (=데이터)이 생겨난다면, 각 노드에 블록이 전파되겠지.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 ▶ 왜 이런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걸까? 생각해보자.
- ▶ 데이터의 연결성과 효율성 때문이 아닐까 싶네. 기존의 데이터와 모순되는 내용 없이 잘 이어져야 하고, 하나의 체인 안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해 저장한다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후에 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은 수정될 거야. 결국, 데이터의 '보안성'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어.)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 ▶ 검증이 끝났음에도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지 않고, 승인 과정을 거치나봐. 왜 모든 노드들이 승인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
- ▶ 잘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일부로 들어오는 건 꽤나 '민주적 합의'를 통한 듯해. (→피난민들을 자국에 수용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받는 느낌과 비슷한 걸까?)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 ▶ 어쨌든 '검증'과 '승인'이 끝나면 드디어 신규 블록이 블록체인의 일부로 들어와서 각 노드들에 전파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 ▶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를 말하고 있네. 밴다이어그램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어.
 - 승인 과정 ⊃ 합의 알고리즘 ⊃ 작업증명
- ▶ 그런데 '합의 알고리즘'은 뭘까? 노드들을 모두 '합'해서 승인 과정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인 걸까?
- ▶ '작업증명'은 어떤 방식일까? 뒤의 문단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 이 문장은 세부정보로 인식해줄 수 있겠어. 표시를 해두고, 필요하면 돌아와 확인해보자.

◎ **특해 Point**

- **명칭 추론**
명칭은 아무 이유없이 지어지지 않는다. 명칭이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다 수월하게 정보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 '합의 알고리즘'의 명칭이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아니 부여해보자.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해되면 장땡이다.

◎ **특해 Point**

- **세부 정보의 구별: 설명 여부로 판단**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텍스트를 활용하는가'이다. 즉 <A는 B이다>라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 이유, 분류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해당 정보는 핵심에 해당하고, 아니면 세부에 해당한다.
⇒ 위의 문장은 뒤의 내용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부로 인식하고, 밑줄을 쳐두는 편이 좋겠다.

2문단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도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 ▶ 당연한 내용이야. 블록체인은 결국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니, 성능은 데이터의 저장 속도 및 양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 ▶ 둘을 구분하며 읽어주어야겠어. 공개형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비공개형은 데이터를 비공개하러나?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 **디딤문제 115**

노드 수에 제한을 두는 것과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른 이유를 추론해보면?

- ▶ 왜 비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속도가 빠를까?
- ▶ 말 그대로, 데이터를 비공개해야 하니, 아무한테나 블록체인을 전파할 수 없겠지. 한정된 노드에게만 데이터를 전파할 거야. 노드 수가 한정적이니, 신규 블록을 전파하여 저장시킬 때(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승인 과정을

▶ **디딤문제 115** 해설 참고

거칠 때)도 노드 수가 무한정일 때보다 시간이 덜 걸리겠지.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 당연해. 데이터 저장 속도가 빠르니까, 성능도 좋은 편이겠지.

3문단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 ▶ 왜 블록체에서 데이터는 무단 변경이 어려울까?
- ▶ 아마도 블록체인이 각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한 노드에서 데이터를 무단 변경한다면, 다른 모든 노드들이 '어? 너 왜 우리 데이터랑 달라?'라고 묻겠지.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된 한 노드를 따라 모든 노드들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어려울 거야.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 왜 변경된 데이터는 연결을 끊는 걸까? 변경되지 않은, 신빙성 있는 데이터만 블록체인에 넣고 싶기 때문이겠지.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 끊어진 데이터는 또 다시 각 노드들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연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구나.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한 번 끊어진 데이터가 복구(=블록과의 재연결)되는 건 어려운 일일 거야.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 데이터 변경이 어려우므로 무결성이 높다! 인정할 수 있어.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디딤돌 116

삭제됐다가 복원된 데이터는 삭제 전 기존 데이터와 그 내용이 (같지 않을 것이다 / 같을 것이다)

- ▶ 뭘 소리지? '복원'은 '변경'과 달리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왜일까?
- ▶ '변경'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거지만, '복원'은 오류 등으로 인해 지워진 데이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니까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이미 승인 과정을 다 거친 정보일 테니까.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디딤돌 116 같을 것이다. '복원'은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이기 때문.

▶ 이미 모든 노드들에서 승인 과정을 거친 정보들이므로, 데이터를 복원할 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지.

4문단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 각각을 잘 인식해두자. 정보가 나열될 것이므로, 표시도 남겨주어야겠어.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 보안성은 '변경 불가능성', '이중 불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겠다.

◎ 독해 Point

▪ 설정된 개념 ⇒ '나의 말로 정리'

설정된 개념을 '나의 말로 이해해두어야 선지 판단에서 힘을 쓸 수 있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 및 노드 수의 감소가 왜 보안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까?

▶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 승인이 박세다는 것이고, 노드 수가 많을수록 승인의 심사관들이 많아지는 꼴이니 역시 승인이 박세진다는 거겠지. 승인이 어렵다는 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니 보안성이 높아질 거야.

▶ 납득은 했지만, 살짝 헛갈릴 수도 있겠어. 비례/반비례 화살표를 표시해두자.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 탈중앙성은 말 그대로 승인 과정이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정도'를 말하는구나. 즉, 승인 과정이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할 거야. 탈중앙성이 낮다면 일부 심사관이 승인 과정을 독재하는 상황이 일어날 거야. 탈중앙성은 민주적인 것과 비슷하구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 노드 수가 감소하면, '퍼져 있는 정도'가 줄어드니 탈중앙성은 낮아지겠지.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 확장성은 '성능 및 안정성'으로 보면 되겠다. 노드 수를 늘려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니까!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려고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노드 수를 제한하면, 그만큼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공개형과 비공개형을 이해하며 인식한 내용이지?) 이에 따라 안정성도 높아지겠지.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 ▶ 3가지 특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구나.

디답문제 117

노드 수가 늘어나면 보안성 (증가 / 감소), 탈중앙성 (증가 / 감소), 확장성 (증가 / 감소)

01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	⋮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데이터를 블록화하여 체인 형태로 각 노드에 저장)과 한계(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모두 함께 높일 수 없음)가 나타났으니 ①은 판단 결과가 0로, 적절할 거야.
 - ▶ 블록체인의 구조(데이터를 블록화한 체인 형태)가 제시됐지만, 응용 분야는 소개되지 않았어. ②는 판단 결과 X로, 적절할 거야.
 - ▶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무결성 및 복원 용이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를 열거하지는 않았어. 또한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도 나타나지 않았지. ③은 판단 결과가 X로, 적절해.
- 열거: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말이 즉 늘어놓음.
- ▶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증명의 예인지 살펴보기 위해 지문을 서치하자.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선후가 반대로 쓰여 있네. ④의 판단 결과는 X로, 부적절해.
 - ▶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불렀지. ⑤의 판단 결과는 0로, 적절해.

02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는 민주적 절차로, '모든 노드'야. 특정 노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어.
-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해당 변경된 블록체인'만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치면 될 거야.
-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 보안성이 높은 건,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유지되면서 데이터의 변경이 어렵다는 걸 의미해.
 - ▶ 만약 데이터의 삭제도 '변경'에 해당한다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건 보안성이 낮다는 걸 의미할 거야.
 - ▶ 만약 데이터의 삭제가 '변경'과 상관없다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건, 보안성과 상관없겠지.

◎ **판단 Point**

▪ 선지의 중의성 ⇒ 각각의 경우 검토

선지에 쓰인 어휘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각각의 경우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평가원은 이렇게 해석되나, 저렇게 해석되나, 참/거짓이 동일하게 해석되도록 출제한다.

-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데이터의 저장 속도가 빨라지겠지. 성능은 높아질 거야.
- 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디딤문제 118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이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O X)

- ▶ 신규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될 때는 기존의 데이터와 상충되지 않는지, 이종은 아닌지 비교해보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했어.

디딤문제 118 X 합의 알고리즘은 '승인 과정'에 사용된다.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는 과정은 '검증 과정'이다.

0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 ▶ 먼저 주관식으로 정리해보자. '복원'이 용이한 이유는, 별도의 승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야. 삭제된 데이터는, 이전에 이미 모든 노드에서 승인 과정을 거친 정보이기 때문이지.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 변경이 쉬운 것과 복원이 쉬운 것은 상관이 없어. 게다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는 변경은 어렵지.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삭제된 데이터'가 이미 다른 노드에서 승인 과정이 완료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야. 복원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니, 복원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면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줄기는 할 거야.
 - ▶ 그러나 데이터 복원은 애초에 '승인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노드 수의 제한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지.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 '신규 데이터' or '변경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복원되는 데이터'는 애초에 별도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데이터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지.
 - ▶ 가령, <나는 국어 공부가 쉽다. 독해력이 좋아서 독해 학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해보자. 여기서 '나'가 국어 공부가 쉬운 이유로, <남들은 독해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를 댈 수는 없겠지?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 복원되는 데이터도 처음에 블록체인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을 거야. 그때 '검증'을 거쳐서 들어왔겠지.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그런데 이 검증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될 수 없게 돼.

◎ 판단 Point

■ 구절의 이해 ⇒ 선 주관식 후 소거법

한 구절의 이해를 묻는 문제는 먼저 주관식으로 그 답을 떠올린 다음, 선지에서 틀린 선지를 지워나가자. 이때, 틀린 선지는 발문과 크게 상관없이 지문 전체의 내용에 대한 '내용 일치·불일치'로 접근할 수도 있다.

⇒ ①, ③, ⑤는 발문과 상관없이, 지문과의 '내용 일치·불일치'의 관점으로도 소거된다. 또, 발문에서 주관식 사고로 '데이터의 복구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라는 답을 낼 수 있는데, 이와 ④는 상충되므로 지워낼 수 있다.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업체는 최근 A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 ▶ A업체는 노드 수를 10개로 고정시키니, '비공개형'일 거야. 노드 수를 제한시킨 데다가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에 비해 성능을 높였으니, '확장성' 또한 높겠지.
- ▶ B업체는 A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켰으니, '보안성'이 더 높아졌을 거야. 노드 수에 제한이 없으니 '공개형'이고, 승인 과정에 그대로 '작업 증명'을 사용하니, '확장성'은 A업체에 비해 낮겠네.
- ①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
 - ▶ 성능을 높였으니 확장성은 확실히 높아졌겠지만, 보안성은 알 수 없어.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나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서술되지 않았으니까.
- ②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 ▶ 노드 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거야. 그러나 노드 수가 늘어난 만큼 성능이 저하되어 확장성은 낮아지겠지.
- ③ **B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 ▶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퍼져 있는 정도(탈중앙성)는 낮아지겠지.
- ④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 ▶ A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으니 비공개형이고, '퍼져 있는 정도'(탈중앙성)는 낮을 거야.
- ⑤ A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
 - ▶ 둘의 승인 과정은 '작업 증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 하지만 A업체보다 B업체의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무결성)이 높다고 했어.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가)	자연 = 탈속적이고 고고하고 청정한 이상 세계
(나)	자연 = 활달하고 흥겨운 놀이를 펼치는, 멋스러운 현실 세계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술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자연의 아름다움 묘사/예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뒀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홀로 있는 자연의 삶을 긍정 + 자연을 즐기는 본인의 삶에 대한 자족감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시운의 흥망(→시대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한 애달픔

기산의 늪은 고블* 귀는 어찌 찢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험한 세상사에 대한 안타까움 속세에 대한 거리감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흥취를 통한 안타까움 해소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먼 산 두메로 핑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술질 활활 쫓아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쌍쌍 박아 송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뒀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지나
 굵으나 굵으나 지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뺨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푹푹 꺾어 거꾸로 잡고 있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바독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놀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뒀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쁜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중: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활달하고 흥겨운 놀이를 펼치는, 멋스러운 현실 자연 속 삶에 대한 자족감

디딤문제 119

(가), (나)의 주제를 정리하면?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주제는 '자연에 대한 긍정'과 '속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물의 그리움과 관련이 없어.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 <보기>에서 드러낸 주제 자체가 '활달함'이므로 (나)는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 '말뚝 팡팡쌩쌩 박아'라는 구절을 볼 때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디딤문제 120

(나)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O X)

- ▶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려면 특정 공간이 제시되고, 또 다른 공간이 제시되며, 이들 사이의 이동이 암시 또는 제시되어야 하는데, (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디딤문제 121

(가)에서는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O X)

디딤문제 122

(나)에서는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O X)

- ▶ (가)에서는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

◎ 판단 Point

- 고전시가 ⇒ 서치 최소화

고전시가는 타 영역보다 주제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다. 이에 선지들도 주제로 곧잘 지워진다. 물론 세부적인 서치를 요구하는 선지들도 있지만, 주제 추론을 통해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선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판단 Point

- 주제와의 관련성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지는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선지까지 하나하나 서치하면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될 수 있다.
 ⇒ 찾는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나타난 주제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②부터 서치하여 4vs1로 나머지 선지의 판단을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디딤문제 119 (가) 탈속적인 자연의 삶, 속세를 보면 올라오는 시름도 잊게 해.
 (나) 활달하고 현실적인 자연의 삶, 멋스럽고 흥겨워.

디딤문제 120 ○ (1연)임의 집 송정 → (2연) 여울

디딤문제 121 X

디딤문제 122 ○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굶으나 굶으나 자나

0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 이 작품의 주제는 화자가 거처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거였어.

- ▶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눈(→겨울)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거야.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 이 작품의 주제는 화자가 빼어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였어.

- ▶ 경요굴 숨은 세계를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염려라 볼 수 있지.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 실제 곁에 없는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어.

- ▶ 또한 벗이 없는 상황이니 적절한(조용하고 쓸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거야.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홍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 화자는 시운의 홍망에서 '애달프도 그지없다'고 느껴. 이는 '담담한 태도'라는 정반대의 심리라 볼 수 있을 거야.

- ▶ 또한 시운의 홍망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하여, 이를 애달파하는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거라고 보기 어려워.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 ▶ 주제상 화자는 속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연 은거를 지향하고 긍정해.

- ▶ 기산에 은거한 허유를 '고블'로 표현(평가)한 것에는 이를 긍정하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을 거야.

◎ 판단 Point

- 선지에 쓰인 어휘의 의미

선지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떠올려주자. 보다 명료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 ⇒ '담담함'은 '차분하고 평온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제와 어긋난다.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예찬하며, 속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 (가)는 탈속적이고, 속세와 구별되는 이상(→환상) 자연을 그린다고 했어. 따라서 '용(→환상적 존재)'은 이러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소재가 될 수 있지.
- ▶ (나)는 활달하고 현실적인 풍류를 펼치는 자연을 그린다고 했어. 따라서 '생매'는 활달하고 현실적인 풍류의 취향을 보여주는 소재일 거야. '고고함'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고상하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주제의식과 맞지 않아.

◎ 판단 Point

▪ 주제가 먼저다.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지는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선지까지 하나하나 서치하면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될 수 있다.

⇒ 생매 자체가 고고한지, 아닌지를 따지면 안 된다. (<보기>가 제시한 전반적인 주제/맥락 속에서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가)는 탈속적이고, 속세와 구별되는 이상(→환상) 자연을 그린다고 했어. 또한 본문에서 이러한 자연은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으니, '학'도 이러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소재가 될 수 있지.

▶ (나)는 활달하고 현실적인 풍류를 펼치는 자연을 그린다고 했어. 따라서 '고기'는 활달하고 현실적인 풍류의 취향을 보여주는 소재일 거야.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가)는 청정한 자연의 세계를 그린다 했으니,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로 볼 수 있어.

▶ (나)의 화자는 '선관'을 부르고 있으므로, 함께 하고 싶은 인물로 볼 수 있을 거야. 또한 <보기>에서 신선의 이미지를 멋스럽다 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할 거야.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가)에서 '산옹'은 마치 부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계절에 따른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야. <보기>를 토대로 화자는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한다는(→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나)는 활달하고 현실적인 풍류를 펼치는 자연을 그린다고 했어. 따라서 사냥과 고기잡이는 활달하고 현실적인 풍류의 취향을 보여주는 소재일 거야.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 ▶ (가)에서 화자는 속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술을 통해 달래고자 하고, (나)에서 화자는 풍류를 즐기던 참에 술병까지 더하려 하고 있으므로 흥취를 더한다고 볼 수 있어.

1문단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 ▶ 당연한 얘기야. 손상된 장기는 대체를 위해 이식을 해야겠지.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 ▶ 이식편은 '새롭게 옮겨 붙이는 대상'이라 보면 되겠네. '개념 설정'에 해당하니까 이후에도 까먹지 않게 조심하자.

◎ 독해 Point

▪ 개념의 설정 ⇒ 재구성

어떤 개념이 설정되면, 그 개념을 '나의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에 그 개념을 활용해서 내용이 전개될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로 인식해주어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 ▶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사용하는 걸 '동종 이식'이라 하는구나. 왜일까?
- ▶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람'이니까, 같은 종(동종)이겠지. 그래서 동종 이식이라고 부르는 건가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 ▶ 당연한 내용이야. 원래 나의 것이 아닌 '이식편'은 우리의 몸에서 면역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지.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 ▶ 주조직적합복합체(MHC)가 뭘까? 관련 설명을 없으니, 고유명사로 인식하여 표시를 남겨주자. 필요하다면 돌아와서 볼 수 있어야 할 거야.
- ▶ 어쨌든 이것의 차이에 의해 면역적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니,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개체들은 서로 MHC 분자의 차이가 있을 것을 알 수 있겠어.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 ▶ 당연히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차이'가 클 거고, 이에 따라 거부 반응도 심해지겠지. 이 '차이'가 나타나는 분자가 바로 MHC일 거야.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 ▶ 왜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쓸까?

- ▶ 결국 거부 반응도 면역력의 작용이기 때문이겠지. 이 면역력 자체를 떨어트리면 거부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을 거야.

◎ 독해 Point

▪ 최대한 납득질문-예측

글을 읽으며 등장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납득하거나 질문하거나 예측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보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 ⇒ 낯선 정보가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납득할 수 있는 문단이다.

2문단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 ▶ '동종 이식편'의 수가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하는 방법'이 필요하대. 아마도 이 '대체하는 방법'은 비용도 싸고, 수가 부족하지도 않아야 할 거야.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 '전자 기기 인공 장기'는 뭘까? 인간의 심장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든 심장일 거야.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 ▶ '전자 기기 인공 장기'의 단점들(일시적 대체, 전력 공급 및 정기 교체 필요, 정교성 부족)이 나열되었어. 세부적으로 나열되었으니, 각각을 표시하고 요약해보자.
- ▶ 결국 전자 기기 인공 장기는 불완전하다는 거네.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

3문단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 ▶ '이종 이식'은 왜 '이종 이식'일까? 사람의 종이 아닌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사용하기 때문일 거야.

◎ 독해 Point

▪ 명칭 추론

특정 용어나 개념의 명칭은 아무런 이유없이 지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한 명칭이 붙었는지 이해해보자.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디답문제 123

위와 같은 이유를, 지문 내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설명해보라.

- ▶ 왜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심할까?
- ▶ '이종'인 동물의 이식편은 '동종'인 사람보다 유전적 차이가 클 거야. MHC 분자의 차이가 커지니, 당연히 거부 반응도 더 심해지겠지.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 이게 무슨 소리지?
- ▶ 사람의 항체는 다른 종(→이종 이식편)의 세포의 항원과 반응하여 거부 반응이 세계 일어난다는 거구나.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디답문제 124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 써라.

- ▶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 즉 항원만 제거했다는 거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 크기도 비슷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니, 지금까지의 것들 중 가장 괜찮긴 하네. (돼지의 장기를 이식한다는 게 좀 꺼림칙한 것 빼고..?)

4문단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 ▶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 이걸 또 뭐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 ▶ 뭐라는 거지?
-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내인성 레바)는 레트로바이러스(→레바)가 진화한 DNA의 일부라는 것 같아. DNA의 구조 일부에 있는 내인성 레바를 떠올려보자.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 내인성 레바는 '바이러스'라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디답문제 123 해설 참고

디답문제 124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항원

갖지 않는구나. 헛갈릴 수 있으니 표시해주자.

- ▶ 모든 포유류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 몸에도 내인성 레바가 있겠네.

◎ 독해 Point

■ **조심할 정보** ⇒ 표시

글을 읽는 도중에 헛갈릴 만한 정보나 조심해야 할 정보에는 표시를 남겨두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 ▶ 레바의 특징이 제시되고 있어. '내인성 레바'와의 차이점을 잘 짚어줘야겠다.
- ▶ '내인성 레바'와 달리, 그냥 '레바'는 감염력이 있다 하니,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 RNA가 뭐냐?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건 DNA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또 역전사 효소는 뭐냐?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 표시를 남겨두자.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 ▶ 뭐라는 거지?
- ▶ 일단 전사와 역전사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어. 보기 좋게 정리해놓자.
 - 전사: DNA → RNA
 - 역전사: DNA → RNA
- ▶ 아무튼 '레바'는 역전사 과정을 통해 세포를 감염시킨다는 거구나.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디답문제 125

4문단에서 주요하게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 ▶ 레바는 세포의 DNA에 끼어 들어가 감염시킨 뒤, 세포를 숙주로 삼아 복제, 증식 후 세포를 파괴한다. '내인성 레바'와 달리 '레바'가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복기시켜주고 있어.

◎ 독해 Point

■ **세부·나열** ⇒ 요약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세부 정보가 나열될 때는 이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줄 수 있어야 한다.

- ⇒ 4문단에서는 레트로 바이러스의 특징 및 감염 과정이 나열됐다. 하나하나 인식하되, 기억하지 못 할 수 있으니 표시해두고 선지 판단 시 돌아오려고 준비해야 한다.

5문단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디답문제 125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와 레트로 바이러스의 특징, 레트로 바이러스의 숙주 세포 파괴 과정

- ▶ 레바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 ▶ 아무튼 애들은 레바를 견딘 '강한 정자', '강한 난자'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 ▶ 왜 자손의 모든 세포가 '내인성 레바'를 가지게 된 걸까?
- ▶ 레바를 견뎌낸 정자, 난자의 DNA에는 레바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레바는 세포의 DNA에 끼어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레바는 더 이상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겠지. 정자, 난자는 이미 이를 견뎌냈으니까.
- ▶ 그럼 '바이러스의 활성을 잃은 레바'를 가진 정자, 난자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 역시 '바이러스의 활성을 잃은 레바'까지 유전 받았을 거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 ▶ 쉽게 말해서, '내인성 레바'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잃은 돌연변이라는 거네.
- ▶ 그런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세포로 갔을 때(→이식)는 바이러스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걸까?

◎ 독해 Point

▪ 보조사의 활용

보조사 '은, 는, 만'은 대비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도'는 공통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에 주목해보자.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 ▶ 왜 내인성 레바가 다른 종의 세포로 가면(→이식을 하는 순간) 그냥 레바가 되는 걸까?
- ▶ 이유는 잘 모르겠어. (정확한 모르겠지만 이전에 일어난 염기서열의 변화가 기존 세포에 대한 맞춤형으로 일어났기 때문인가?) 어쨌든 이식이 진행되는 순간, 이식편에 있던 '내인성 레바'가 '레바'로 변환되어 바이러스의 활성을 되찾는구나. 그럼 이것도 이식의 문제가 되겠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 ▶ 미니돼지의 DNA에 있는 내인성 레바도 이식을 하는 순간 레바가 되어 바이러스의 활성을 되찾으므로, 내인성 레바도 제거해야겠네.

디딤문제 126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빈칸을 채워라.

1. ()에 있는 ()의 일부에 레트로바이러스가 끼어들어 감염됨
 2. 그러나 생존하여 자손을 번식함
 3. 자손의 (모든 / 일부) 세포가 가진 ()의 일부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됨
- + (동종 이식 / 이종 이식) 을 실시하면 이 내인성 바이러스가 다시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됨

6문단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 동종 이식, 인공 장기, 이종 이식 모두 단점이 존재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식편을 개발 중이라는 거네.

01 읽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동종끼리의 유전적 차이보다 이종끼리의 유전적 차이가 더 클 거야. 따라서 MHC 분자 차이도 더 크겠지.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은 면역적인 작용이라 했었어.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종 이식을 실시하면 내인성 레바가 그냥 레바가 되어 바이러스의 활성을 찾을 수 있다 했지.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포유동물의 모든 세포에는 내인성 레바가 있다고 했어. 이는 포유동물의 조상은 레바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었고, 정자와 난자 세포가 이 레바로부터 살아남았음을 의미할 거야.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디립문제 127
이 선지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문장 1개를 찾아 앞뒤 어절을 쓰고, 이 선지의 정오를 설명하라.
▶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를 DNA로 바꾸는 건 맞는데,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했었나? 잘 모르겠으니 찾아보자.

◎ 판단 Point

▪ 서치 ⇒ 차분·정확

헛갈렸다면, 명시적 근거를 지문에서 서치하자. 이때 급해져서 대충 아무런 근거를 잡으면 안 된다. 시간을 조금 써서라도, 확실한 근거를 잡아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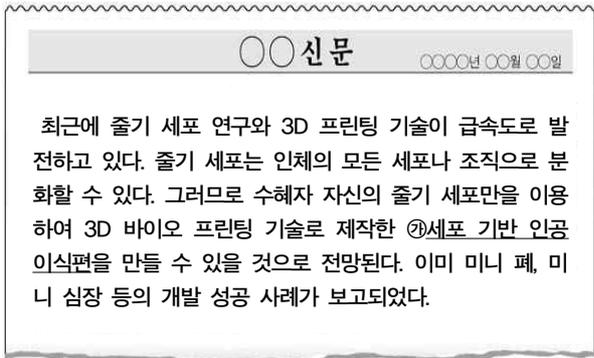
⇒ 꽤나 깊은 서치를 요하고 있다. 차분하게 시간을 쓸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02 ㉞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장기/조직/세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야 할 거야.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카 용이**해야 한다.
▶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는 건 좋지만, 정기 교체가 용이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정기 교체를 아예 하지 않아야 좋을 거야.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디립문제 127 <레트로바이러스는 ~ 감염시킨다.> 역전사 효소는 숙주가 아닌, 레바가 가진 것이다. 따라서 ㉞는 부적절하다.

0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 자신의 세포를 기반으로 만든 이식편이므로, 전자 기기가 아닐 거야. 따라서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이 필요 없겠지.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 자신의 세포를 기반으로 만들므로, 분자 차이에 따른 거부 반응이 없을 거야. 동종 이식과 달리,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 ㉔는 자신의 세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니, 내인성 레바는 문제가 안 되겠지.
 - ▶ 내인성 레바는 동종 이식이 아닌 이종 이식의 문제겠지. 동종 이식에선 내인성 레바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 이종 이식편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유전자 조작)해야 했지. ㉔는 자신의 세포를 기반으로 만드니까, 거부반응 자체가 없을 거야. 따라서 유전자 조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 ▶ ㉔는 자신의 세포를 기반으로 만드니까, 거부 반응 자체가 없을 거야.

04 ㉔과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㉔은 내인성 레바, ㉕은 레바야. 레바는 언제나 바이러스의 활성을 지니며, 내인성 레바는 평소엔 문제가 없다가 이종 이식을 할 때에만 레바가 되어 바이러스의 활성을 지니게 돼.

① ㉔은 ㉔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디립문제 128

이 선지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 쓰고, 정오를 설명하라.

- ▶ 내인성 레바, 레바의 특성을 설명하는 구간으로 돌아가 근거를 찾아보자.
- ▶ 레바는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키니, 모든 세포의 DNA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감염시키려고 하는 세포의 DNA에만 끼어들겠지.
- ▶ 반면, 내인성 레바는 레바로부터 살아남은 정자, 난자에서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고 있다고 했어.

② ㉕은 ㉔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디립문제 129

이 선지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 쓰고, 정오를 설명하라.

- ▶ 내인성 레바, 레바의 특성을 설명하는 구간으로 돌아가 근거를 찾아보자.
- ③ ㉕은 ㉔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 레바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져. 이는 숙주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 감염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야.
- ▶ 반면 내인성 레바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거야.

④ ㉔과 ㉕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 레바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⑤ ㉔과 ㉕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 ▶ 내인성 레바는 레바와 달리 바이러스의 활성(=감염력)을 가지지 않아.

디립문제 128

<레트로바이러스는 ~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해설 참고

디립문제 129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 유전 정보가 담긴 RNA가 DNA가 되므로, DNA에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다.

SET 24

정철의 시조/호아곡 (25.09)

<보 기>

정철과 조존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정철, 조존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
정치 현실 비판, 자연친화적 태도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 배 두신 분 풍파, 구름이 험함 → 안타까움, 경계심(조심하소서)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영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여기저기서 온 말을 하여도 알아서 짐작하라
화자 → 입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판단해달라 요청)
(→정치적 공격을 받은 화자)

(다)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자연에 은거, 낚시 → 흥겨워 함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제3수>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 → 임금의 은혜로 여김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희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제4수>

- 조존성, 「호아곡」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희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인물(화자/대상)

상황·심리

화자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긍정함

디딤문제 130

(가), (나), (다)의 주제를 정리하면?

디딤문제 130 (가) 다들 조심하세요. 풍파가 심합니다.

(나) 입아 아무 말이나 믿지 말고 잘 들어봐 줘

(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이 태평해~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나)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다) 아이야 구력 망태 찾아라>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가)와 (나)에는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아.

◎ 판단 Point

▪ 주제가 먼저다.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선지는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선지까지 하나하나 서치하면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될 수 있다.

⇒ 시험장에서 '의인화'를 찾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가)~(다)는 모두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가), (나)는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시들이 아니야.

◎ 판단 Point

▪ 필자의 의도

필자가 해당 작품을 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썼는지 생각해보자.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 (가)~(다) 모두 계절에 따른 변화상을 그리는 작품들이 아니야.

02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모두 '아이야'라는 동일한 시어가 각 수의 첫 음보로 제시되어 있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밖에 없지.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제1수>의 '구력 망태', <제2수>의 '도롱(우비)'는 모두 생활 도구에 해당해. 화자가 생활하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으므로,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구력: 구력은 섬 따위 같이 물건을 담기 위하여 새끼로 그물 뜨듯 드물게 걸어서 만든 것

망태: 망태기의 준말로써, 새끼나 노끈으로 조밀하게 짜서 만든 푸대 모양의 그릇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이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다)의 화자는 애초에 걱정이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을 긍정하고 있지. 화자의 걱정이 강화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아.

◎ 판단 Point

▪ 4vs1

하나의 선지가 명백히 정답임(or 4개의 명백한 오답)이 확인되면 그 즉시 다른 선지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②와 ④는 어휘의 문제로 인해, 완벽한 증명이 힘들다. 하지만 ③은 주제와 완전히 어긋나므로 증명이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③의 증명에 힘을 써야 하지, ②와 ④와 씨름하면 안 된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제1수> 종장에서는 '나물', <제3수> 초장에서는 '죽조반'이라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했어. 말 그대로 '간단한' 먹을거리이므로 '소박한' 생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죽조반: 아침에 일어나자 먹는 죽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제4수> 종장에서는 '어즈버'라는 감탄 표현을 첫 음보에 사용하고 있어. 시어나 시구는 대부분 시상을 집약하므로, 적절해.

◎ 판단 Point

▪ 으레 맞는 표현

문학에서는 '으레 맞는 표현'이 등장한다.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상황을 드러낸다',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등등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태클을 걸지 않으려 해야 한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가)의 초장은 '풍파에 일렁이던 배'를 언급하고 있어. 이것이 '험난한 정치 현실'에 '시련을 겪은 관료'를 말한 것이라면, 당쟁(=정치적 견해의 대립 → 험난한 정치 현실)에 휘말린 사람이 소외(→시련)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지.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가)의 종장에서는 '허술한 배 두신 분네(→신진관료)'에게 '구름이 험하(→정치적 위기)'다며 조심하라고 해. 이것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지.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임'에게 심의산 오뉴월의 자취눈(→화자의 심회, 복잡한 심정)을 뵈냐며 온 눈이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해달라고 하고 있어. 이들이 화자의 심회 및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이는 임에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며 임이 '온 눈'의 '온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알아서 짐작해달라는 뜻이 될 거야.

▶ 화자는 굳은 마음을 견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구절은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임을 향한 요청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할 거야.

④ '온 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달라는 것이겠군.

▶ '온 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임이 짐작하소서'는 임금이 그 말(참소)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잘 판단해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화자는 낚시를 즐기며 '흥 겨워하노라'하고 있어. 이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지.

부적절함을 의심할 수 있다.

⇒ 화자가 애초에 '복잡한' 심정을 가졌다면, '굳은 의지'를 '견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모순된다. '견지'하는 것은 이전의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복잡한' 심정이었다면 '굳은 의지'로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견지'할 수는 없다.

◎ 판단 Point

▪ 선지 내 모순성

선지의 앞뒤 호응을 잘 살펴보자. 앞뒤의 내용이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

